



OPEN THE DOORS TO CANADA IN FALL

내 안을 채우는 캐나다 가을 여행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PAID CONTENT FOR DESTINATION CANADA

CANADA




TRAVEL GU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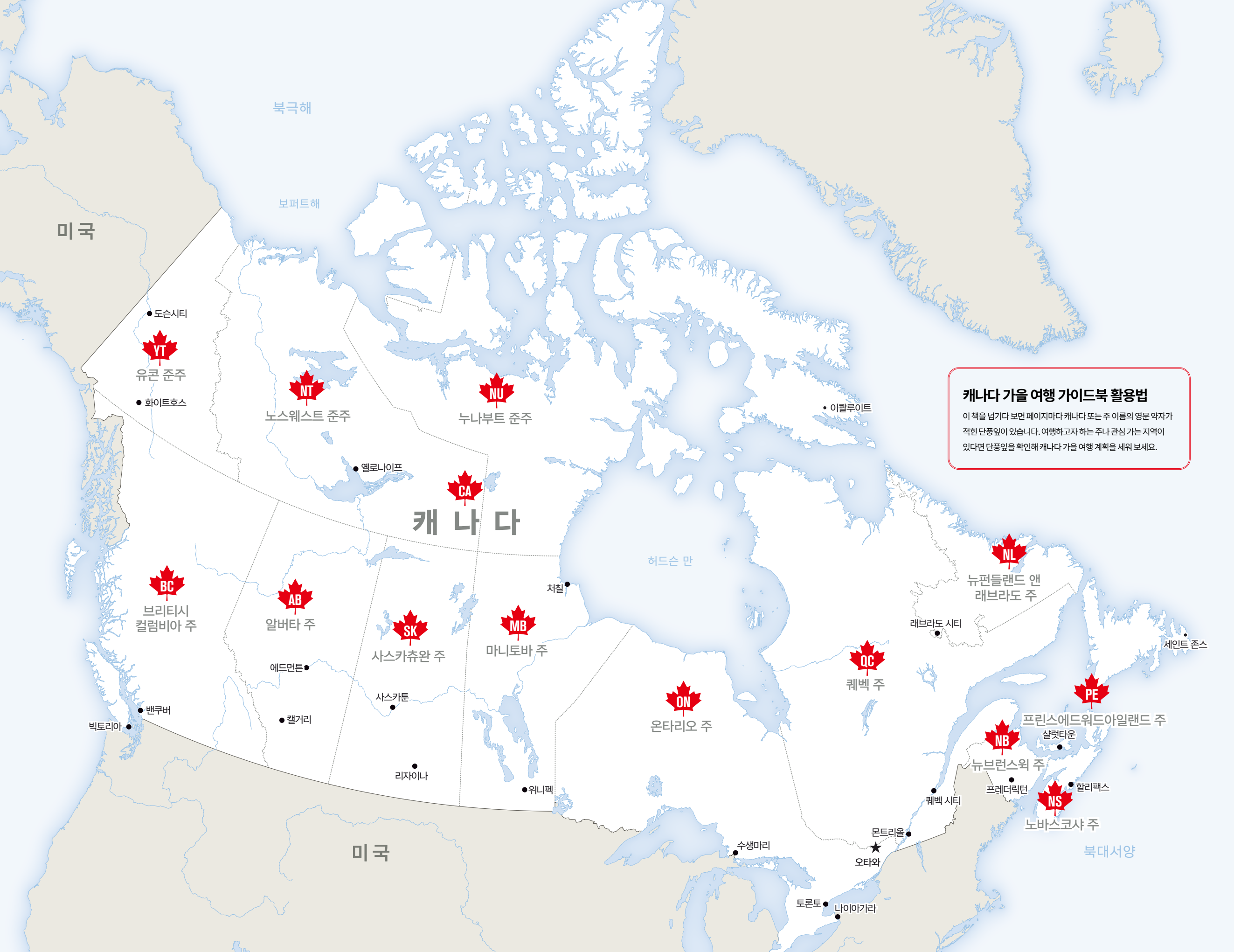
OPEN THE DOORS TO CANADA IN FALL

내 안을 채우는 캐나다 가을 여행





“페이지를 넘겨 캐나다로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가을에 캐나다로 떠나야 할 이유를 알게 됩니다.



북극해

보퍼트해

미국

●도슨시티



유콘 준주

●화이트호스



노스웨스트 준주



누나부트 준주

●이퀄루이트

●엘로나이프



캐나다

허드슨 만

●처칠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알버타 주

●에드먼튼

●캘거리



사스카추안 주

●사스카툰

●리자이나



마니토바 주

●위니펙



온타리오 주

●수생마리



퀘벡 주

●몬트리올

●오타와

●레브라도 시티



뉴펀들랜드 앤 래브라도 주

●세인트 존스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주

●살렛타운



뉴브런스윅 주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퀘벡 시티

●프레더릭턴

●할리팩스

구성 및 목차

이 책은 12인의 크리에이터가 경험한 캐나다의 가을을 열 가지 주제로 풀었습니다. 열 가지 주제는 캐나다의 가을로 들어가는 10개의 문이 되어 알찬 여행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후에는 캐나다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추천 여행 일정을 안내하고, 캘거리 직항이 생기며 여정이 더욱 편리해진 알버타 주에 주목해 봅니다.

캐나다의 문을 열고 들어가다

2

캐나다의 가을을 만끽한 12인의 크리에이터 이야기

1 트래블엘리스, 단풍 구경하기	4
2 문차나그래피, 야생동물 관찰하기	6
3 하다 & 모리모리, 오로라 감상하기	8
4 서슴, 로키 산맥 기차 여행	10
5 길폴 & 프로안량 칠대장, 캠핑과 하이킹하기	12
6 나연, 드라이브 즐기기	14
7 노후니, 건강한 균형을 이루다	16
8 송아, 캐다다 음미하기	18
9 권소아 아나운서, 축제에 동참하기	20
10 김민주 에디터, 선주민 문화를 존중하다	22

캐나다의 가을로 들어가는 10개의 문

1 단풍의 절정	24
2 야생의 친구들	30
3 포근한 오로라	34
4 기차는 가을을 싣고	36
5 어드벤처 파라다이스	38
6 시닉 드라이브	44
7 웰빙	54
8 미식 예찬	60
9 축제의 계절	66
10 선주민 문화에 경의를 표하다	70

+

캐나다 가을 여행 추천 일정	74
알버타 주를 주목하라	78

가을, 캐나다로 떠나야 할 이유 6

1 찬연한 색조

북부는 백르먼 8월 중순부터 남부 지역은 11월까지 가을이 점차 무르익어갑니다. 기온이 낮아지면 단풍나무, 물푸레나무, 자작나무 등의 이파리가 색다르게 물들어가며 불타오르는 듯한 붉은색, 탐스러운 호박색, 황홀한 금색 등 단풍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캐나다의 광활한 땅을 물들인 가을빛은 지구위 아름다움을 대표합니다. 경이로운 자연의 변화가 선사하는 낭만적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가을의 오로라도 찬란한 추억을 더해줍니다.

2 풍요로운 대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인 캐나다의 비옥한 대지와 드넓은 바다에는 각양각색 산물이 풍부합니다. 가을은 그 산물을 수확하는 계절이고, 농산물과 해산물을 재료로 한 다채로운 요리가 입맛을 돋웁니다. 캐나다 추수감사절 즈음 전역에서 다양한 수확 축제가 열리며 대지의 풍요를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와인 산지인 캐나다에서는 가을에 다양한 와인 축제도 열립니다. 대지연을 품은 캐나다의 풍미를 음미할 시간입니다.

3 완벽한 기상 조건

가을 날씨는 여름의 더위와 겨울의 추위, 그 가운데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이킹, 카누나 키약 타기 등 여면 활동을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는 계절입니다. 오랫동안 꿈꿔왔으나 시도를 망설인 모험이 있다면, 가을 캐나다의 품 안에서 거침없이 도전해보세요. 가을의 색조처럼 정열적인 탐험이 될 것입니다.

4 길가까이에

아주 깊숙한 오지로 향하지 않아도 원만한 가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을웃을 얻을 수많은 나무가 고속도로를 둘러싸고 있어 로드 트립의 매 순간이 낭만적입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무수한 가을의 파노라마는 기차 여행의 묘미입니다. 이처럼 캐나다의 가을을 담은 서사적 여정이 가까워서 펼쳐집니다.

5 생동하는 야생

캐나다의 가을은 야생이 생동하는 시기입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그레이트 베어 레인포레스트에서는 그리즐리 베어를, 마니토바 주 차질에서는 북극곰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야생 고래를 만나는 경이로운 순간도 놓칠 수 없습니다. 야생을 마주하며 대지연을 깊이 존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6 여유로운 여행

인파로 북적이는 여름휴가 기간이 지난 가을에는 상대적으로 덜 붐벼 더욱 쾌적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항공권이나 숙박시설도 성수기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단풍
다양한 여행 정보는
p24.



지금 당장 캐나다에
접속하기

단풍 구경하기

꿈에 그리던 단풍이란! 퀘벡 주와 온타리오 주에서 캐나다의 단풍에 매료된 '트라블엘리스'의 이야기.

나의 메이플 로드

캐나다를 단풍국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동부는 빨간 단풍이, 서부는 노란 단풍이 유명하다고 들어요. 저는 붉은 단풍이 아름다운 동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먼저 퀘벡 시티에서 베생폴Baie-Saint-Paul까지 샤를부아 기차를 탔어요. 약 1시간 30분 동안 왼쪽으로는 단풍으로 물든 산이, 오른쪽으로는 세인트로렌스 강St. Lawrence River이 펼쳐지는데 정말 예쁜 풍경이었죠. 몽트랑블랑 국립공원Parc national du Mont-Tremblant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 단풍 구경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석양이 물드는 즈음 가면 더욱 눈부신 풍경이 반겨주죠. 온타리오 주 몬트리올에서는 몽로얄 공원Mont Royal의 콘디아몽크 전망대Belvédère Kondiaronk에서 도시의 전경과 단풍을 함께 즐겼어요. 코크타운 풋 브리지The Corktown Footbridge에서 내려다본 오타와의 단풍도 인상적이었죠. 오타와 강을 따라 흐르는 듯이 단풍이 곱게 물들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알곤퀸 주립공원Algonquin Provincial Park은 이번 '메이플 로드' 여행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였습니다.

찬란한 알곤퀸 주립공원

이곳의 단풍잎이 얼굴만 한 크기여서 정말 신기했어요. 이렇게까지 붉은 단풍도 처음 보았죠. 캐나다 국기에 그려진 단풍잎의 모양과 색깔 그대로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저는 60년 고속도로에서 쉽게 닿을 수 있는 두 개의 트레일을 가볍게 하이킹했어요. 2.1km 길이의 룩아웃 트레일을 따라가니 탁 트인 더 클리프 톱 시닉 룩아웃The Cliff Top Scenic



트라블엘리스 @travelaaalic

10년 차 여행 크리에이터. '여행에미치다'에서 8년 동안 SNS 채널을 총괄하며 여행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했다. 더 많은 이들이 여행을 즐겁게 접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해왔다. 수많은 여정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여행'이라는 단어가 두근거린다.

Lookout이 나타났죠. 절벽에 위치해 단풍으로 물든 알곤퀸 주립공원의 광활한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이에요. 가을의 색조를 감상하는 데 완벽한 전망대였어요. 펙 레이크 트레일Peck Lake Trail은 동명의 호수를 한 바퀴 도는 2.3km 코스예요. 단풍이 호수에도 반영되어 더욱 찬연했습니다.

뜻밖의 아름다움

알곤퀸 주립공원이 워낙 넓다 보니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발견한 장소도 있어요. 화장실을 가려고 잠시 주차한 레이크 오브 투 리버스 피크닉 그라운드 앤 비치Lake of Two Rivers Picnic Ground and Beach예요. 제가 이곳을 방문한 9월 30일은 햇벌이 참 따사로웠어요. 단풍으로 둘러싸인 드넓은 호수에서 물놀이를 하거나 소풍을 즐기는 현지인들의 모습이 무척이나 행복해 보였죠. 알곤퀸 주립공원에 방문하신다면, 단풍으로 물든 호수에서 꼭 카누나 카약을 타보세요!

감격스러운 가을

퀘벡 주의 타투스Takoussac에서 출발하는 고래 워칭 투어가 떠올라요. 가을이면 야생 고래를 100%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정말 설렜거든요. 배를 타고 1시간 30분 정도 바다로 향해하니 벨루가라 불리는 흰돌고래와 회색수염고래, 쇠고래 등을 서른 마리 넘게 만났죠. 야생 고래를 만나다니 참 경이로운 순간이었어요. 저는 유람선에 탑승했는데, 고래를 더욱 가까이서 보고 싶다면 작은 보트 투어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에게 캐나다의 가을이란

새로운 최애로 등극! 저는 가을에 태어났고 가장 좋아하는 계절도 가을이에요. 게다가 퍼스널 컬러도 가을 톤입니다. 이토록 가을에 진심이기 때문에 다시 그 계절이 오면 캐나다로 여행을 떠날 생각이예요. 평생 잊을 수 없는 또 다른 추억을 쌓기 위해서.



© 캐나다관광청



© 캐나다관광청



© 캐나다관광청

1 CREATOR'S TIP

여행 계획을 짤 때, 구글 지도를 살펴보면 도시의 이곳저곳을 클릭해보는 습관이 있어요. 지도를 구석구석 세세하게 훑어보며 미리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렌즈마크 주변을 무작위로 찍어보거나 각도를 고려해 이쯤이면 원하는 풍경이 보일 것 같다가 등등, 다양한 사진도 함께 볼 수 있어 지나칠 법한 숨은 장소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단풍을 남다르게 포착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냈죠. 바로 캐나다 국립미술관이에요. 거대한 유리창으로 이루어진 라운지 앞에 공원이 있고 그 너머로 페어몬트 샤토 로리에Fairmont Chateau Laurier 호텔의 건축물이 근사한 풍경을 그려냈죠.

2 FOR TRAVELERS

단풍을 만끽하기 위해 캐나다로 향한다면, 무엇보다 언제 가야 할지 고민이 되실 거예요. 여러 번수 때문에 단풍 시기를 딱 맞추어 방문하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요. 제 경험상 서둘러 가는 것보다 단풍 절정 시기보다 약간 늦게 도착하는 것이 더 나은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 여행에미치다



© 캐나다관광청



© 캐나다관광청



지금 당장 캐나다에
접속하기

야생동물 관찰하기

가을이면 연어는 태평양 바다에서 자신이 태어난 강으로 회귀하고, 야생 곰은 이때를 노린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연어를 사냥하는 그리즐리 베어를 관찰한 '문차니그래피'의 이야기.



문차니그래피 @moonchanigraphy

대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담아내는 여행 콘텐츠 크리에이터다. 생동감 있는 자연을 포착하기 위해서 삼각대를 사용하지 않고 몸의 흔들림에 맡겨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이며 현장감을 담아내는 방식을 추구한다.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도달하는 모험을 떠올렸을 때 설렌다.

생경하고 희귀한 경험

정말 생경한 풍경이었죠. 야생 곰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희귀하잖아요. 그리즐리 베어가 강에서 연어를 사냥하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세세한 움직임을 감각할 수 있었어요. 보통 이런 장면은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접하잖아요. 다큐에서는 하이라이트만 보여주니까 보다 극적인데, 두 시간 정도 실제 곰이 돌아다니며 사냥하는 모습을 보니까 새롭게 신비롭더라고요. 그리즐리 베어가 잡은 연어를 강가에서 바로 먹기도 하고 다른 곳으로 가져가기도 해요. 곰이 먹고 남은 연어도 강가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산시장에서 말을 법한 냄새도 느껴졌죠. 그리고 그리즐리 베어가 흘린 연어의 살점을 먹기 위해서 새도 날아왔어요. 본연의 생태계에 들어와 있다는 게 실감 났어요. 그리즐리 베어뿐 아니라 캐나다의 야생을 모두 만나고 왔습니다.

깊숙한 야생으로 향하는 길

밴쿠버에서 출발하는 1박 2일 여정으로 계획했어요. 우선 밴쿠버에서 차를 렌트해 호스쇼어 베이 Horseshoe Bay에서 페리를 타고 밴쿠버 섬의 나나이모 Nanaimo로 향했죠. 사실 배에 차를 싣는 것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시스템이 잘 갖춰 있어 선포 예약만 하면 선적할 수 있었어요. 나나이모에서 북쪽으로 약 3시간 운전해 캠벨 리버 Campbell River에 도착하니 거의 밤 9시가 다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룻밤 묵고 다음 날 호말코 컬처 앤 와일드라이프 투어스 Homalco Culture & Wildlife Tours에서 운영하는 그리즐리 베어 관찰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배를 타고 피오르가 형성한 오포드 베이 Orford Bay로 향해하는 2시간 동안 바다에서 대왕고래도 보고, 바위섬 위에서 쉬는 바다코끼리도 봤죠. 이 과정이 곰을 보러 가기 위한 이동이 아니라 야생을

경험하는 하나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리즐리 베어의 삶

선주민 가이드의 안내로 세 곳에서 그리즐리 베어를 관찰하며 그들의 습성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코스는 하루에서 시작해서 점점 상류로 올라갔는데요. 실제로 곰들이 연어를 사냥하기 위해서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간다고 해요. 연어가 상류로 올라가니까 연어 떼의 등 뒤에서 사냥을 하는 거죠. 강바닥의 무수한 돌만큼이나 연어가 많았어요. 그리즐리 베어는 5~6마리 봤는데, 어떤 곰은 누가 봐도 잘 먹어서 강해 보이고 어떤 곰은 사냥을 잘 못했는지 마른 모습이었죠. 진짜 야생의 참모습을 그대로 느껴요.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역시 차이가 크더라고요.

나에게 캐나다의 가을이란

모든 야생이 공존하는 중만한

대자연으로 기억됩니다. 한낮에 더위가 느껴지면 물에 들어가 열기를 식힐 수 있고, 밤에는 불을 피워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딱 좋은 여행 시기였어요.

CREATOR'S TIP

야생동물 영상을 촬영할 때 4K, 120프레임으로 세팅하는 것을 추천해요. SNS에 영상을 편집해서 올릴 때 크기를 조정해도 화질이 깨지지 않거든요. 더 확대해서 보여주면 생동감도 넘치죠. 야생동물이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슬로모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짧은 찰나에 찍었지만 다양한 콘텐츠로 변주할 수 있죠. 노출이나 조리개, ISO 값 등을 그날의 날씨와 빛, 거리 등을 고려해 미리 설정해두면 빠른 피사체를 보다 민첩하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FOR TRAVELERS

그리즐리 베어 관찰 투어는 가을이 적기입니다. 겨울잠을 자기 전에 먹이 활동으로 활발한 곰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투어에 참가하면 유의 사항을 가르쳐주지만, 미리 숙지하시면 좋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예의를 차리는 것처럼 조용히 해야 해요. 당연히 쓰레기 같은 흔적은 절대 남기지 않아 됩니다.



© 캐나다관광청

오로라 감상하기

“오로라 성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노스웨스트 준주의 옐로나이프에서
오로라를 품은 ‘하다’와 ‘모리모리’의 이야기.

최소 95% 확률

하다 새벽의 여신이라 불리는 오로라를 조우하기 위해서는 3대가 덕을 쌓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실제로 볼 수 있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측 확률이 높은 곳을 찾았죠. 캐나다의 옐로나이프에서 3박을 하면 95% 확률로 오로라를 감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난생처음으로 오로라를 영접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옐로나이프로 향하게 되었죠.
모리모리 2017년부터 오로라를 촬영하기 위해서 10개국을 다녔어요. 오로라 헌팅을 하며 여러 나라와 도시를 가봤는데 개인적으로 오로라의 성지는 옐로나이프라고 생각해요. 관측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미항공우주국NASA에서도 3박을 하면 95%, 4박을 하면 98% 확률이라고 이야기해요. 위치도 오로라 오발Aurora Oval이 있는 위도 62도에 있고 주위에 산이 없어서 구름이 잘 끼지 않는 지형이에요. 게다가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광공해가 없죠. 오로라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물리적 요소도 중요하데, 옐로나이프가 최적지라고 할 수 있죠.

가을의 오로라

하다 우리에게 친숙 연휴가 있잖아요. 덕분에 옐로나이프에서 3박이나 4박을 할 수 있으니까 오로라 여행을 하기도 알맞죠. 저도 바쁜 일상 속에서 오로라 감상하는 날만을 기다리다가 보자마자 울컥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곳의 가을은 야외 활동을 하기 적당한 기온이에요. 그래서 밤에 오로라 빌리지의 티피 밖에서 오로라를 기다려도 춥지 않았어요. 오로라 빌리지에서 코코아도 꼭 마셔보세요.
모리모리 밤이 길어지는 추분에 오로라를 볼 확률이 높습니다. 관련 논문도 발표된 데다가 오로라를 전문적으로 촬영하는 분들도 9월의 추분 또는 3월의 춘분에 많이 떠나세요. 2024년 추분은 9월 22일이죠. 특히 9월은 기온이 영상권인 데다 백야도 끝나고 구름도 끼지 않는 시기라 오로라를 감상하기 좋아요. 이즈음 옐로나이프 날씨는 한국의 늦가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픈마인드

하다 밴쿠버에서 옐로나이프로 향할 때 비행기 안에서 오로라를 봤어요. 창밖으로 드러난 초록빛의 오로라는 정말 신비로웠죠. 옐로나이프에서 밴쿠버로 향할 때는 밴프 국립공원을 지나며 만년설과 노란 단풍이 공존하는 묘하게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이 나타났어요. 이런 탁 트인 풍광 덕분에 제 마음도 더욱 활짝 열렸답니다.
모리모리 옐로나이프가 오로라에 진심이라고 느꼈던 점이 사소한 것까지 안내가 잘 되어 있어요. 안전을 중시해 오로라 헌팅 시 주차 구역 등도 잘 마련되어 있었죠. 캐나다 사람들을 만나며 친절하고 개방적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캐나다의 대자연이 워낙 아름다우니까 자연스럽게 너그러운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오로라뿐 아니라 열린 마음을 지닌 이곳의 사람들과 어울리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어요.



하다 @hada.kr
여행에서 얻은 영감으로 자유롭고 감각적인 영상을 만들고 싶은 크리에이터다. 삶이라는 여정을 기록하기 위해 오늘도 카메라와 삼각대 하나 들고 여행을 떠난다.

CREATOR'S TIP

하다 어린이 함께 여행한다면, 포즈를 하나 정해서 이동할 때마다 그 자세로 영상을 찍어보세요. 나중에 이어 붙이면 재미있는 영상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즐거운 요소를 기록하면 여행을 다녀온 후에도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촬영용 렌즈로는 주로 망원렌즈와 광각렌즈 각각 하나씩 챙겨 가는 편이에요. 오로라 촬영을 위해서는 화각이 넓고 조리개 값이 높은 렌즈를 추천합니다. 야간 오로라 촬영 시 결과물에 노이즈가 끼는 게 걱정된다면, 오히려 ISO 값을 높이세요. 10800까지도 괜찮다고 합니다.
모리모리 삼각대를 빼놓을 수 없죠. 오로라는 움직이는 생물이 아니니까 별을 찍는 것과는 다르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는 노출을 2~4초 사이로 놓고 사진을 촬영해요. 이렇게 하면 오로라 모양이 살아 있는 강렬한 컷을 얻을 수 있죠. 오로라의 강약에 따라서 노출을 조절해야지 무조건 10초 이상 줄 필요는 없어요. 전문 장비가 없다면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화질은 낮지만 비교적 좋은 컷을 얻을 수 있습니다.

FOR TRAVELERS

하다 밴쿠버에서 출발하는 옐로나이프행 비행기를 타려면, 오른쪽 창가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비행기에서 오로라를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하늘 위에서 오로라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모리모리 @traeltv.kr
전 세계 10개국에서 오로라를 포착하는 사진가다. 동시에 한국의 숨겨진 풍경을 찾아다니며 직접 찍은 사진으로 여행을 떠나게 만드는 데스티네이션 마케터이기도 하다.



지금 당장 캐나다에 접속하기



© 캐나다관광청

로키 산맥 기차 여행

기차를 타고 바라보는 로키 산맥의 가을 풍광은 또 다른 감동이다. 밴쿠버에서 밴프까지 향하는 로키 마운티니어 열차에서 아름다운 선물을 받은 '서숨'의 이야기.

오직 기차에서만

캐나다의 대자연은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기차선로를 통해서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풍경이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로키 마운티니어를 탄 기차가 있었죠. 천장까지 통창으로 이루어진 돔 형태의 열차에서 로키 산맥의 아름다운 가을 풍광을 파노라마 뷰로 즐길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셰프들이 현지 재료로 만들어주는 정성스러운 코스 요리를 열차 안에서 음미하니 기분과 입이 모두 즐거웠죠. 식사뿐만 아니라 간식과 음료도 무제한으로 제공되어 입이 심심할 틈이 없었습니다.

편안한 속도

일상의 속도가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쫓기듯 바쁘게 지냈어요. 그런데 로키 마운티니어에 탄 동안에는 편안한 속도로 흘러가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밴쿠버에서 밴프까지 빠르게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1박 2일 동안 기차를 타고 여유롭게 이동하니 전혀 다른 차원의 시간을 경험한 기분이었어요. 게다가 창밖으로는 영화 같은 풍경이 펼쳐지니 절로 마음이 편안해졌죠.

열차는 친구를 살고

로키 마운티니어 열차를 타고 여행하는 동안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었어요. 같은 칸에 탄 승객들이랑 1박 2일 동안 자주 마주치게 되거든요. 스몰 토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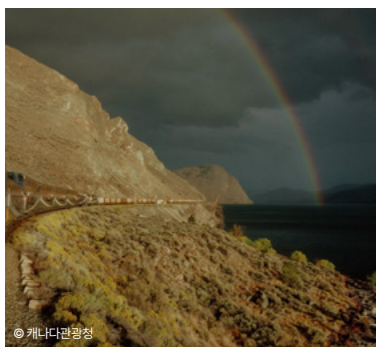
하다 보니 친해지고 서로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해서 친구가 됐어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죠. 로키 마운티니어에는 열차 칸마다 두 명의 호스트가 있어요. 주요 장소를 지날 때마다 가이드처럼 자세히 설명해주고 언제든지 요청하면 친절하게 응대해주죠. 1박 2일 동안 친밀감이 쌓여서 거의 친구처럼 생각한 것 같아요.

럭셔리 서비스

장거리 기차를 타게 되면 보통 기차 안에 있는 침대칸에서 자는 걸 상상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용한 로키 마운티니어 1박 2일 코스는 캠퍼스 Kamloops에 하룻밤 정차해요. 그리고 투어에 포함된 호텔에서 하루를 묵죠. 그래서 아주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기차에 실은 짐도 하차 시마다 옮겨주니까 두 손 가볍게 여행을 즐길 수 있어요. 캠퍼스의 호텔에 들어가니까 이미 방에 제 짐이 다 도착해 있어서 놀랐죠. 다음 날 아침에도 객실에 짐을 잘 정리해둔 채 나오면 열차로 실어줍니다. 종착지인 밴프에 도착한 뒤에도 숙소까지 백드롭 서비스를 제공해 밴프 타운을 둘러보는 데 시간을 더 쓸 수 있었어요.

나에게 캐나다의 가을이란

선물 같은 시간! 북적이는 도시를 벗어나 대자연을 여유롭게 만끽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치열하게 살아왔던 나에게 주는 선물과 다름없었죠.



© 캐나다관광청



© 캐나다관광청



© 캐나다관광청



© 캐나다관광청



지금 당장 캐나다에
접속하기



© 캐나다관광청

CREATOR'S TIP

직접 제작한 기차 여행 콘텐츠가 많은 분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특히 인물과 풍경이 함께 나오는 영상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영상을 촬영할 때, 좌석의 반대편에 삼각대를 세워 두고 창밖이 잘 보이도록 구도를 잡아요. 언제 멋진 풍경이 나타날지 모르니 그런 기미가 보일 때부터 일단 계속 찍습니다. 만약 삼각대를 두기 어렵다면, 촬영자가 대각선으로 창밖이 잘 보이도록 찍는 것도 괜찮아요. 이때 기차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음료를 곁들이면 더욱 좋습니다.

FOR TRAVELERS

기차에 비스트로 열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면 꼭 둘러보세요. 사진이나 영상 촬영에도 좋지만 기차 안에서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즐거운 미식 경험이 될 거예요.



서숨 @seosum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싶은 여행 크리에이터다. 10여 년 전 떠난 3개월간의 여행을 계기로 삶이 바뀌었다. 그 후로 휴일이면 영화관과 공연장을 찾던 평범한 의료인에서 세계를 누비는 여행가가 되었다. 여전히 더 큰 변화를 갈망하며, 여행이 스며든 인생을 살고 있다.



© 캐나다관광청

캠핑과 하이킹하기

캐나다의 대자연은 액티비티 마니아에게 활짝 열려 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 아드레날린이 솟구친 '길폴'과 '프로한량 칠대장'의 이야기.



길폴 @gilpaul_

배낭을 고수하고 불편함을 고집하는 여행가다. 빠른 길보단 구부러진 길을 좋아한다. 답답하고 느린 길이 여행의 시작이라고 믿는다. 낯선 것들과 친해지고 자신의 안으로 가져와 일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여행의 의미라 믿는다.



프로한량 칠대장 @chill_haza

여행과 아웃도어를 chill하게 표현하는 사진가다.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과 취향을 녹여내 나만의 무드가 있는 사진을 찍고 있다. 'chill'이라는 단어를 보면 프로한량 칠대장이 떠오를 수 있도록 콘텐츠로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 목표다.

© 캐나다관광청

© 캐나다관광청



© 캐나다관광청

가을 희열

길폴 흔히 캐나다를 '단풍국'이라고 하잖아요. 다채롭게 물든 단풍 속에서 즐기는 아웃도어 액티비티는 마치 '가을은 이런 거야'라고 기준을 세운 것 같았죠.

프로한량 칠대장 보통 아웃도어 액티비티라고 하면 휴양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잖아요. 거칠고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캐나다는 그런 편견이 깨지는 곳이에요. 트레킹이나 캠핑을 하고 있어도 휴양지에 온 것처럼 편안했어요. 시각은 알록달록한 단풍으로, 촉각은 따스한 햇살과 선선한 바람을 느끼며 가을을 만끽했습니다.

스퀘미시는 아웃도어의 천국

길폴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마치 천국 같은 곳이에요. 리드나 볼더링 같은 클라이밍부터 카약이나 서핑 같은 수상 레포츠까지, 산과 바다 그리고 폭포 같은 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으니까 정말 살판나죠. 저 역시 이곳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프로한량 칠대장 인생 첫 카약을 스퀘미시 강에서 탔어요. 수면에 단풍으로 물든 스퀘미시 산이 그대로 비치더라고. 그 풍경을 한참이나 바라봤습니다. 카약을 타는 도중에 멀리 보이는 산에서 암벽을 오르는 클라이머들도 봤어요. 아주 극적인 풍광이었죠. 스퀘미시에 모인 사람들은 누가 봐도 아웃도어 마니아예요. '찐' 아웃도어 바이브가 가득한 곳이지.

가리발디 호수 감각하기

프로한량 칠대장 가리발디 호수까지 올라가는 길은 차로는 진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도상으로는 1000m 높아지고 거리상으로는 10km 떨어진 거리를 백패킹으로 올라갔죠. 4~5시간 정도 하이킹하니까 해발 1800m에 있는 가리발디 호수가 나타났고 보자마자 압도당했습니다. 호수 주변에는 만년설도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가을이라 날씨는 따스했죠. 인근 캠핑 사이트가 인기가 많아서 미처 예약을 못한 탓에 1박 2일 동안 호수 근처에서 비박을 했는데, 힘든 줄도 몰랐어요. 오히려 호수와 가까이 머물러서 좋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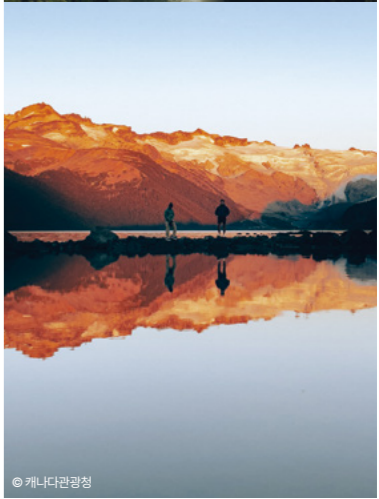
길폴 캐나다에 있는 수많은 산정호수 중에서도 규모가 큰 곳이라서 가보고 싶었어요. 백패킹하며 가리발디 호수에 도착하니 물에 몸을 담그고 싶었고, 바로 뛰어들었죠. 물이 조금 차갑다고 하더라도 꽤넘치 않고 과감하게 움직였는데, 그 안에서 성취감과 쾌감을 맛봤어요. 때로는 망설임 없이 뛰어드는 도전이 여행을 한층 풍성하게 해준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캐나다의 가을이란

길폴 다양한 색깔을 만날 수 있다 캐나다는 가을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충족해주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풍의 색깔이나 다채로운 액티비티 등으로 충만한 느낌일까요. 덕분에 이번 여행에서 풍성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프로한량 칠대장** 낭만! 덤지도 춤지도 않은 날씨에 캠핑하며 마신 따듯한 차 한 잔이 떠올라요. 빨강계 노랑계 물든 단풍을 멍하니 구경하는 것도 낭만 넘치는 순간이었습디다.



© 캐나다관광청



© 캐나다관광청



지금 당장 캐나다에 접속하기

CREATOR'S TIP

길폴 거친 환경에서 촬영하는 아웃도어 액티비티의 특성상 방수팩이나 액션캠을 꼭 챙겨 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촬영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나는 것도 필요해요. 촬영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죠. '이 순간만큼은 제대로 즐겨보겠다'라고요.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프로한량 칠대장** 야외 촬영을 할 때에는 어느 쪽으로 언제 해가 뜨고 지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구도를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로키 산맥의 설산을 그냥 찍어도 멋있지만, 석양 질 무렵, 서쪽에 있는 산이 붉게 물들거든요. 드라마틱한 컷을 얻을 수 있죠. 피사체에 대한 분석을 미리 꼼꼼히 해야 합니다.

FOR TRAVELERS

프로한량 칠대장 아웃도어 여행을 준비할 때에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어요. 캠핑을 간다면 보온을 위해 매트와 침낭은 반드시 챙기는 게 좋습니다. 트레킹을 하고 난 뒤에 땀이 식으면 체온이 떨어져 감기에 걸릴 수 있으므로 여벌 옷은 꼭 챙기세요. 그리고 물 공급을 위한 정수 필터도 좋은 선택지입니다. 캐나다가 아웃도어 액티비티가 활발한 나라라 보니 건식이 정말 다양했어요. 캠핑하며 거창한 요리를 하기보다는 이런 현지 건식을 종류별로 맛보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경치 좋은
드라이브 코스
다양한 여행 정보는
p50.



© 캐나다관광청

드라이브 즐기기

단풍이 아름다운 곳에서 맘껏 달릴 수 있는 자유. 노바스코샤 주에서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를 경험한 '나연'의 이야기.



나연 @1amny

20살부터 177개 도시를 여행하며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여행을 사랑하는 크리에이터다. 나연만의 여행 스킬과 정보를 눌러 담아 모두가 쉽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여유로운 하이웨이

긴 거리를 운전하며 여러 도시를 둘러보는 여행은 처음이었어요. 캐나다 동부의 상징적인 단풍을 운전하면서 즐길 수 있어서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니다. 유명한 단풍 명소가 아니라도 도로 좌우로 펼쳐지는 단풍의 향연은 정말 예술이었어요. 단풍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풍경과 함께 여유롭게 달리던 순간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죠.

정지의 자유

로드 트립의 매력은 멈추고 싶을 때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차나 버스로 여행을 하다 보면 정해진 시각을 맞추어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마음이 급해지기 마련인데요. 직접 운전을 하는 여행은 내가 더 보고 싶다면 머무를 수 있고, 언제든지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면 멈출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 캐나다관광청



© Tourism Nova Scotia / Photographer: Adam Hill

운전하기 좋은 곳

캐나다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운전을 매우 여유롭게 하고, 부드러워서 저 역시 그 속도에 맞추어서 천천히 운전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페리를 타고 이동할 때에도 차와 함께 다니기 좋았어요. 샬럿타운 Charlottetown에서 캐벗 트레일 Cabot Trail로 이동할 때 페리를 타고 가게 되는데, 차를 끌고 페리 안에 주차를 한 뒤에 내릴 수 있었어요. 운전을 하기에 좋은 환경이었죠.

웅장한 아름다움

캐벗 트레일에서 드라이브를 즐길 때 웅혼한 아름다움을 느껴요. 캐벗 트레일은 절벽이 많아서 웅장한 느낌이었죠. 해안가 절벽 위에 있는 곡선 도로를 따라서 운전하다 보면 캐나다의 광활한 자연이 눈에 펼쳐졌어요. 옆에는 바로 너른 바다가 있고요.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대자연의 풍경이 눈에 계속 들어오는 것도 좋았어요.

나에게 캐나다의 가을이란

캐나다에서 가을을 맞이해 봐야 비로소 진정한 가을을 경험해 봤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기에조차 단풍잎이 그려져 있을 정도로 '단풍국'이라는 별명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CREATOR'S TIP

운전을 하다 보면 찰나의 순간들을 많이 지나치기 때문에 촬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치게 돼요. 그래서 주로 고프로 같은 액션캠을 사용해요. 드라이브 중간중간 고정해두고 상시로 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에요. 특히 역동적인 장면을 많이 담을 수 있어요. 그리고 드라이브 풍경과 잘 어울리는 감각적인 음악을 입히면 나만의 드라이브 숏폼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FOR TRAVELERS

캐벗 트레일에서 시계 방향으로 운전하는 것을 추천해요. 이렇게 하면 안쪽 도로를 타게 되는데, 절벽 바로 옆이 아니라서 조금 더 안전하게 드라이브할 수 있어요. 전망은 모두 비슷해서 운전 실력에 따라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때문에 도로에 가로등이 적은 편이라서 밤에 운전할 경우 주의하셔야 해요.



지금 당장 캐나다에
접속하기



© 캐나다관광청

건강한 균형을 이루다

온전히 평안한 삶의 경험. 로키 산맥이 펼쳐진 알버타 주의 대자연 속에서 이를 체득한 '노후니'의 이야기.



노후니 @no_hooni

시와 미, 낭만, 사랑이 삶의 목적이라는 말에 충실하려는 여행 크리에이터다. 기록 없이는 아무리 소중한 기억도 휘발된다는 생각에 대부분의 여행을 영상으로 남긴다. 낭만이 가치 있다 믿는 이들에게 여행 기록을 공유하며 위로를 주고받는다.



© 캐나다관광청



© 여행메시지다



© 캐나다관광청

안녕한 여정

비디오그래퍼라는 직업 특성상 온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편집하고, 솜품을 포함한 수많은 온라인 콘텐츠를 접하다 보니 어느 순간 중독이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일에 몰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고민이 많은 시기였죠. 뇌 과학 전문가들이 전하는 해법 중 하나는 쾌락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요소를 차단하고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인데, 때마침 떠난 캐나다 가을 여행이 그 자체였습니다. 장엄한 로키 산맥이 뻗어 있는 알버타 주에서 하이킹을 하고 자전거를 타면서 즐겁게 활동할 수 있었어요. 건강한 현지 요리를 먹고 온천욕을 하는 등 편히 쉬면서 마음이 안온해지기도 했죠. 어느 순간 틈만 나면 들여다보던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평소 여러 생각으로 복잡했던 머릿속이 한결 비워진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캐나다인 로키의 품 안에서: 하이킹

낙엽침엽수인 라치larch는 가을이면 노랗게 물들어요. 밴프 국립공원 라치 밸리Larch Valley 트레일의 황금빛 풍경이 한 번 각인되면, 10월의 캐나다가 늘 그리울 겁니다. 이 트레일은 어려운 코스는 아니지만, 생각보다 소요 시간이 길고 경사도 꽤 있는 편이에요. 라치 밸리의 풍경을 마음껏 담고 싶다면 넉넉히 4~5시간 정도 잡는 것이 좋습니다. 금빛 라치가 가득한 능선과 웅장한 로키 산맥이 어우러진 풍광 속에서 그동안 지쳤던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위로받았어요. 하이킹 후에는 모레인 호수Morain Lake에도 꼭 들르셔야 합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봤던 호수 중에 멀린 호수Maligne Lake와 1, 2위를 다툴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

호수는 바로 앞에서 보면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지 않아요. 모레인 호수 록파일 트레일Moraine Lake Rockpile Trail을 따라 15분 정도 오르면 황홀할 정도로 푸른 호수가 우리를 맞이합니다.

캐나다인 로키의 품 안에서: 라이딩

여러 라이딩 코스가 있는데, 저는 밴프 타운에서 출발해 버밀리온 호수 로드Vermilion Lakes Road를 달렸어요. 왕복 약 14km로 2~3시간 정도 걸리는데, 크게 힘들이지 않고 로키 산맥의 좋은 공기를 다 마신 기분이었죠. 고운 단풍 빛깔도 기억에 남습니다.

또 다른 휴식

밴프 국립공원에 있는 다수의 온천을 강력 추천해요. 모두 지열로 인한 천연 온천이고 다양한 광물이 포함되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유명한 밴프 어퍼 핫 스프링스Banff Upper Hot Springs도 탁월한 선택이지만, 저는 숙소인 히든 리지 리조트Hidden Ridge Resort에서 온천욕을 즐겼어요. 투숙객만 이용 가능한 곳이라 사람이 많지 않아 조용히 쉴 수 있었죠. 야외 온천 바로 앞에 펼쳐진 캐나다인 로키의 환상적인 풍광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캐나다의 가을이란

어둠이 반영된 호수는 어둡고 빛을 반사하는 호수는 밝은 것처럼, 사람은 호수와 같아서 몸과 마음이 좋은 것을 쌓아야 내가 빛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여행.

CREATOR'S TIP

알버타 주에는 호수에 반영된 산과 하늘을 찍을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일출 시런들 포어베이Rundle Forebay에 방문하면 붉게 빛나는 세상을 담을 수 있어요. 반영을 담을 때는 자세를 호수와 최대한 가깝게 낮추고 카메라의 수직을 잘 맞춰 찍으세요. 저는 이번 여정에서 망원렌즈를 가장 많이 사용했어요. 배경 속에 있는 인물을 찍을 경우, 배경이 압축되어 더욱 크게 나오므로 영화 같은 분위기를 담을 수 있습니다.

FOR TRAVELERS

라치 밸리 트레일의 출발점으로 가려면 셔틀버스를 타야 합니다. 인기가 많은 노선이기 때문에 미리 예약해야 해요. 미처 예약을 하지 못했다면, 이를 전에 티켓이 한 번 더 열리므로 이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캐나다에 접속하기

미식
다양한 여행 정보는 p62.



승아 @seung_asarabia
좋아하는 순간을 글로, 사진으로, 영상으로 기록하는 여행 크리에이터다. '여행에미치다' 영상 PD를 거쳐 1인 미디어 '아사라비아픽처스'를 설립해 한국관광공사의 영상 제작 등 국내외 여행의 매력을 알리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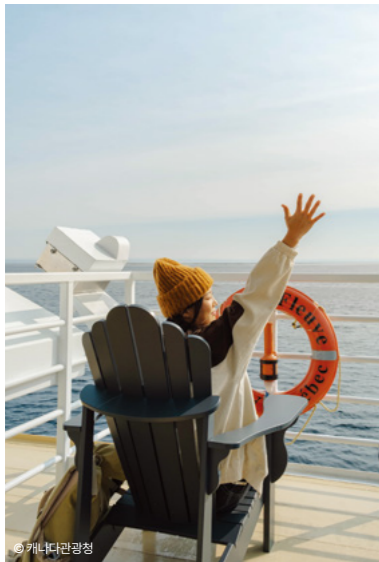
© 캐나다관광청



© 캐나다관광청

캐나다 음미하기

광활한 대지와 바다를 버무린 캐나다의 요리에는 풍성한 문화도 반영되어 있다. 캐나다 동부에서 '승아'가 음미한 음식 이야기.



© 캐나다관광청



© 캐나다관광청

문화를 맛보다

음식에는 한 국가의 문화가 담겨 있습니다. 맛있는 요리를 먹으며 그 나라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연을 대변하는 현지 식재료뿐 아니라 주문하는 방법과 웨이터를 부르는 방식, 식사 순서 그리고 계산을 하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캐나다의 문화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주와 노바스코샤 주 그리고 뉴브런즈윅 주 등지를 여행하며 그랬었거든요.

인상적인 캐나다 음식

이름만 들으면 러시아 대통령이 생각나는 푸틴(poutine)이요. 물론 러시아와는 전혀 관련이 없죠. 푸틴은 감자튀김과 치즈 커드, 그레이비소스를 버무려 먹는 음식으로 프랑스어로 '혼합'을 뜻한다고 해요. 푸틴의 원조인 퀘벡 주에서 처음 푸틴을 맛보았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맛이 없을 수 없는 재료를 한데 모았으니 그럴 수밖에요. 캐나다 여행 중에 여러 식당에서 푸틴을 주문했는데, 맛이 없었던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단풍 풍미

캐나다 선주민들이 단풍나무 수액을 천연 감미료로 사용하면서 메이플 시럽의 오랜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들어요. 특히 메이플 폭립의 풍미가 선연하게 떠올라요. 달콤한 메이플을 만난 폭립은 육질이 아주 부드럽고 감칠맛이 가득했죠. 퀘벡 시티에 고풍 당그(Cochon Dingue)라는 식당이 있는데, 직역하면 '미친 돼지'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 그대로 메이플 폭립의 맛을 상상하면 됩니다.

대서양의 축복

대서양을 끼고 있는 캐나다 동부 연안은 신선한 해산물이 가득해요. 특히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주를 방문한다면 랍스터를 꼭 먹어보세요. 싱싱한 것은 물론이고 살이 꽉 차 있는데, 가격도 합리적이죠. 더불어 이 지역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오이스터 바에 방문해 신선한 굴과 각종 해산물을 플래터로 즐겨보세요.

나에게 캐나다의 가을이란

내 삶의 모든 가을을 캐나다에서 보내고 싶어요! 기회가 된다면 가을에 다시 캐나다로 떠나고자 합니다.

1 CREATOR'S TIP

단풍 맛집으로 소문난 캐나다 동부에서 단풍 사진을 잘 찍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아름다운 건축물(피사체)을 가운데 두고 일쪽달록 물든 단풍을 좌우 상단에 살짝 걸고 찍어보세요! 맛있는 건물 사진이 어느새 가을 냄새 물씬 풍기는 작품으로 찍혀 있을 거예요! 단풍 촬영 시 조리개(F) 값을 너무 내리거나 조금 높여준 상태에서 촬영하면 건축물(피사체)과의 조화가 더욱 배가됩니다.

2 FOR TRAVELERS

먹는 것이 여행하는 즐거움의 8할을 차지하는 저로서 새로운 여행지를 갈 때마다 시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택시 기사 또는 숙소 직원에게 그들의 맛집을 추천받는 거죠. 특히 택시 기사님 맛집은 실패할 확률이 적어요. 여행하며 쉽게 만날 수 있는 이들이 추천해주는 맛집이나 로컬 마켓을 꼭 들리는 편입니다.



© 캐나다관광청



지금 당장 캐나다에 접속하기

축제
다양한 여행 정보는
p86

축제에 동참하기

캐나다의 가을은 흥미로운 축제로 즐거움이 더욱 고조된다. EBS (세계테마기행)을 통해 캐나다 동부의 가을에 푹 빠진 권소아 아나운서의 이야기.

가을 맛 축제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는 캐나다에서 가장 작은 주이자 음식의 섬이라고 불려요. 이곳에서 10월에 PEI 가을 맛 축제 PEI Fall Flavours Festival가 열리고 있었죠. 음식을 좋아하는 저에게 축제 이름부터 마음에 쏙 들었어요.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의 다양한 지역에서 온 굴과 바비큐, 현지 맥주 등을 맛볼 수 있죠. 특히 굴은 제가 살면서 먹어본 것 중 가히 최고였어요. 신기한 건 지역별로 특징이 조금씩 달라서 굴 전문가도 아닌 제가 다양한 굴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최고의 굴'을 뽑는 대회에서 제가 투표한 콜빌 베이(Colville Bay) 팀이 우승을 하기도 했죠.

축제의 동력은 사람이다

맛있는 음식이나 술, 음악 등도 물론 좋지만 축제의 모미는 뭐니 뭐니 해도 역시 사람들이 아닐까요? 축제에 오는 이들은 평소보다 오픈 마인드가 되니까요. 여기저기 합석하면서 저를 반겨주던 사람들이 떠올라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농담하며 활짝 웃고 떠들썩하게 즐겼던 축제의 밤이었죠. 축제 특유의 흥겨운 분위기는 단지 자본이나 규모가 아니라 사람들의 에너지가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일심동체를 이룬 이들이 한데 모여 축제에 활력을 불어넣죠.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의 주도인 샬럿타운에서는 골목마다 각양각색의

© 권소아

허수아비를 만날 수 있었어요. 수확의 계절을 기념하는 허수아비 축제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과 예술가들이 장식한 거라고 해요.

진심 어린 호박

온타리오 주 북부에 있는 작은 마을 햄프턴(Hampton)의 호박 농장도 기억에 남아요. 4대째 운영하는 녹스 펠킨 팜(Knox's Pumpkin Farm)을 방문했는데, 이날은 가족 중 아버지와 딸을 만났어요. 다양한 호박 종류를 알게 되었고, 수만 개의 호박이 자라는 밭을 본 다음 호박 파이와 호박 카레를 함께 먹기도 했죠. 그 자체만으로 즐거운 경험이었지만, 무엇보다 호박 농사에 대한 가족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호박 농장과 함께 성장했고, 온 가족 삶의 일부라고 해요. "호박은 우리 가족의 역사이고 캐나다의 유산을 이어가는 것이다"라는 말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몇 시간을 함께 보낸 것이 전부였는데, 그 짧은 시간에 정이 든 것도 놀라웠죠. 농장 주인의 딸 엘리자베스가 선물로 준 호박 인형을 캐나다 여행 내내 침대에 두고 가방에 가지고 다녔어요.

나에게 캐나다의 가을이란

자연이 주는 선물이다! 3주 동안 캐나다 동부를 여행하면서 산과 숲, 강과 호수, 야생동물 그리고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는 단풍 풍경이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값진 선물처럼 느껴졌어요.



지금 당장 캐나다에
접속하기



© Destination Ontario

CREATOR'S TIP

평소 낯선 사람에게 쉽게 말을 걸지 않지만, 여행에서라면 용기를 내보는 게 어떨까요. 저는 아나운서이자 방송기자이기도 했기에 길거리 인터뷰 경험이 많아요. 특히 캐나다에서 인사를 건넬 때 피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현지인과 무슨 대화를 나눠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여행 중인 장소에 대해 물어보거나 어딜 가면 좋을지 추천을 받는 것도 좋아요. 요즘 한국 문화가 워낙 유명해서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반가워하는 사람들도 꽤 많을 거예요. 저는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의 축제에서 한국어로 '건배'를 외치는 현지인을 우연히 만나기도 했어요.

FOR TRAVELERS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주의 그린 게이블스(Green Gables)에는 소설 <빨간 머리 앤>의 앤이 살고 있어요. 앤의 캐릭터를 재연한 배우가 저를 맞이했는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앤이 사뿐사뿐 달려오는 순간부터 저는 어린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 들었죠. 빨간 머리 앤이 정말이지 소설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거든요. 함께 산책하고 앤의 집을 구경하고 여러 놀이를 하면서 동심이 살아났어요. 아직도 그녀의 반짝거리는 눈동자와 풍성한 속눈썹, 빨간 양갈래 머리 그리고 제 손을 덥석 잡고 뛰어다니던 앤이 눈앞에 선해요. 이 건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앤과의 촬영 후 기념품을 사러 갔는데, 옷을 갈아입은 앤이 안내 데스크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PD님과 촬영 감독님이 "저기 앤 아니야?"라고 말하는데 저는 끝까지 믿고 싶지 않았죠. 제 동심이 파괴될까 봐요.



권소아 @soa.kwon

독일에서 태어나고 성장해 독일어는 물론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에 능통한 다국어 아나운서다. 아리랑TV 기자 출신으로 기상캐스터, 국제행사 전문 MC, 영어 및 독일어 강사로 활동하는 N잡러이기도 하다. 지난 가을 EBS (세계테마기행) 캐나다 동부 편에 큐레이터로 출연했다.



© 권소아



© 권소아

문화를 존중하다

캐나다 역사의 뿌리를 찾아서. 유서 깊은 선주민 문화를 포용한
<내셔널지오그래픽 트래블러 코리아> 김민주 에디터의 이야기.

캐나다의 기원

캐나다의 역사가 짧다고 생각한다면, 조금 편협한 시각일 수 있어요. 유럽인이 이주하기 전부터 이 땅에서 살아온 선주민들이 존재하니까요. 그 역사는 선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캐나다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인 만큼 전역에 다양한 선주민의 후손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고유한 역사와 문화, 언어 등을 지켜가고 있죠. '캐나다'라는 국가 이름 역시 '마을' 또는 '정착지'를 뜻하는 휴런-이로쿼이Huron-Iroquois 선주민의 단어인 'Kanata'에서 유래되었다고 해요.

선주민의 지혜

오로라 취재차 방문한 노스웨스트 준주의 옐로나이프가 떠올라요. 선주민의 지혜가 담겨 있는 오로라 빌리지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선주민 전통 방식으로 지은 티피에서 따뜻하게 머물다가 오로라가 나타나면 밖으로 나가 감상하면 되니까요. 같이 갔던 영상 감독님 말로는 다른 나라 오로라 투어의 경우, 허허벌판에서 추위에 떨며 대기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곳에서 데네Dene 선주민도 만났죠. 그가 직접 만든 작은 북과 비슷한 전통 악기로 심신을 초롱초롱 일깨워주는 치유 의식을 행하기도 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사진가 유운상 실장님은 눈이 맑아졌다고 이야기했어요. 선수 시절 안 받아본 치료가 없다는 김연아 선수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다고 했죠.

진실한 교감

데네 선주민에게 오로라가 언제 모습을 드러낼지 물으니 유머를 곁들이면서 기다리는 자세를 알려주었어요. 수건롤리기와 비슷한 전통 놀이도 즐겼죠. 열심히 참여한 끝에 제가 1등을 거머쥐며 깜짝선물도 받았답니다. 그중 하나는 하늘에서 춤추는 오로라가 호수에도 똑같이 반영되어 마치 데칼코마니

작품 같은 사진 업서였어요. 이 업서를 꺼내 볼 때마다 생각하죠. "가을 오로라를 보러 다시 캐나다에 가야겠다!" 이날 만난 선주민뿐 아니라 함께했던 이들과의 추억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셔츠 데이

캐나다에서 9월 30일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국경일National Day for Truth and Reconciliation이예요. 오렌지 셔츠 데이라고도 불리죠. 1800년대 중반부터 1900년대 중반 무렵까지 선주민 아이들은 강제로 기숙학교에 다녀야 했대요. 단일한 캐나다 사회에 동화한다는 명목으로 선주민 어린이들을 부모와 분리해 자신의 문화로부터 단절시킨 것이죠. 고의적인 열악한 환경과 학대뿐 아니라 전염병까지 창궐해 많은 희생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반성과 화해를 표하며 9월 30일에 주황색 셔츠를 입는 것이죠. 왜 주황색 셔츠일까 궁금했는데, 기숙 학교에 입학한 첫날 할머니가 사준 주황색 셔츠를 뺏기고 이후 다시 돌려받지 못한 선주민의 실화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요. 저는 선주민이 구슬공예로 만든 주황색 셔츠 모양의 핀을 착용했어요. 이 핀은 선주민 예술가를 지원하는 사스카추완 주의 와누스케윈 문화유산 공원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판매 수익의 전액이 기숙학교 생존자를 위해 쓰인다고 합니다.

나에게 캐나다의 가을이란

살아 있는 문화! 이론적으로 배운 문화의 표면성과 상대성을 몸소 깨달은 여정이었어요. 선주민과 교류하며 우리 문화와 비슷한 점이 있다고 느끼는 동시에 이들과의 고유한 특수성도 실감했으니까요. 전통이 과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주민 문화에 갖는 다양성도 이해하게 되었죠.



© Destination BC/Callum Snape



© Colin Fie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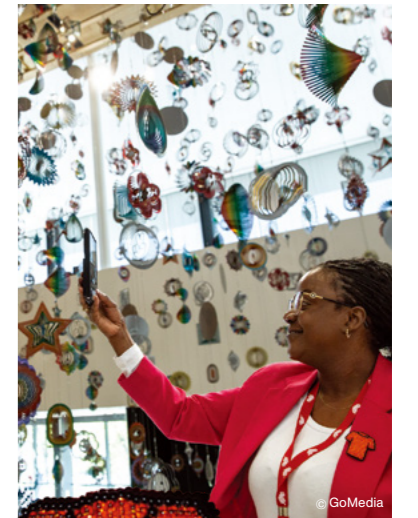
© GoMedia

CREATOR'S TIP

와누스케윈 문화유산 공원의 전통 공연에 함께한 세 살배기 선주민 아기가 굉장히 귀여웠어요. 따로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혹시나 실례가 아닐지 약간 고민되었죠. 그때 캐나다 현지인이 사진을 촬영해도 괜찮을지 물으며 아주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더라고요. 선주민에게 어떤 요청을 해야 한다면, 최대한 정중한 표현을 구리해보세요. 함부로 사진을 찍지 않는 건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지만요, 선주민의 예술작품 등은 종종 촬영하지 말라는 안내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FOR TRAVELERS

선주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어요. 지난가를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벨라콜라의 트위즈뮤어 파크 로지Tweedsmuir Park Lodge에 그리즐리 베어를 관찰하러 갔지만, 선주민 가이드 투어도 신청할 수 있었죠. 이렇게 선주민이 운영하는 투어는 이익이 그들에게 돌아가는 지속 가능한 여행으로 정의됩니다. 다음 선주민 세대가 그 문화를 이어가는 데 우리 역시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는 것이죠. 종종 선주민 공동체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대부분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지만, 미리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죠.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정부 웹사이트는 각 선주민 공동체의 정확한 발음을 표기하는 안내서를 제공하므로 참고하면 좋습니다. 아주 작은 노력이지만, 선주민에게 존중을 표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 GoMedia



지금 당장 캐나다에 접속하기



김민주

<내셔널지오그래픽 트래블러 코리아>의 에디터다. 여정 속에서 대자연에 마주하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각각각색 사람들을 만나며 삶의 세계관을 무한히 넓혀가는 걸 좋아한다.

캐나다의 가을로 들어가는 문

1

단풍의 절정

붉은 단풍잎은 캐나다의 국기에도 그려져 있다. 캐나다를 상징하는 단풍나무뿐 아니라 다양한 낙엽목이 가을을 낭만으로 물들인다.

AB 황금빛 로키 산맥

캐나다인 로키에서 찬란한 황금빛의 라치를 마주할 수 있는 시기는 9월 중순에서 10월 초 사이. 하이킹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알버타 주의 가을을 만끽한다.

라치 벨리

모레인 호수로 향해 라치 벨리 트레일을 탐험하자. 라치 벨리는 밴프 국립공원에서 인기 있는 하이킹 코스이므로 이른 아침에 출발하는 것이 좋다. 약 4.3km를 걸으며 라치 벨리의 장관을 감상할 수 있다. 이후 센티넬 패스 Sentinel Pass까지 다소 난이도 있는 2.5km의 하이킹을 이어갈 수 있다.

테일러 호수

양복 16km로 장거리지만 어렵지 않은 테일러 호수 Taylor Lake 트레일. 산봉우리로 둘러싸인 투명한 호수에 반영된 황금빛 라치를 감상할 수 있다. 아직 힘이 남아 있다면, 파노라마 리지 Panorama Ridge까지 연장된 길을 따라 더 많은 라치를 찾아보자.

아레투스 사르크

아레투스 사르크 Arethusa Cirque 하이킹에서 라치를 발견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지만 그렇다고 멈추면 안 된다. 계속 건다 보면 스톰 산 Storm Mountain, 아레투스 산 Mount Arethusa, 리틀 아레투스 피크 Little Arethusa Peak 등으로 둘러싸인 낙엽송 가득한 그림 같은 초원이 나타나기 때문. 수목 경계선 위로 이동하는 3.2km의 순환 트레일을 따라가면 라치를 더 잘 볼 수 있다.

로레트 산 호수

로레트 산 호수 Mt. Lorette Ponds는 여유로운 오후를 보내기 좋은 곳이다. 40번 고속도로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무지개송이가 서식하는 호수 주변으로 멋진 트레일이 펼쳐진다. 소풍할 수 있는 구역도 충분하다.

● 밴프와 레이크 루이스 인근 가을 여행법

황금빛으로 물드는 라치와 붉은색과 황금색으로 변하는 사시나무가 밴프와 레이크 루이스의 가을 색을 정의한다. 이곳에서는 보통 9월의 마지막 2주 동안 최고의 단풍을 볼 수 있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날씨에 따라 변동이 따른다. 밴프 국립공원에서 가을을 제대로 경험하려면, 최소 2박 이상 시간을 보내도록. 10월 초까지 운행되는 레이크 루이스 관광 곤돌라 Lake Louise Sightseeing Gondola에 탑승하면 고산지대까지 편안하게 올라가 라치 세계에 빠져들 수 있다. 그레이트 디바이드 네이처 인터프리테이션 Great Divide Nature Interpretation, 밴프 하이킹 컴퍼니, 화이트 마운틴 어드벤처스 등에서 단풍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하이킹 가이드 투어를 운영한다. 토비 크릭 어드벤처스는 파라다이스 베이스 Paradise Basin의 라치 사이클 누비는 ATV 투어를 제공한다. 로드 트립을 즐기고 싶다면, 캐슬 정크션 Castle Junction에서 레이크 루이스까지 길을 따라 사시나무가 펼쳐지는 보우 밸리 파크웨이 Bow Valley Parkway를 달려보자. 핸드마크인 모란츠 커브 Morant's Curve에 들러 인근 산을 힐싱고 있는 단풍의 풍광도 놓치지 말자!



© shutterstock

ON 다채로운 주립공원

300개가 넘는 온타리오 주의 주립공원 중에서 가을의 색조가 돋보이는 곳.

북부 미키소 주립공원

이글 호수Eagle Lake의 서쪽에 위치한 미키소 주립공원Mikisew Provincial Park은 습지와 연못, 아름다운 단풍나무 숲을 통과하는 4개의 순환 트레일이 자리한다. 숲이 우거진 두 곳의 자동차 캠핑장은 모두 전기 시설을 갖추었으며, 이글 호수 내로우스 컨트리 스토어Eagle Lake Narrows Country Store에서 카누와 카약 대여뿐 아니라 식료품과 따뜻한 피자 등을 구할 수 있다.

사무엘 드 샹플랭 주립공원

마타와 강Mattawa River 양쪽을 따라 뻗어 있는 사무엘 드 샹플랭 주립공원Samuel de Champlain Provincial Park은 400년 전 선주민 가이드가 프랑스 탐험가 사무엘 드 샹플랭을 이끌었던 경로에 자리한다. 4개의 주요 트레일에서 무어 호수Moore Lake와 가을 단풍으로 둘러싸인 마타와 강의 풍경이 펼쳐진다.

북동부 프렌치강 주립공원

캐나다 최초의 문화유산 강으로 지정된 프렌치 강은 100km 이상 흘러간다. 프렌치강 주립공원French River Provincial Park의 급류 구간에서 패들링 등도 즐길 수 있는데, 50년 동안 운영해온 하틀리 베이 마리나Hartley Bay Marina에서 장비 대여가 가능하다. 또는 방문자센터에서 출발해 프렌치강 협곡을 따라 4km의 리콜렉트 폭포 트레일Recollect Fall Trail을 걸으며 멋진 풍경을 감상하자.

레스틀 주립공원

남쪽으로는 레스틀 호수, 북쪽으로는 스토미 호수에 둘러싸인 레스틀 주립공원Restoule Provincial Park은 파이어 타워 트레일Fire Tower Trail을 비롯해 다양한 난이도의 트레일이 뿔어 있다. 차박을 위한 캠핑장뿐 아니라 오지 사이트도 마련되어 있으며, 카누와 카약을 타며 가을 패들링을 즐기기도 좋다.

남서부 셀커크 주립공원

셀커크 주립공원Selkirk Provincial Park은 가을 당일 여행을 즐기기에 완벽한 장소다. 습지를 가로지르는 완만한 1.5km의 월러스 워크 트레일Wheeler's Walk Trail을 따라가며 가을빛이 가득한 숲을 만끽하자. 또는 스프링 크릭Spring Creek에서 패들링을 즐겨도 좋다. 4개의 차박 캠핑장이 자리한다.

론도 주립공원

론도 주립공원Rondeau Provincial Park에는 캐나다 최대 규모의 캐롤리니언 숲Carolinian Forest이 있다. 7개의 트레일은 낙엽수림과 습지, 호수가 어우러진 30km가 넘는 하이킹 코스. 멋진 가을 단풍을 감상하다가 우연히 야생동물을 마주할지도 모른다.

남동부 찰스턴 호수 주립공원

캐나다인 쉴드Canadian Shield(고원지대)의 특징을 지닌 찰스턴 호수 주립공원Charleston Lake Provincial Park은 가을에 유독 아름답다. 특히 퀴디티 트레일Quiddity Trail 끝에 있는 경치 좋은 전망대를 놓치지 말자. 숙련된 하이커라면 블루 마운틴Blue Mountain 정상에서 풍광을 바라봐도 좋다.

사일런트 호수 주립공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일런트 호수 주립공원Silent Lake Provincial Park은 가을 패들링과 하이킹을 즐기기에 고요하고 평화롭다. 비교적 쉬운 트레일은 단풍나무 등이 혼재된 숲을 통과하며 근사한 풍경의 전망대가 자리한다. 가을에는 카와사 어드벤처 렌털스Kawartha Adventure Rentals에서 카누 등 필요한 장비를 빌릴 수 있다.



가을의 한가운데

수목의 색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퀘벡 주 최고의 장소 10.

라자크 카르티에 국립공원

100km 넘는 하이킹 코스 라자크 카르티에 국립공원Parc National De La Jacques-Cartier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벗어낸다. 덕분에 하이커와 사진가가 많이 모여든다.

마레 뒤 노르

탐조가들이 즐겨 찾는 마레 뒤 노르Marais Du Nord. 8km의 트레일이 특출난 자연을 구불구불 가로지르며 160종에 이르는 조류와 조우할 수 있도록 해준다.

몽생땅

몽생땅Mont-Sainte-Anne의 산악자전거와 하이킹 코스는 스포츠 마니아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체어리프트를 타고 올라 세인트로렌스 강의 장엄한 풍경을 감상하고 걸어서 내려오는 것도 가능하다.

생명 협곡

장엄한 생명 협곡Canyon Sainte-Anne은 3개의 현수교에서 가장 잘 보인다. 그중 하나는 협곡 60m 위에 설치되어 있는 퀘벡에서 가장 높은 현수교다. 기억에 남을 만한 가을 풍광일 것이다.

카프 투르망트 야생동물보호구역

탐조가라면 캐나다의 주요 조류 관찰 장소인 카프 투르망트 야생동물보호구역Cap Tourmente National Wildlife Area을 놓칠 수 없을 것이다. 가을에 이동하는 수천 마리의 흰기러기 떼가 가을의 색조와 어우러진다.

센티에 데 샤를부아

센티에 데 샤를부아Sentier des Caps de Charlevoix의 다양한 트레일을 하이킹하며 세인트로렌스 강의 파노라마를 감상할 수 있다. 곳에서 V 모양을 그리며 날아가는 흰기러기 떼의 이동도 아름답다.

르 마시프 드 샤를부아

르 마시프 드 샤를부아Le Massif de Charlevoix는 스키 리조트로 알려졌지만, 멋진 전망을 위해 굳이 겨울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가을의 색조도 충분히 아름답기 때문. 하이킹이나 트레일 러닝, 산악자전거 등을 즐길 수 있다.

발레 브라 뒤 노르

발레 브라 뒤 노르Vallée Bras-du-Nord의 아름다운 색조를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하이킹, 카약, 카누, 산악자전거, 급류 타기 등 이곳에서는 모든 활동이 흥미진진하다.

포르뇌프 지역공원

암석 지형이 독특한 포르뇌프 지역공원Portneuf Regional Park은 클라이머의 도전 정신을 자극하는 암벽도 자리한다. 70km가 넘는 하이킹 코스가 있으며, 수력발전소 부지를 재생한 트레일에서는 수압관의 흔적을 따라가며 탐험한다.

도심 공원

굳이 멀리 떠날 필요 없이 퀘벡 시티에는 아브라함 평원과 부아 드 쿨롱주 공원Parc du Bois-de-Coulonge, 도멘 드 메제레Domaine de Maizerets 등 다양한 공원이 있으므로 선택은 여행자의 몫이다.



© Snape, Callum

NT 이른 가을

북부에 위치한 노스웨스트 준주는 단풍이 일찍 찾아온다.

8월 말과 9월에는 노스웨스트 준주 전역의 풍경이 선명한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으로 변한다. 노스 슬레이브North Slave 지역의 배런랜즈Barrenlands는 사진으로 가을을 포착하기 좋은 곳이다. 툰드라를 덮은 붉은 지의류가 단풍의 절경 못지않기 때문. 가을은 아름다운 풍경뿐 아니라 시원한 날씨로 인해 벌레 수가 적어 하이킹하기 좋다. 엘로나이프의 잉그레이엄 트레일Ingraham Trail을 걸으며 카메론 폭포Cameron Falls 등을 탐험할 수 있다. 얼음낚시는 노스웨스트 준주의 오랜 전통이지만, 가을은 배를 타거나 물가에서 낚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깨끗한 물에서 서식하는 엄청난 크기의 물고기가 낚시 열정을 자극한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고, 이곳에는 지속 가능한 수렵과 채집을 하는 전통적인 관행이 이어진다. 선주민에게 이러한 풍습을 배우며 충만한 추억을 쌓아보자. 겨울의 추위가 시작되기 전, 오로라를 감상하기 좋다.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작고 소박한 야생 로지부터 모든 편의 시설을 갖춘 럭셔리한 올인클루시브 오로라 로지까지, 아늑하게 지내며 가을에 몰입할 수 있다. 순록 스투와 가문비나무 차 등 가을에 어울리는 음식도 곁들인다. 이곳의 가을이 독특한 이유 중 하나는 첫눈이 아닐까. 일부 북부 지역에서는 산봉우리에 흩날리는 가을의 첫눈을 '터미네이션 더스트termination dust'라고 부른다.



© Steve Freake

YT 울긋불긋

유콘 준주의 가을은 8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변화무쌍한 색으로 가득 찬다.

클루아니 국립공원Kluane National Park에는 고산지대를 오르며 단풍을 감상할 수 있는 15km 길이의 오리올 트레일Auriol Trail이 있다. 카크로스Carcross의 카리부 산Caribou Mountain은 에메랄드빛 호수와 노란색과 주황색으로 변신 중인 고산 능선이 펼쳐진다. 하이킹을 하다 배가 고프면 가을의 열매 따기 활동에 나서도 좋다. 블루베리는 강과 개울 등을 따라서, 노던블랙커런트는 습한 가문비나무 숲에서 자생한다. 베어베리는 이끼가 많은 축축한 땅에서 자라며, 가을의 붉은 열매와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변하는 잎으로 식별할 수 있다. 유콘 준주에서 잘 자라는 하스캅베리는 화이트호스바로 남쪽 타키니 강 계곡에 자리한 유콘 베리 농장에서 채집할 수 있다. 낮에 하이킹과 열매 따기 활동을 했다면 밤에는 오로라를 감상할 차례. 8월 말부터 밤이 깊어지면 새벽까지 오로라가 나타난다. 가을은 유콘 호수의 얼지 않은 수면에 반사되는 오로라까지 볼 수 있는 유일한 계절. 황금빛 사시나무 숲을 둘러싼 오로라는 더욱 아름답게 느껴진다. 오로라 예보는 My Aurora Forecast 앱이나 auroraforecas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이트호스에서 오로라를 감상하기 좋은 곳은 채드번 레이크 로드Chadburn Lake Road를 따라 마을 남쪽으로 이동하거나 피시 레이크 로드Fish Lake Road를 따라 북쪽으로 운전하는 것이다.



© shutterstock

CA 가까운 단풍놀이 접근성이 좋은 캐나다 전역의 단풍 명소.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버의 가장자리

자전거를 빌려 스탠리 공원Stanley Park을 지나 스페니시 बैं크스 공원Spanish Banks Park까지 28km 길이의 시사이드 그린웨이Seaside Greenway를 탐험해보자. 가을의 선명한 색깔이 펼쳐진다. 또는 스탠리 공원 가이드 투어에 참여해 온대 우림의 생물 다양성, 이 지역을 고향이라 부르는 선주민 문화 그리고 공원의 125년 역사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알버타주, 캘거리의 고층 건물 사이

도시의 황금빛 단풍 속에서 휴식을 취한다. 보우 강Bow River을 거닐거나 카페에서 호박 스파이스 라테를 주문해보자.

온타리오주, 알곤퀸 국립공원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국립공원인 알곤퀸

국립공원은 24종의 낙엽수가 자생하며 다채로운 색조를 뽐낸다. 변화무쌍한 숲 사이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듯한 야생동물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토론토에서 차로 약 3시간 소요된다.

퀘벡주, 몽트랑블랑 국립공원

몬트리올에서 차로 약 1시간 30분이면 닿는 몽트랑블랑 국립공원. 이곳의 붉은 색깔은 단풍나무가 자라는 토양과 수액의 농도에 따라 결정되어 저마다 독특하다. 상쾌한 아침은 호수에 반영된 단풍을 감상하기에 완벽한 시간. 파노라마의 곤돌라를 타면 로렌시안 산맥Laurentian Mountains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올라 탁 트인 가을 전망을 감상할 수 있다.

뉴펀들랜드 앤 래브라도주, 세인트 존스의 해안 색조

해안에 머물면서 바다의 파란색에 더해 노란 이끼 사이로 단풍이 붉게 물드는 풍경을 바라볼 수 있다. 북미에서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300km 이상 이어지는 이스트 코스트 트레일East Coast Trail도 자리한다.

BC 찬란한 황금빛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라치는 9월 중순이나 하순에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해 첫눈이 내릴 때까지 이어진다.

킴벌리 자연공원

킴벌리 자연공원 소사이어티Kimberley Nature Park Society가 가이드와 함께하는 낙엽송 관찰 하이킹을 운영한다. 4km나 10km 등 트레일 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킴벌리 자연공원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kimberleynaturepark.ca

크랜브룩

크랜브룩 커뮤니티 포레스트Cranbrook Community Forest에서 다양한 낙엽송을 볼 수 있는 하이킹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크랜브룩 남쪽 골드 크릭Gold Creek 지역에 있는 사우스 스타 레크리에이션 트레일South Star Recreation Trail은 숲을 30km 이상 가로지르지만 비교적 쉬운 코스. 하이킹뿐 아니라 산악자전거나 승마를 즐기기도 좋다. 인근 모이에 호수 국립공원Moyie Lake Provincial Park에서도 라치를 발견할 수 있다. cranbrookcommunityforest.com

코카니글레이셔 국립공원

두 개의 빙하가 있는 험준한 야생 지대로 오프로드 여행을 즐기는 이들을 위한 하이킹 명소. 10월에는 낙엽송이 선명한 노란색으로 물들어 매우 아름답다. 이곳은 진정한 야생의 땅이므로 방문객은 자급자족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bcparks.ca/kokanee-glacier-park

쿠트니 국립공원

쿠트니 국립공원을 하이킹하며 탐험한 후 페어몬트 핫 스프링스 리조트에 머칠 머물며 자연 속 온천에서 피로를 풀어보자. 더 많은 모험을 할 준비가 되었다면, 쿠트니 국립공원에서 차로 조금 이동한 다음 토비 크릭 어드벤처Toby Creek Adventure의 ATV & SXS 투어에 참가해 라치 숲을 활보해보자. parks.canada.ca/pn-np/bc/kootenay

캐세드럴 국립공원

캐스캐이드 산맥과 오카나간 밸리 사이에 있는 인기 있는 하이킹 명소. 캐세드럴 림 트레일Cathedral Rim Trail을 따라가다 보면 라치가 여러 호수에 반영되어 그 아름다움이 배가 된다. 여정은 최소 이틀 이상 잡아야 하며, 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늑한 로지 캐세드럴 레이크스 리조트Cathedral Lakes Resort에 머물러도 좋다. bcparks.ca/cathedral-park

컬럼비아 밸리

플레이웨스트 마운틴 익스피리언시스Playwest Mountain Experiences의 가이드와 함께 퍼셀스Purcells의 브루어 호수Brewer Lakes까지 하이킹을 떠나보자. 라치가 가득한 초원과 호수가 펼쳐진다. 브루어 산Mt. Brewer으로 향하는 여정을 택하면, 정상에서 로키 산맥뿐 아니라 현지인이 가장 좋아하는 넬슨 산의 전망까지 감상할 수 있다. playwest.ca



© Destination BC/Kristi Nicholson

캐나다의 가을로 들어가는 문

2

야생의 친구들

만년설로 덮인 산, 좁고 깊은 협곡에서 출발해 흘러가는 강, 태평양과 대서양 등 자연환경이 다양한 만큼 각양각색 희귀한 야생동물을 만날 수 있다.

MB 세계 북극곰의 수도

가을은 처칠에서 북극곰을 만날 수 있는 적기다. 북극곰이 허드슨 만에 해빙이 형성될 때까지 처칠에 서식하기 때문. 덕분에 10~11월 이곳 설원에서 활동하는 북극곰을 볼 수 있다. 특수 차량인 톤드라 버기를 이용하는 투어나 야생 로지에 편히 머물며 북극곰 관찰이 가능하다.

travelmanitoba.com/churchill

북극의 끝자락인 마니토바 주 처칠로 통하는 도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곳으로 향하는 방법은 기차나 비행기를 이용하는 것뿐.



© Travel Manitoba



© Destination BC/Chari Lee

BC 연어 회귀

매년 가을 연어는 산란하기 위해 바다에서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고된 여정을 시작한다. 강을 거스르며 날아오르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다.

프레이저강

매년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밴쿠버 인근의 프레이저강 Fraser River에 연어의 회귀 행렬이 이어진다. 1375km 길이의 수로에서 홍연어 sockeye salmon, 은연어 coho salmon, 곱사연어 pink salmon, 왕연어 chinook salmon 등 태평양에 서식하는 다섯 종의 연어를 모두 관찰할 수 있다. 강이 무수한 연어로 뒤덮여 진홍색으로 물드는 진풍경을 놓치지 말자. 칠리악강 부화장 Chilliwack River Hatchery, 노스 밴쿠버의 캐필라노 연어 부화장 Capilano Salmon Hatchery 등 피크닉과 하이킹을 겸할 수 있는 곳도 좋은 선택지다.

밴쿠버 섬

알베르니 밸리 Alberni Valley 끝자락에 있는 스탬프 강 주립공원 Stamp River Provincial Park은 도시에서 다소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여행자가 간과하는 숨겨진 보석이다. 태평양의 연어 4000만 마리가 산란을 위해 스탬프 강을 거슬러 오르기 때문. 8월부터 12월까지, 강의 9m 높이를 거스르며 사투를 벌이는 용맹한 연어의 모습을 어른들은 카메라에 담으려 애쓰고, 아이들은 '우와' 하며 탄성을 지른다. 1950년대 중반에 스탬프 강에는 일련의 물고기 사다리가 설치되었고, 이를 통해 여전히 수많은 어종이 상류로 향한다. 현장의 수중 카메라가 이 사다리를 촬영해 트레일 옆 TV에 중계하므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장면도 쉽게 관찰 가능하다.



© Destination BC/Kari Medig



© Destination BC/Andrew Strain

BC 특별한 곰 만나기

마치 흑 같은 근육질의 등으로 유명한 그리즐리 베어. 도시에 종종 나타나는 흑곰에 비해 그리즐리 베어는 만나기 쉽지 않다. 이들을 자주 목격할 수 있는 안전하고 경이로운 장소를 안내한다.

쿠체이마틴 그리즐리 보호구역

프린스 루퍼트 북쪽의 외딴 만에 자리한 쿠체이마틴 그리즐리 보호구역Kutzeimateen Grizzly Sanctuary은 비행기나 배로만 접근 가능하다. 캐나다 최초의 그리즐리 베어 보호구역으로 50~60마리가 살고 있다. 프린스 루퍼트 어드벤처 투어스Prince Rupert Adventure Tours, 쿠체이마틴 야생 로지Kutzeimateen Wilderness Lodge, 블루워터 어드벤처스Bluewater Adventures 등 공식적으로 허가받은 소수의 여행사를 통해서만 보호구역에 들어갈 수 있다.

①투어는 프린스 루퍼트에서 출발한다. 밴쿠버 섬 북쪽 끝 포트 하디Port Hardy에서 수상비행기나 BC페리를 타고 갈 수 있다. 밴쿠버와 프린스 루퍼트를 오가는 국내선 항공편도 이용 가능하다.
 ② 5~9월

그레이트 베어 레인포레스트

그레이트 베어 레인포레스트Great Bear Rainforest는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중부 및 북부 해안을 따라 약 400km 뻗어 있으며, 전 세계 해안 온대 우림 지대의 1/4을 차지한다. 선주민이 운영하는 나이트 인렛 로지Knight Inlet Lodge는 피오르에 자리한 수상 산장으로 아름답고 한적한 환경에서 그리즐리 베어를 관찰할 수 있다. 또한 벨라쿨라 벨리Bella Coola Valley에서 아트나르코 강Atnarko River을 따라 표류하며 연어를 잡아먹는 그리즐리 베어를 만나는 것도 방법. 클렘투에서는 흑곰의 아종으로 흰색 털을 지닌 독특한 커모드곰도 볼 수 있다.

①나이트 인렛 로지는 밴쿠버 섬 동쪽 해안의 캠벨 강에서 수상비행기를 타면 닿는다. 벨라쿨라는 밴쿠버 섬 북쪽 끝의 포트 하디에서 BC페리를 타고 갈 수 있다.
 ② 8~10월



국립공원의 야생동물

대자연이 잘 보존된 캐나다 국립공원은 야생동물을 관찰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적당히 먼 거리에서 존중하는 마음과 애정 어린 시선을 갖고 바라보자.

무스

①일 년 내내 볼 수 있으나 늦가을은 보통 혼자 다니던 무스가 8~10마리씩 무리 지어 뿔을 맞추는 번식기다. 짝을 유인하기 위해 시끄러운 울음소리를 내어 더욱 찾기 쉽다.
 ②1000마리 이상의 무스를 보호하고 있는 알버타 주의 엘크 아일랜드 국립공원.
 ③무스는 호수 주변의 습지와 관목이 많은 열린 공간을 선호하며, 이른 아침에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다. 로키 산맥 남부인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프린스 조지Prince George와 벨마운트Valemount를 오가는 16번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도 무스를 만날 수 있는 방법.

큰뿔양

①10~11월에는 수컷이 암컷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한 번에 몇 시간씩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며 시선을 끈다. 그 소리가 1km 밖에서도 들릴 정도라고.
 ②알버타 주의 밴프 국립공원, 재스퍼 국립공원,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쿠티니 국립공원의 레디움 핫 스프링스Radium Hot Springs 등.
 ③거대한 곡선의 뿔이 특징인 큰뿔양은 모래색 털과 흰색 영덩이로도 유명하다. 10~20마리가 무리 지어 생활하며, 가파른 절벽의 경사면이나 풀이 무성한 낮은 고원과 높은 산지에서 발견할 수 있다.



© Alberta Parks



© Canmore Kananaskis Tourism



안대훈 @no_hooni

밴프 국립공원에서 재스퍼 국립공원으로 이동하는 구간은 끝없는 도로 좌우로 웅장한 로키 산맥이 이어지고 중간중간 아름다운 호수가 나타나는 근사한 드라이브 코스예요. 길가에 차들이 비상등을 켜고 멈춰 서 있다면 그 대열에 합류해야 합니다! 곰, 무스, 큰뿔양 등 다양한 야생동물이 도로 근처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므로 이들을 관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죠.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차 밖으로 나오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해요. 갈수록 풍경은 날것이어서 재스퍼에서 더 많은 야생동물을 봤습니다.



© Tourism Saskatchewan/ J.F. Bergeron/ENVIRO FOTO

바이슨

①대초원의 풀이 가을의 색을 입어 바이슨과 톤온톤을 이루는 가을을 추천한다.
 ②사스카추완 주 그래스랜드 국립공원Grasslands National Park 서부 구역West Block의 대초원을 가로지르는 셸프 가이드 투어 '에코투어 시닉 드라이브Ecotour Scenic Drive'에 참여하면, 차로 20km 거리를 이동하며 한때 멸종 위기에 처했던 바이슨을 만날 수 있다.
 ③이곳에서 바이슨이 가장 좋아하는 사탕 같은 풀, 블루 그라마Blue Grama를 찾아보자. 사람에게도 달콤한 맛일까?

검은꼬리프레리도그

①너무 덥지 않은 가을은 굴 밖에 나온 검은꼬리프레리도그를 보기 좋은 시기.
 ②그래스랜드 국립공원은 캐나다에서 검은꼬리프레리도그가 서식하는 유일한 지역이다. 에코투어 시닉 드라이브의 2번과 7번 지점에서 이들을 조우할 수 있다.
 ③검은꼬리프레리도그는 해가 뜬 후 첫 2시간 동안 먹이를 찾고, 나머지 시간에는 스트레칭, 사교 활동, 굴 수리 등을 한다.



© Tourism Saskatchewan

BC 고래가 지나가는 서부의 태평양

범고래, 쇠고래, 혹등고래 등을 만날 수 있는 캐나다 서부 바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고래를 관찰하기 좋은 지역을 안내한다.



© Destination BC/Jordan Dyck

빅토리아 & 수크

빅토리아에서 안락한 크루즈를 타거나 고속정을 타고 바다로 나가 고래를 만나자. 빅토리아에서 북서쪽으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수크Sooke에서는 후안 데 푸카 해협Strait of Juan de Fuca의 고래를 찾아볼 수 있다.

약 5월~10월

이글윙 투어

빅토리아에서 출발하며 맞춤 제작된 배를 타고 고래를 관찰한다. eaglewingtours.com

밴쿠버 & 리치몬드

10월까지 수천 마리의 고래가 밴쿠버 인근 바다를 통해 이동한다. 특히 밴쿠버 섬 인근에는 먹이 사냥을 하는 범고래를 볼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밴쿠버에서 출발하는 투어는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그랜빌 아일랜드와 밴쿠버 남쪽 리치몬드의 스티브스톤에서 출발하는 고래 관찰 투어는 걸프만 남부와 산 후안San Juan 제도 근처에서 고래를 관측한다. 이 해역에서 범고래와 혹등고래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약 90%.

약 5월~10월

와일드 웨일 밴쿠버 & 밴쿠버 웨일 와치

그랜빌 아일랜드에서 출발하는 투어로 접근성이 좋다. whalesvancouver.com
밴쿠버 최초의 고래 관찰 투어인 밴쿠버 웨일 와치는 스티브스톤에서 출발한다. vancouverwhalewatch.com

토피노 & 유클루릿

캐나다의 제주도라고 불리는 토피노Tofino와 유클루릿Ucluelet에서는 클레요쿼트 해협Clayoquot Sound과 바클리 해협Barkley Sound의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울창한 숲과 모래 해변이 펼쳐진다. 쇠고래를 흔히 볼 수 있지만 혹등고래와 범고래도 관찰할 수 있다.

약 3월~10월

제이미스 웨일링 스테이션

친환경 생태 투어를 제공하는 제이미스 웨일링 스테이션Jamie's Whaling Station. jamies.com



© Dubé, Catherine

QC 고래가 지나가는 동부의 대서양

퀘벡 주 타두삭과 샤를부아에서 출발하는 고래 관찰 크루즈를 놓치지 말자. 사그네이-세인트 로렌스 해양 공원 Saguenay-St. Lawrence Marine Park 은 지구에서 고래 관찰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5월부터 가을이 완전한 10월까지 다양한 고래를 만날 수 있다. croisieresaml.com

최대 13종의 고래

이 지역에서는 최대 13종의 고래를 발견할 수 있다. 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장 큰 동물인 대왕고래 등 희귀한 보호종들도 만날 수 있다. 벨루가, 혹등고래 등 숙련된 선장과 지식이 풍부한 해설가가 발견한 고래를 자세히 안내해준다.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해역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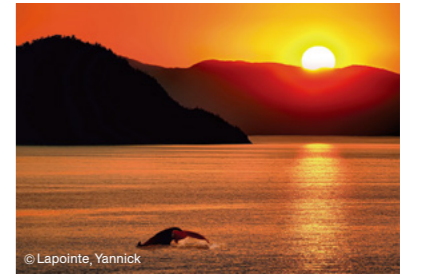
사그네이 피오르Saguenay Fjord와 세인트 로렌스 하구St. Lawrence Estuary가 만나는 곳으로 2000종 이상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수생 군집을 이룬다. 이 해역에서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고래의 먹잇감도 풍요롭다.

지속 가능한 관광

고래 관찰 투어를 이끄는 AML크루즈는 특별한 배를 설계해 고래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신경 쓰고 있다.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에 아름다운 대자연 그대로 물려주어야 하는 의무에 충실한다.



© GREMM



© Lapointe, Yannick



© Newfoundland and Labrador Tourism

NL 혹등고래를 만나자

뉴펀들랜드 앤 래브라도 주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혹등고래를 발견할 수 있다. 해안 근처까지 와서 먹이를 찾아 장난을 치는 모습도 관찰 가능하다. 5월부터 9월까지 혹등고래를 만나는 세 가지 방법을 안내한다.

보트

바다 한복판에서 고래를 만나는 것은 일생에 다시 없을 기회이기도 하다. 보트 투어를 통해 고래를 관찰할 수 있는 먼바다로 향한다. 배 아래를 지나가는 고래의 거대한 등을 볼 수도 있다.

카약

가이드와 함께 바다로 카약을 타고 나가 고래를 관찰할 수도 있다.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고래를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래와 친밀해지는 기회다.

하이킹

멀리서 볼 때 더욱 아름다운 풍경이 있다. 해변 산책로나 험준한 절벽, 모래사장을 따라 하이킹을 하면서 고래를 바라보는 것. 절벽 꼭대기에 서면 청명거리는 혹등고래의 꼬리가 더욱 잘 보인다. 심지어 쌍안경도 필요하지 않다. 시그널 힐Signal Hill, 세인트 앤서니St. Anthony, 케이프 레이스Cape Race, 윌트리스베이Witless Bay 등을 추천한다.



© Eagle Wing Tours/Valerie Shore

캐나다의 가을로 들어가는 문

3

포근한 오로라

오로라를 감상하기 위해 반드시 추위를 이겨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을의 오로라는 우리를 포근하게 감싸안아주니까!



세계적 오로라

오로라는 1년 내내 활동하지만, 여름 백야가 지나가고, 겨울 눈이 내리기 시작하기 전인 가을이 오로라를 관측하기 좋은 시기이다.

두 달간 볼 수 있다

노스웨스트 준주에서 가을에 오로라를 볼 수 있는 시기는 8월 중순부터 10월 둘째 주까지다. 10월 둘째 주부터 11월 하순까지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며 하늘에 눈구름이 덮이므로 가을 특유의 오로라를 보기 어렵다.

깊숙한 자연으로

오로라를 감상하기 좋은 다양한 로지와 캐빈이 자리한다. 도심과 떨어져 깊숙한 자연 속에 위치해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물인 셸. 아늑한 실내에서 편히 기다리다가 인락한 어둠 속에서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는 오로라에 집중할 수 있다.

오로라 캠핑도 할 수 있다

밤하늘이 충분히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텐트를 쳐놓고 캠핑하며 캠프파이어 주변에서 오로라를 기다리는 것도 즐거움이다. 가을은 적당한

기온에 눈도 쌓이지 않아 겨울보다 캠핑하기 수월하다.

수면에 피어나는 오로라

가을에는 호수에 오로라가 반영된다. 겨울이 오면 호수가 얼어붙기 때문에 물에 비친 오로라를 바라보는 것은 가을 오로라만의 낭만이다. 마치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초자연적인 녹색과 보라색이 위아래로 드넓게 펼쳐진다.

국립공원에서 오로라 즐기기

노스웨스트 준주에는 6개의 웅장한 국립공원이 있다. 겨울에는 오가는 길이 막힐 수 있으나 가을에는 출입이 수월하다. 우드버팔로 국립공원 Wood Buffalo National Park의 광활한 연전, 나하니 국립공원 보호구역 Nahanni National Park Reserve의 경이로운 산봉우리와 오로라를 함께 감상하자.



숨겨진 명소

북극곰으로 유명한 마니토바 주의 처칠에서도 일 년 중 평균 300일 이상 오로라가 관측된다.

처칠 북부 연구 센터

처칠 북부 연구 센터Churchill Northern Studies Centre는 도심에서 30분 정도 떨어져 있어 도시의 빛 공해로부터 자유롭고, 오로라가 나타나면 감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센터의 중앙 조명이 꺼진다. 합리적인 가격의 가이드 투어 옵션 제공. churchillscience.ca

오로라 돔

내추럴 해비타트 어드벤처스Natural Habitat Adventures를 통해 여행을 예약하면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유리 돔에서 머물 수 있다. 실내에서 하늘을 360도로 바라보며 오로라를 맘껏 품어보자. nathab.com

사진 출사

디스커버 처칠에서는 가이드 알렉스 디브리스Alex DiVries가 맞춤형 사진 교육을 진행하는 오로라 출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대림Boreal Forest으로 들어가 티피에서 오로라를 촬영하는 등 다양한 장소를 탐험할 수 있다. 4일 혹은 7일 여정 중에 선택 가능. discoverchurchill.com



가을 오로라 휴가

유콘 준주에서는 8월부터 가을 내내 오로라를 볼 수 있다.

날씨가 너무 춥지 않고, 하늘이 맑은 가을은 캐나다에서 오로라를 보기 좋은 계절이다. 해가 떠 있는 낮에는 가을 단풍의 정취를 즐기고, 밤에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오로라를 감상할 수 있다. 특히 화이트호스는 가을이 오면 사시나무 숲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생기가 넘친다. 낮에는 화이트호스에서 도시 여행을 즐기고, 밤에는 오로라를 맞이하자. 사흘간 오로라와 화이트호스를 즐기는 방법이 준비되어 있다.

오로라 예보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태양 폭풍을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가장 밝게 빛나는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는 시간대를 예측할 수 있다. 오로라는 상층 대기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특히 하늘이 맑을수록 관측할 확률이 높아진다. 오로라 관측 사이트에서 오로라가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하는지 관측 지수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 1부터 10까지 약 3일간의 예보를 확인할 수 있다. auroraforecast.com

최적의 조건

백야가 끝나고 밤이 깊어지는 가을에는 기온도 영상으로 유지되어 좀 더 편안하게 오로라 관측 할 수 있다.

다양한 선택지

화이트호스 시내에 머물면서 저녁에 오로라 투어를 나가거나 자연 속 캐빈에서 숙박하며 오로라를 감상할 수 있다. 미니멀한 오두막집부터 편의시설을 모두 갖춘 고급스러운 로지까지 다양한 선택지 중 원하는 방식을 택하자.

유콘 오로라 관측 TIP 5

유콘 준주는 노스웨스트 준주에 비해 밴쿠버와 가까워 비교적 짧은 일정으로 오로라를 보러 가기 좋다. 낮에는 알록달록한 단풍을, 밤에는 오로라를 바라보며 충만한 가을을 보낸다.

시기

유콘 준주에서 8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오로라를 감상할 수 있다.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가 적절하다. 특히 달빛이 약한 밤에 오로라를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앱

마이 오로라 포어캐스트My Aurora Forecast나 오로라 포어캐스트Aurora Forecast 앱을 추천한다. 꽤 신뢰할 만한 오로라 예보 앱이다.

가이드

로지, 캐빈, 개 썰매 등 다양한 오로라 투어가 있다. 가이드와 함께라면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다.

온천

화이트호스에 있는 이클립스 노르딕 온천Eclipse Nordic Hot Springs에서 47°C의 천연 광천수에 몸을 담그고 감동이 가득한 밤하늘을 품는다.

전망대

가장 평범한 것이 답이 될 수도 있다. 도슨 시티에 있는 전망대 미드나잇 돔에서 유콘 강과 클론다이크 밸리Klondike Valley의 전망과 오로라를 함께 감상하자.

캐나다의 가을로 들어가는 문

4

기차는 가을을 실고

캐나다를 여행하는 낭만적인 방법 중 하나.

ON 단풍이 그윽한 길

온타리오 주 북부의 수생마리 Sault Saint Marie와 아가와 캐년 Agawa Canyon을 오가는 왕복 360km, 약 10시간의 여정이다. 아가와 캐년 투어 트레인에서는 거친 황야를 개척한 오지브웨이족 Ojibway 선주민뿐 아니라 이곳을 모험한 탐험가 등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한국어 안내 방송으로 편안하게 들을 수 있다. 객차에 설치된 평면 스크린 모니터를 통해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과 다른 시선으로 풍광을 감상하는 것도 묘미. 편도 4시간 동안 펼쳐지는 가을 단풍의 파노라마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이다. 특히 몬트리올 강 다리에서 보이는 풍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아가와 캐년 파크에 도착하면 1시간 30분 동안 자유시간이 주어진다. 트레일을 따라 하이킹을 하거나 전망대에 올라 12억 년 전 생성된 협곡의 비경을 한눈에 담아보자. 가을에는 협곡이 단풍으로 알록달록 물든다. agawatrain.com

1 부지런한 여행자가 단풍을 만난다

단풍 파노라마를 즐기고 싶은 여행자가 전 세계에서 몰려오다 보니, 가을에 아가와 캐년 투어 트레인을 타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전에 예약해야 한다.



© shutterstock



© VIA Rail

CA 캐나다를 횡단하다

비아레일 VIA Rail은 캐나다 동부와 서부를 가로지르는 약 1만4,000km 길이의 철도를 일컫는다.

캐나다인 노선은 기차 여행의 로망을 실현해주는 최고의 코스로 꼽힌다. 동부의 토론토와 서부의 밴쿠버 사이 장장 4,466km 거리를 밤낮으로 4일 동안 달린다. 도시에서 시작된 풍경은 야생의 숲과 호수 그리고 대초원과 로키산맥 등으로 이어진다. 기차의 유리창은 지붕까지 이어져 광활한 대자연의 가을 풍광을 드넓게 담는다.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캐나다 최고의 창문 Canada's Best Window'으로 불리는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캐나다인 노선에는 프레스티지 Prestige, 슬리퍼 플러스 Sleeper Plus, 이코노미 Economy, 이렇게 세 종류의 객실이 있다. 프레스티지 클래스는 밤에 차창을 마주보는 침대로 변신하는 모들식 가죽 소파, 샤워시설을 갖춘 욕실, TV 등을 구비한 너른 객실이다. 식사 시간과 투어 예약 등 소소한 모든 일을 전담 컨시어지가 처리해주므로 여행자는 오롯이 창밖 풍경에만 집중할 수 있다. 열차의 주방에서 셰프가 갓 만든 풍성한 요리가 풍경과 어우러지는 순간까지, 그야말로 모든 것이 완벽하다. viarail.ca

1 대서양을 따라서

비아레일의 오션 노선은 퀘벡 주 몬트리올에서 출발해 뉴브런즈윅 주와 노바스코샤 주의 핼리팩스까지 1,346km를 달리는 1박 여정이다. 아름다운 캐나다의 대서양을 바라보며 가을 바다의 매력에 빠져들 수 있다.

© Destination Ontario

BC AB 로키 산맥 감상법

천장이 유리 돔으로 이루어진 럭셔리 기차 로키 마운티니어에 탑승하면, 가을의 햇빛과 로키 산맥의 풍광을 맘껏 즐길 수 있다. 이동보다 여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시속 50km 정도로 천천히 달리므로 변화무쌍한 캐나다인 로키의 가을 풍경을 찬찬히 감상하기 좋다. 로키 마운티니어 열차는 풍광을 볼 수 있는 낮에만 운행하고 밤에는 기차지의 호텔에서 머문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기차에 올라 여정을 이어간다. 기차 내에 호스트라고 불리는 승무원이 열차가 지나가는 곳의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특히 야생동물이 나타나면 기차 속도를 줄이고 어느 방향에서 볼 수 있는지도 안내한다. 셰프가 지역의 제철 재료를 정성스럽게 요리한 식사도 근사한 레스토랑 못지않게 훌륭하다.



© Rocky Mountaineer

로키 마운티니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스는 밴쿠버와 밴프를 오가는 '퍼스트 패시지 투 더 웨스트 First Passage to the West'. 캐나다인 로키의 아름다움이 절정을 이루는 구간으로 다양한 패키지가 있으니 각자의 일정과 취향을 고려해서 여정을 선택하면 된다. 매년 9월에는 다음 해에 출발하는 기차 예약에 관한 프로모션이 시작되므로 특별한 혜택도 놓치지 않도록. 로키 마운티니어는 4월부터 10월까지 운행한다. rockymountaineer.com

1 캐나다인 로키 9일 여정

이 여정은 자칭 낭만주의자에게 적합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밴쿠버에서 출발해 알버타 주 캘거리에 도착하는 9일간의 여행. 총거리는 1670km로 밴쿠버에서 로키마운티니어를 타고 프레지더 강 연어로 만든 요리와 오키나와 벨리의 와인 등을 음미할 수 있다. 기차지인 캠프스의 호텔에서 숙면하고 다음날 다시 기차에 탑승해 밴프 타운에 도착한다. 이후 차를 타고 밴프 국립공원과 요호 국립공원 Yoho National Park 그리고 레이크 루이스, 모레인 호수 등지에서 캐나다인 로키를 탐험한 후 캘거리로 향해 도시도 향유한다.

travelalberta.com/trip-ideas/road-trips-itineraries/canadian-rockies-calgary-rocky-mountaineer



© White Pass & Yukon Route

VT 황금 열차

1900년 유콘 준주의 화이트호스 Whitehorse와 미국 알래스카 주 스캐그웨이 Skagway를 연결하는 177km 길이의 협궤 철도가 개통했다. 일명 화이트 패스 앤 유콘 루트 철도 White Pass & Yukon Route Railroad. 유콘에서 캔 황금을 수송하기 위해 부설되었는데, 1982년 금광이 폐쇄되며 기차 운행도 중단되었다. 이후 여행용 열차로 운행을 재개하며, 안전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황금빛 여정을 펼친다. 칠쿠트 트레일 Chilkoot Trail이나 캠핑과 연계된 옵션도 선택할 수 있다. 기차에 탑승해 멋진 사진을 맘껏 찍고 연례 사진 대회에 출품해보도 좋겠다. wpyr.com



프로한량 철대장 @chill_haza

진짜 이걸 타고 알래스카로 간다고? 도착지가 알래스카라니까 괜히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캐나다에서 기차 타고 미국에 간다는 것도 독특한 경험이지요. 열차를 타고 있는 내내 다른 풍경이 펼쳐져서 흥미로웠어요. 산과 호수 그리고 사막 등등. 철로 아래 물이 알개 고여 있는 곳도 있는데, 그 위를 지날 때는 마치 수면 위를 달리는 것 같았죠. 풍경에 빠져 있으면 국경을 지나 어느새 알래스카에 도착해요. 중간 기착지에도 캠핑장이 있는데, 다음에는 그곳에서 캠핑도 해보고 싶어요. 화이트호스에 다시 간다면, 저는 다시 유콘 화이트패스 앤 유콘 루트 기차를 탈 거예요.



© Rocky Mountaineer

QC 가을의 시를 타다

캐나다 동부의 가을 산과 바다를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샤를부아 Charlevoix 기차. 대서양으로 흐르는 세인트로렌스 강 St. Lawrence River를 따라 4시간 30분 동안 약 125km를 달리며 샤를부아 지역을 여행한다. 퀘벡 시티 근교의 몽모랑시 폭포 Montmorency Falls에서 출발해 7개의 그림 같은 마을에 정차하고 라말베 La Malbaie에 도착하는 여정. 물론 일부 구간만 선택해 여행해도 가을을 만끽하기 좋다. 열차가 지나며 서치는 전원 풍경이 한 편의 시를 써내려 가는 듯하다.

traindecharlevoix.com

1 호텔 숙박도 함께

샤를부아 트레인은 캐나다 동부 지역의 호텔을 묶은 패키지도 제공한다. 호텔 카프 오 피에르 Hotel Cap-Aux-Pierres 패키지를 선택하면, 쿼드르 섬 L'Isle-aux-Coudres의 일출을 맞이할 수 있는 숙소와 샤를부아의 테라스에서 영감받은 요리를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까지 한번에 예약 가능하다. 수녀원 겸 농장이 개성 있는 호텔로 변모한 베생폴의 호텔 앤 스파 르 저맹 샤를부아 Hotel & Spa Le Germain Charlevoix, 라말베의 페어몬트 르 마누아 리슐리외 Fairmont Le Manoir Richelieu에서의 숙박을 연계한 패키지도 좋은 선택지다.



© Train de Charlevoix, Caroline Petron

캐나다의 가을로 들어가는 문

5

어드벤처 파라다이스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즐기는
모험가라면 캐나다는 지상낙원이다.



© Mountain Madness Tours



라이더의 로망

자전거 초보부터 마니아까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여행.

하이로키스

로키 산맥의 멋진 전망과 특별히 만든 단일 및 이중 트랙이 결합된 하이로키스 High Rockies. 총거리는 16.3km로 블랙셰일 크릭 Blackshale Creek을 가로지르는 현수교를 지난다. 모든 라이더가 잠시 멈춰 풍경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는 로키 산맥의 탁 트인 파노라마 뷰도 인상적.

④ 고트 크릭 Goat Creek 트레일 기점과 페닌슐라 데이 유즈 에어리어 Peninsula Day Use Area 사이의 스미스 도리언 트레일 Smith Dorrien Trail 고속도로와 나란하다. 스미스 도리언 트레일을 따라 캔모어에서 48km 떨어진 체스터 호수 Chester Lake가 대략 중간 지점이다.

① 낮선 코스에서 안전하게

알버타 66 산악자전거 투어를 이용하면, 브래그 크릭과 카나스키스 일대의 다양한 트레일을 가이드와 함께 즐길 수 있다.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맞춤 코스가 마련되어 있으며, PMBIA (Professional Mountain Bike Instructor Association) 인증 강사가 점프와 코너링 등을 알려주는 코칭 세션도 진행한다. 캘거리에서 출발하는 자전거 운반 차량도 준비되어 있고, 자전거 대여도 가능하다. alberta66mtb.com

밴프 국립공원, 미네완카 호수 루프

햇볕이 강해 눈이 잘 쌓이지 않는 코스인데도 7월 10일부터 9월 15일까지 자전거 통행이 금지된다. 그러므로 9월 중순부터 미네완카 호수 루프 Lake Minnewanka Loop에서 가을 라이딩을 즐길 수 있다. 알버타 주 최고의 크로스컨트리 사이클링 트레일로 호수를 따라가며 멋진 전망을 선사한다. 대부분의 라이더가 워든 캐빈 Warden Cabin까지의 30km 왕복 코스를 선택한다. 그러나 트레일은 밴프 국립공원을 넘어 고스트 리버 야생 지역 Ghost River Wilderness Area까지 이어진다.

④ 밴프 타운에서 밴프 애비뉴를 따라 미네완카 호수까지 약 10.1km 이동.

브래그 크릭, 멀린 뷰

웨스트 브래그 크릭 West Bragg Creek에 있는 멀린 뷰 Merlin View 트레일은 산악자전거로 처음 여행을 온 사람들이 즐기기에 좋다. 총거리 6.2km인 싱글 트랙은 완만한 경사, 넓은 코너, 점프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양방향으로 탈 수 있는 코스지만, 대부분의 라이더가 더 가파른 오르막과 더 긴 내리막을 달릴 수 있는 시계 반대 방향 코스를 선택한다.

④ 웨스트 브래그 크릭 데이 유즈 에어리어 West Bragg Creek Day Use Area에서 브래그인 라이츠 Braggin Rights 트레일을 통해 코스에 진입할 수 있다.

에드먼튼, H2H(2018) - 블랙

노스 사스카추완 강을 따라 조성된 공원 리버 밸리 내에 있는 이 코스는 양방향으로 오갈 수 있다. 신호등과 교차로 등에 걸리지 않고 한 번에 주파 가능하다. 초보자와 중급자를 위한 코스가 섞여 있으며 난이도를 높이기 위한 섹션도 혼합되어 있다. H2H 코스는 그린, 블루, 블랙 등 색상으로 난이도를 구분하는데, 블랙은 어려운 코스에 속한다.

④ 에드먼튼 북동부의 스트래스코나 사이언스 주립 공원 Strathcona Science Provincial Park 또는 남서부의 터윌리거 파크에서 접근할 수 있다.

힌트, 힌트 자전거 공원

다양한 높이의 드롭 존 Drop Zone부터 경사가 다양해 실력에 따른 속도를 즐길 수 있는 플로우 마스터 Flow Master까지, 힌트 자전거 공원 Hinton Bike Park에는 라이더를 위한 모든 선택지가 있다. 산악자전거 전용 공원으로 난이도가 다양한 23개의 트레일로 구성된다. 무료 입장.

④ 주차장은 트랜스 캐나다 고속도로에서 단 2km 정도 떨어진 롱 로드 Robb Road에 위치한다.

그랜드 프레리, 나이트호크 어드벤처 파크

알버타 주 북동쪽의 너른 초원에 있지만 고도 약 160m로 가장 수직적인 코스인 나이트호크 어드벤처 공원 Nitehawk Adventure Park. 내리막 코스에는 다양한 지형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동시에 라이딩의 스릴을 느낄 수 있다. 트레일을 이용하려면 연간 패스나 일일 패스가 필요하다. 내리막길을 최대한 즐기 위해서는 셔틀 또는 리프트를 이용해 코스의 꼭대기로 올라가야 한다.

④ 그랜드 프레리 Grande Prairie에서 20km 떨어진 곳으로 666 알버타 고속도로를 통해 닿을 수 있다.

① 자전거 여행 준비

- ④ 캘거리, 캔모어, 에드먼튼, 제스퍼 타운, 밴프 타운 등 주요 거점에서 자전거를 쉽게 빌릴 수 있다. 자전거 대여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 ④ 알버타 주에서는 자전거를 운반하기 위한 랙이 필요하다. 랙이 없다면 자전거를 분해해 차로 운반한 다음 다시 조립해야 할 수도 있다.
- ④ 자전거 트레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북미 전역에서 인기 높은 trailforks.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 ④ 17세 이하라면 법적으로 헬멧을 써야만 한다. 17세 이상이라면 권장 사항이지만 안전을 위해 착용하는 편이 좋다.
- ④ 알버타 주에는 야생동물이 서식한다. 자전거에 소음기를 부착하거나 곰 스프레이를 챙겨서 다니자.



© Destination BC/Kari Medig



산악자전거의 메카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

라이딩 해야 하는 이유 4.

1 프리라이드의 탄생지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는 프리라이드의 탄생지이다. 1990년대 중반 밴쿠버의 노스 쇼어와 캠퍼스, 선사인 코스트 등지에서 라이더들이 한계를 뛰어넘고 새로운 방식으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한 것이 유래가 된다. 영화 <The Moment>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다.

2 다양한 트레일

로키 산맥의 고산부터 바다를 품은 오래된 숲을 통과하는 길까지, 17000개 이상의 산악자전거 트레일이 있다. 6개의 지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mountainbikingbc.ca에서 확인해보자.

3 대자연 속으로

헬리콥터나 수상비행기를 타고 고산의 트레일에 접근하는 등 다양한 옵션을 통해 대 자연을 탐험할 수 있다.

4 세계적인 유명세

세계 최대의 산악자전거 대회인 크랭크웍스 휘슬러 Crankworx Whistler와 같은 유명한 이벤트가 열린다.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산악자전거 선수들이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 성장했거나 이곳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휘슬러 산악자전거 공원 Whistler Mountain Bike Park과 휘슬러 꼭대기에서 기슭까지 약 1524m의 톱 오브 더 월드 Top of the World 트레일도 유명하다.

①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의 자전거 여행에 관한 모든 것
hellobc.com/things-to-do/biking

NS 단풍과 오션뷰 노바스코샤 주 케이프 브레튼 섬의 캐벗 트레일을 걸어서 탐험하기.

캐벗 트레일은 대서양 연안과 케이프 브레튼 하이랜드 국립공원Cape Breton Highlands National Park 그리고 브라스 도르 호수Bras d'Or Lake와 폭포 등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코스다. 공인 산악 가이드와 함께하는 투어에서는 하이킹뿐 아니라 선주민 문화와 캐나다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아갈 수 있다.
explore-share.com

6.5km 협곡을 따라 폭포까지 트레킹한다. 프랑스 아카데미 문화가 가득한 체티캠프Cheticamp에 머물며 일몰을 감상하자.



© Tourism Nova Scotia/ Photographer: @daveyandsky

17.5km 케이프 브레튼 하이랜드 국립공원의 유명한 스카이라인 트레일Skyline Trail을 하이킹한다. 바다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걸어가보자. 하이킹 대신 고래 관찰 크루즈를 선택할 수도 있다.

12km 케이프 브레튼 하이랜드 국립공원의 해발 355m에서 시작해 강을 따라 만의 해안으로 내려간다. 해변에서 점심 식사를 즐기고 바다에서 해수욕을 해도 좋다.

9km 또 다른 해변으로 향해 케이프 브레튼 섬의 근사한 풍경을 감상하자. 잉고니시 마을의 산 정상에 오르면, 켈틱 로지Keltic Lodge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브라스 도르 호수에 위치한 바덱Baddeck 마을에서 하루 묵는다.

7km 브라스 도르 호수 위의 산 정상까지 하이킹한다. 오후에는 맥엠아크Mi'kmaq 선주민 가이드가 이끄는 도보 투어에 참여해 그들의 문화를 배운다. 스머지 의식에 참여하고 함께 춤을 추는 시간이다.

4km 노스 브랜치 강North Branch River을 따라 15m 높이의 폭포까지 짧게 하이킹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하이킹을 건너뛰고 카약 투어에 참여해도 좋다. 이후 전화를 발명하고 청각 장애인용 돌기 위해 다양한 기구를 개발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박물관Alexander Graham Bell Museum에 방문할 수 있다.



© Destination Ontario/Andy Brooks

ON 900km 하이킹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긴 트레일.

브루스 트레일

나이아가라 반도의 퀸스턴 하이츠 공원Queenston Heights Park에서 브루스 반도의 토버모리 항구Tobermory Harbour까지 편도 900km에 달하는 브루스 트레일Bruce Trail. 나이아가라 절벽 꼭대기를 따라 구불구불 이어지는데, 가을이면 다채롭고 풍성한 단풍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 장거리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일부 구간만 짧게 하이킹하는 편이다. 주말마다 인파가 붐비므로 사전에 주차 공간을 예약하는 것이 좋다. 이곳의 생태계를 보호하는 브루스 트레일 컨저번시Bruce Trail Conservancy가 트레일에 관한 포괄적인 온라인 가이드를 제공한다.
brucetrail.org



© Tourism Jasper

AB 전문가와 함께 전문 가이드와 함께라면 어디든 두렵지 않다.

재스퍼 모터사이클투어

전문 가이드가 운전하는 할리 데이비스 오토바이에 장착된 사이드카를 타고 편안하게 재스퍼 국립공원을 누벼보자. 만년설이 덮인 산, 거대한 빙하, 에메랄드빛 호수에 둘러싸여 대자연의 즐길 수 있다. 가이드는 버스나 자동차가 놓치는 명소를 안내할 것이다. 1시간부터 3시간까지 다양한 코스가 있으며, 4월부터 10월까지 매일 운영한다. 특히 아이스필드 파크웨이 투어를 놓치지 말 것.
jaspermotorcycletours.com

BC 오두막 하이킹 오두막과 오두막 사이.

약 180km에 달하는 선사인 코스트 트레일Sunshine Coast Trail은 북쪽 데솔레이션 만Desolation Sound의 사라 포인트Sarah Point와 남쪽 솔터리 만Saltery Bay의 BC 페리 터미널까지 횡단하는 여정이다. 여러 국립공원을 지나며 강과 호수, 산과 온대우림 등 다양한 자연이 펼쳐진다. 이 길을 따라 다양한 오두막이 자리하는데, 캐나다에서 가장 긴 오두막 hut-to-hut 하이킹 코스로 유명하다. 오두막 옆에 있는 캠프 사이트도 이용 가능하며, 오두막과 오두막 사이의 짧은 트레일도 다양하다.

1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의 하이킹에 관한 모든 것
hellobc.com/things-to-do/hiking



© Travel Alberta/AV Wakefield

AB 황금빛 하이킹 캐나다 서부의 단풍은 황금빛이 인상적이다.

밴프, 힐리 패스

힐리 패스Healy Pass는 야생화천국이다. 가을에 날씨가 선선해지면 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눈이 부시다. 숲을 통과하는 하이킹 코스는 꾸준한 경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길을 오르거나면 힐리크릭HealyCreek이 나타난다. 이제부터는 안전한 코스를 따라 호수와 나무로 이루어진 눈부신 풍경을 즐기면 된다. 거리는 17.5km.

밴프, 부르조 호수

밴프에서 차로 조금만 가면 울창한 가을 숲이 나타난다. 나무가 우거진 이 숲의 중심에는 말굽 모양의 부르조 호수Bourgeau Lake가 있다. 가을의 여운을 더 즐기고 싶다면 하비 패스Harvey Pass까지 2.3km 더 들어갈 수도 있다. 거리는 15km.

밴프, 테일러레이크

단풍과 삼림욕을 즐길 수 있는 코스다. 점점 가팔라지는 숲길을 따라서 삼림욕을 하듯 걷다 보면 파노라마 피크 주변 봉우리에 둘러싸인 호수가 나타난다. 이 호수가

테일러 호수Taylor Lake다.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이면 잔잔한 호수에 비친 가을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거리는 12.6km.

레이크루이스, 새들백 패스

다양한 종류가 뒤섞여 있어 색다른 풍경을 자아내는 오르막길을 따라 걸어가면 곧 단풍으로 물든 숲이 나온다. 새들백 패스Saddleback Pass에 들어서면 레이크 루이스 스키 리조트와 보우 밸리의 풍경이 아래로 펼쳐진다. 그리고 남서쪽으로는 템플 산Mt. Temple의 높은 봉우리를 배경으로 물든 단풍 숲을 감상할 수 있다. 거리는 7.5km.

밴프, 록바운드 호수

단풍이 든 나무로 무성한 트레일이 마련되어 있다. 캐슬 산Mt. Castle의 뒤로 들어갈 수 있는데, 바위 절벽에 자리 잡고 있는 록바운드 호수Rockbound Lake가 나타난다. 타워 호수Tower Lake 전망대에 오르면 탁 트인 가을의 호수를 내려다볼 수 있다. 거리는 16.8km.



현지인 추천 하이킹 코스

유콘 방문자 정보 센터의 친절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하이킹 명소를 안내한다.

화이트호스, 스피릿캐년

스피릿 캐년 Spirit Canyon은 멋진 전망을 자랑하는 하이킹 코스예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쉬운 편이라 모든 하이커가 도전할 수 있죠. 여러 코스가 있어서 마음에 드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됩니다. 협곡에 도착하면 독수리 동자를 발견할 수도 있으니 눈을 부릅떠보세요. 카메라를 꼭 챙겨야 합니다.

- 타라 Tara

화이트호스, 히든 레이크 트레일

높은 곳에 숨어 있는 호수를 찾아 떠나는 하이킹 코스예요. 그래서 히든 레이크 트레일 Hidden Lakes Trail이죠. 코스 시작점에 가기 위해서는 하이랜드 스트리트 Highland Street에 있는 트레일을 이용해야 해요. 그러면 곧 가파른 길이 나타날 거예요. 길이 뚜렷해서 쪽 따라가면 됩니다. 걷다 보면 선택을 해야 해요. 위로 가는 코스와 아래로 가는 코스가 나누어지거든요. 저는 위쪽 코스를 더 좋아해요. 호수 주변까지 가는데 1시간 조금 넘게 걸립니다. - 도나

화이트호스, 피시 레이크 트레일

피시 레이크 트레일은 넓은 호수 주변으로 평원과 웅장한 산세가 단풍으로 아름답게 물들어 있어요. 그리고 유콘 준주 선주민이 사는 가장 큰 지역이기도 해요. 이 지역은 퀴린둔 퍼스트 네이션 Kwanlin Dün First Nation 안에 자리하는데, 가을철에는 선주민이 사냥터로 사용하므로 오후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 하이킹을 할 수 없습니다. - 메건 Meghan

화이트 산, 아틀린 로드

화이트호스에서 차로 1시간 떨어져 있는 화이트 산 Mount White의 하이킹 코스로 아틀린 로드 Atlin Road에서 시작해 꼭대기까지 꽤 가파른 편이에요. 정상에 오르면 어느 방향이든 경이로운 전망을 감상할 수 있어요. 특히 햇빛 속에서 쉬고 있는 산양을 볼 수도 있죠. - 도나 Donna

도슨 시티, 미드나잇 돔

스틱을 짚고 탐험을 떠나보세요. 미드나잇 돔 하이킹 코스는 지그재그로 올라가야 해서 조금 더 힘들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길을 따라 올라갈 가치가 충분해요. 천천히 올라가서 정상에 오르면 유콘 준주의 광활한 풍경이 펼쳐져요. 골드러시 시대에 금을 캐면서 남은 오래된 광미 tailing도 볼 수 있어요. 유콘의 자연과 과거를 한번에 만날 수 있는 하이킹 코스죠. - 엠케이

투스톤 준주립 공원, 골든 사이즈

초보 하이커라면 투스톤 준주립 공원 Tombstone Territorial Park의 골든 사이즈 Golden Sides 코스에서 하이킹해보세요. 경로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 길을 헤맬 염려가 없어요. 하이킹을 하다 보면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왼쪽 또는 오른쪽 어느 길을 선택하더라도 훌륭한 코스이므로 마음껏 걸어보세요. 왕복 3.5km라서 가볍게 다녀올 수 있어요. 마치 특별한 곳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 엠케이MK



단풍 드리운 그린

캐나다에는 2400여 개의 골프 코스가 있는데, 그중 PGA 프로 골퍼들이 꼽은 퍼블릭 코스를 순위대로 안내한다.

1위

캐나다 최고의 골프 여행지로 꼽히는 노바스코샤 주. 특히 최근 개장한 캐벗 클리프스 Cabot Cliffs 코스는 캐나다 PGA 골퍼들이 입을 모아 최고의 코스로 선정했다. 세인트로렌스 만의 모래언덕과 해안 절벽의 지형을 활용한 코스로 깎아지른 듯한 해안 절벽의 절경이 유려하다. cabotcapebreton.com

2위

노바스코샤 주의 캐벗 링크스 Cabot Links는 해안의 굴곡진 사구에 지어진 골프장이다. 모든 홀이 바다 전망이며, 12번 홀부터 16번 홀까지는 해안과 닿아 있다. 바닷바람을 느끼며 가을 야생화가 핀 풍경 속에서 골프를 치다 보면 마치 바닷가에서 골프를 치는 듯하다. cabotcapebreton.com

3위

2024년 재개장을 앞둔 알버타 주의 페어몬트 밴프 스프링스 골프 코스는 로키 산맥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다. 18번홀의 스탠리 톰슨 코스 Stanley Thompson Course와 9번홀의 터널 마운틴 코스 Tunnel Mountain Course가 있다. 스탠리 톰슨 코스는 설피 산과 런들 산 그리고 보우 강을 따라 이어진다. fairmont.com/banff-springs

4위

알버타 주에 있는 페어몬트 잰스퍼 파크 로지는 2024년 5월 리뉴얼 오픈을 앞두고 있다. 1925년 산악 골프장으로 개장한 이곳은 1994년에 초기 레이아웃으로 되돌리기 위한 복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스탠리 톰슨이 세운 청사진대로 벙커와 티박스를 복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극적인 벙커와 높은 티박스로 골퍼들의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킨다. fairmont.com/jasper

5위

노바스코샤 주 잉고니시 해변에 자리한 케이프 브레튼 하이랜드 링크스 Cape Breton Highlands Links는 거친 매력을 품고 있다. 페어웨이는 골프의 기원으로 알려진 스코틀랜드의 지형과 매우 유사하다. 캐나다 골프장 설계자로서 명성이 자자한 스탠리 톰슨의 "골프 코스는 자연을 닮아야 한다"는 철학이 담겨 있다. golffairmont.com

6위

온타리오 주 무스코카 베이 리조트의 골프장은 풍경과 난이도가 조화로운 균형을 이룬 코스로 유명하다. 고도 변화가 크고 페어웨이의 기복이 심한 편. 모든 골퍼의 도전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muskokabayresort.com

7위

'가성비' 골프장을 찾는다면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캠푸스의 토비아노 골프 코스를 추천한다. 캠푸스 호수를 배경으로 한 오프닝 티샷과 광활한 협곡 위에서 치는 13번 홀의 티샷이 특히 인상적. 6번 홀은 사막에 걸쳐 있어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낸다. tobianogolf.com

8위

와인으로 유명한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오카나간 밸리로 향하다 보면, 프레데터 리지 리조트가 나타난다. 가을에는 쾌적한 날씨가 이어져 골프를 치기 딱 좋다. 골프장은 오카나간 호수가 보이는 완만한 언덕 사이에 자리 잡은 개방감이 장점이며, 기복이 심한 그린을 지닌 프레데터 코스와 고도 변화가 드라마틱한 리지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predatorridge.com

9위

퍼셀 산맥을 배경으로 한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그레이울프 골프 코스. 마치 높은 산속에서 골프를 치는 듯하다. 시그너처는 6번 홀로 계곡을 넘기는 아일랜드 그린 코스다. 티박스에 서서 산 정상을 향해 티샷을 날릴 수 있다. greywolfgolf.com

10위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휘슬러는 스키 리조트로 유명하지만 가을에는 골프를 즐기기도 좋다. 휘슬러 북쪽에 있는 빅스카이 골프 클럽에서 페어웨이 너머의 우람한 커리 산 Mt. Currie를 바라보며 골프를 쳐보자. 14번 홀에서 커리 산을 바라보며 드라이버 샷을 치면 탁 트인 하늘로 공이 날아가 마음마저 개운하다. bigskygolf.ca



캐나다의 가을로 들어가는 문

6

시닉 드라이브

가을 풍광이 펼쳐지는 도로를 달리며 신나게 유람한다.



캐나다 횡단기

캐나다 동부와 서부를 섭렵하는 드라이브 코스.

캐나다에서 가장 길고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는 단연코 캐나다 횡단 고속도로 Trans-Canada Highway를 따라 달리는 것.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빅토리아에서 시작해 뉴펀들랜드 앤 래브라도 주 세인트존스에서 끝나는 여정이다. 밴쿠버, 밴프 국립공원, 토론토, 오타와, 퀘벡 시티, 몬트리올, 그로스몬 국립공원 Gros Morne National Park 등지를 모두 다 둘러보며 캐나다 동부와 서부를 섭렵할 수 있다. 여행을 하는 동안 만날 수 있는 풍경과 도시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2주 이상의 넉넉한 시간뿐. 추천하는 코스는 한 달간 태평양에서 대서양 연안까지 여행하는 것.

📍 7821km 📅 4~10월

📌 유권 준주 및 노스웨스트 준주도 여정에 포함한다면 2~4주 정도 더 여유롭게 잡는 것이 좋다.



원 앤 온리

유일무이한 고속도로.

덴스터 하이웨이 Dempster Highway는 캐나다에서 북극권까지 이어지는 유일한 고속도로이자 도로에 휴게소도 단 하나다. 숙소와 음식점도 하나뿐으로 주유소와 같이 붙어 있다. 황량하면서도 너른 자연 속에 오직 길만 있는 듯한 고독한 풍경을 자아낸다. 특히 가을에는 단풍으로 가득하다. 다른 계절에 비해 가을을 추천하는데 봄에는 별레가 많아 불편하고, 여름에는 여행객이 몰린다. 겨울은 눈이 쌓이고 도로에 빙판이 생겨 위험한 편이다. 준비를 단단히 한다면 캐나다의 야생과 가장 가까이 닿을 수 있는 시닉 드라이브 코스다.

📍 700km 📅 5~10월

📌 화이트호스에서 출발하여 덴스터 하이웨이를 따라서 북극해에 위치한 토크톡Tuktoyaktuk까지 갈 수 있다. tuktoyaktuk.ca

📌 안전제일

- 📌 절대 주차하면 안 되는 구역이 있다. 소화기, 교차로, 버스정류장 근처와 횡단보도.
- 📌 운전 중에는 무엇을 먹거나, 내비게이션을 조작해서는 안 된다. 신호 대기 중에도 금물이다.
- 📌 스톱 Stop 사인을 보면 사람이거나 차가 없더라도 무조건 정지한 뒤, 다시 출발해야 한다.
- 📌 주유소가 생각보다 흔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주유를 해야 한다.
- 📌 우회전 금지 구역을 잘 살펴보자.
- 📌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가 지나갈 때는 무조건 길을 터주어야 한다.

© Tourism Nova Scotia / Photographer: Adam Hill



© Destination BC/Blake Jorgenson



태평양을 품 안에

태평양 연안을 달리며 바다를 마주하다.

시투스카이하이웨이

여행이 짧아서 짧은 드라이브를 즐겨야 한다면 밴쿠버와 휘슬러를 연결하는 시투스카이 하이웨이 Sea to Sky Highway를 고르자. 이 고속도로는 두 시간이 채 안 걸리는 짧은 거리다. 특히 해안을 따라서 이어지는 코스를 따라가면 캐나다 서부의 아름다운 해변을 감상할 수 있다. 5월과 9월 사이에 여행하기 좋으며, 도중에 화이트클리프 공원 Whytecliff Park, 새넌 폭포 Shannon Falls, 브리티시콜롬비아 광산 박물관 Britannia Mine Museum에 들러보자.

📍 163km 📅 7~9월

📌 높은 곳에서 캐나다의 가을 풍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시투스카이 곤돌라를 타는 것도 추천한다.

seatoskygondola.com

밴쿠버섬

밴쿠버섬은 캐나다에서 기후가 가장 온화한 지역이어서 여행을 다니기 좋다. 해안가를 따라서 이어지는 도로를 달리면서 바다와 가을 풍경을 즐기다 보면 어느새 밴쿠버섬의 매력에 빠져들게 된다. 굴곡진 해안도로를 따라 천천히 운전해야 하지만 오히려 밴쿠버섬의 풍경을 만끽하기에 최적이다. 밴쿠버섬에는 곳곳에 하이킹 코스도 잘 마련되어 있어 드라이브를 하다가 짐을 풀고, 자연을 온몸으로 체험해볼 수도 있다. 캐나다 국립사적지로 지정된 부차드 가든 Butchart Garden에 들려 가을이 내려앉은 정원을 거닐어보자. 밴쿠버섬의 여러 도로 중에서도 대표적인 해안 도로는 포트 하디와 빅토리아 Victoria를 연결하는 19A 고속도로가 있다.

📍 123km (19A 기준) 📅 3~5월, 9~11월

📌 부차드 가든은 900종의 식물, 26개의 온실이 있는 정원이다. 가을밤에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진다.

Butchartgardens.com



© Destination BC/Hubert Kang



© Parks Canada / Rogier Gruys



국립공원 달리기

로키 산맥을 품은 알버타 주의 국립공원 드라이브 코스.

짧고 아름다워, 미네완카 루프

가을의 밤하늘을 즐길 수 있는 짧은 드라이브 코스
미네완카 루프. 저녁 식사를 든든하게 챙겨먹고서
14.5km의 순환 코스를 차를 타고 달려보자. 운이
좋으면 미네완카 호수 위에 떠오르는 오로라를 볼 수도
있다. 밤이 지나 아침이 다가오면 일출 명소인 투 잭
호수 Two Jack Lake에서 떠오르는 해를 기다려보자.

🚗 14.5km

📌 다양한 야생동물을 만날 수 있으므로 주위 풍경을 잘
살펴보자.

야생과 가까이, 보우 밸리 파크웨이

풍경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야생동물을 운전하면서
멀리서 관찰하고 싶다면 보우 밸리 파크웨이로
향하자. 레이크 루이스로 가는 길이기도 한데, 풍경이
아름답기로 소문이 자자하다. 도로 중간에 있는 피크닉
장소에서 점심을 먹거나 하이킹을 할 수도 있다.

🚗 49.2km

📌 자연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캠핑을 선택할 수도
있다. 캠핑을 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 웹사이트에서
예약해야 한다. parks.canada.ca



© Dave Lieske @davey_gravy



자꾸 멈추게 된다

로키 산맥부터 카우보이까지, 잠시 멈춰 돌아보게 된다.

아이스필드 파크웨이

아이스필드 파크웨이 Icefields Parkway는 밴프
국립공원과 재스퍼 국립공원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다.
233km에 달하는 도로 주변에는 거대한 산과 폭포,
호수와 강, 빙하에 이르기까지 경이로운 자연 풍경이
늘어서 있다. 단순히 밴프에서 재스퍼까지 운전해서
간다고 하면 3~4시간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중간에
내려 짧게 하이킹을 하거나 사진을 찍기 좋은 장소까지
생각한다면 하루 종일도 모자라다. 특히 인기 좋은
장소는 레이크 루이스, 페이트 레이크 Peyto Lake,
컬럼비아 아이스필드 Columbia Icefield, 선왕타
폭포 Sunwapta Falls, 애서베스카 폭포가 있다.
6월부터 9월 사이가 날씨가 좋아 여행하기 제일 좋다.
그러나 비 오는 가을 정취를 좋아한다면 10월에
하는 드라이브도 낭만적이다. 캐나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시닉 드라이브 코스 중 하나다.

🚗 232km 🗓 6~9월

📌 밴프 타운에는 정통 인도 음식, 일본 음식, 채식 등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이 많다. 그래서
미식과 풍경 모두 즐기기가 좋다.

카우보이 트레일

카우보이 트레일 Cowboy Trail은 에드먼튼에서
미국까지 이어지는 22번 고속도로를 의미한다. 길이는
총 574km에 달한다. 이 도로를 이용하면 캘거리에서
여행을 시작할 수 있는데, 캘거리의 다양한 볼거리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카우보이 트레일을 타고 긴 거리를
달리다 보면 유난히 아름다운 풍경이 나오는데, 브래그
크릭, 핀서 크릭 Pincher Creek을 지나 워터튼
레이크 Waterton Lake에 도착하는 구간이다.
캘거리에서 시닉 드라이브를 즐기기에 가장 좋은
코스다.

🚗 574km 🗓 5~10월

📌 2번 고속도로를 통해 캘거리로 돌아간다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헤드 스매시드 인 버팔로 점프 Head
Smashed in Buffalo Jump에 들려보자. 블랙풋
선주민이 바이슨을 사냥하던 장소다.



© Rebecca Bollwitt @miss604



© Pursuit / Mike Seehagel



© Stevin Tuchiwsky @stevint

AB 숨은 드라이브 코스
알버타 주에 숨겨진 가을
풍경을 찾아보자.



© Erik McRitchie @erikmcr

캐나다스키스컨트리
캘거리 외곽에서 동쪽으로 차를 몰고 나가면 9개의
주립공원과 다양한 야생동물들을 만날 수 있다. 가을
풍경을 감상하거나 직접 모험에 뛰어들 수도 있다. 차로
운전하는 재미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둘러봐도
좋다.
① 캘거리 300km
② **추천 일정** 암누스카 울프독 보호구역Yamnuska
Wolfdog Sanctuary - 캔모어Canmore -
스프레이 밸리Spray Valley -
엘보 폭포Elbow Falls - 바운더리 랜치Boundary
Ranch - 그로토 캐년Grotto Canyon

캐나다안배드랜즈
캐나다안 배드랜즈Canadian Badlands의 암석층은
가을이 되면 더욱 도드라진다. 지질학적으로 다양한
암석이 쌓여 있고 화석층이 있는 지역을 지나갈 수 있다.
그리고 레드 디어 강Red Deer River을 따라 운전해
가면서 가을 풍경을 눈에 가득 채우자. 마지막에는
로즈데일 현수교Rosedale Suspension
Bridge에서 차 안에서는 보지 못했던 알버타 주의
가을을 온몸으로 느껴보자.
③ 캘거리 230km
④ **추천 일정** 로얄 티렐 박물관Royal Tyrrell
Museum - 호스쇼어 캐니언Horseshore
Canyon - 호스티프 캐니언Horsethief Canyon -
웨이인Wayne - 후두스Hoodoos

봄타운 트레일
캘거리와 에드먼튼 사이를 고속도로가 아니라 다르게
지나갈 수 있는 시닉 드라이브 코스다. 사람이 덜
다니기 때문에 풍경을 더욱 여유롭게 볼 수 있다. 버팔로
호수에서는 따뜻한 수온 덕분에 따뜻하게 물놀이를 할
수도 있다.
⑤ 에드먼튼 482km
⑥ **추천 일정** 포트 에드먼튼 공원Fort Edmonton
Park - 캔모어 철도역 박물관Canmore Railway
Station Museum Archives and Cafe -
로스 샌드 주립공원Rochon Sands Provincial
Park - 드라이 아일랜드 버팔로 점프 주립공원Dry
Island Buffalo Jump Provincial Park -
포트 캘거리Fort Calgary



호수를 따라서
마치 바다 같은 온타리오 주의 호수를 따라 달린다.

조지안 베이해안로
온타리오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꼽는다면 조지안
베이해안로Georgian Bay Coastal Route이다.
캐나다 동부의 호수를 한번에 즐길 수 있는 드라이브
코스이기 때문. 호숫가를 따라서 2000km 넘게
달리다 보면 동부의 아름다운 풍경을 차창 가득
담을 수 있다. 브루스 반도Bruce Peninsula, 패리
사운드Parry Sound, 킬라니 주립공원Killarney
Provincial Park 등이 주요 여행지. 더 웅장한
풍경을 보고 싶다면 세계 최대 담수섬인 마니투린
섬Manitoulin Island, 세계 최대의 담수 호반인
와사가 비치Wasaga Beach를 방문해보자.
⑦ 2000km 5~10월
⑧ 운전해 해서 직접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갈 수도 있다. 가을 풍경을 즐기고, 크루즈를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 여행을 즐길 수도 있다.

레이크슈페리어서클투어
미국 5대 호수 중에서도 가장 큰 슈페리어 호수는
미국과 캐나다에 걸쳐 있다. 이 호수 주변 도로를
일주하는 레이크슈페리어서클투어Lake Superior
Circle Tour는 지방 고속도로를 따라서 슈페리어
호수를 여행하는 코스다. 온타리오 주에서 달릴 수
있는 도로는 수생마리에서 출발하는 17번 고속도로와
캐나다 횡단 고속도로가 있다. 일주를 하다 보면 여러
주립공원이 나오는데 시간을 들여 방문해보자. 가을
만한 국립공원으로는 레이크슈페리어주립공원Lake
Superior Provincial Park, 슬리핑 자이언트
주립공원Sleeping Giant Provincial Park, 루비
레이크 주립공원Ruby Lake Provincial Park
등이 있다. 캠핑이나 하이킹을 하고, 슈페리어 호수를
바라보며 망중한을 즐길 계획을 필수로 세워보자.
⑨ 300km 5~10월
⑩ 슈페리어 호수 속에 빠진 난파선을 보기 위한 스쿠버
다이빙 투어도 있다.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벌어진
전쟁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장소다.



© Destination Ontario



© Destination Ontario



자연 그리고 문화

퀘벡 주 여행의 즐거움엔 끝이 없다.

몬트리올에서 가스페 반도까지

퀘벡 주 일대를 둘러보기에 가장 좋은 드라이브 코스다. 몬트리올에 도착해 도시 여행을 충분히 즐긴 다음, 풍경이 아름다운 도로를 따라서 떠나보자. 이 도로는 세인트로렌스 강을 따라 이어지는데, 몬트리올에서 시작해 퀘벡 시티를 경유해 가스페 반도까지 이어진다. 퀘벡 주의 주요 도시들을 경유할 수 있고, 페르세 바위Percé Rock, 가스페시국립공원Gaspésie National Park 등에 둘러봐도 좋다. 도시의 화려함과 시골의 평화로움을 함께 즐겨보자.

📍815km 🗓6~9월

① 몬트리올에서는 스카이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1만3500피트 상공에서 뛰어내리며 캐나다의 가을을 눈에 담을 수 있다. Parachutemontreal.ca

루트 138

노스쇼어에 있는 경치 좋은 코스다. 세인트로렌스 강을 따라 880km에 달하는 도로로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한다. 특히 이 길에는 고래의 길Whale Route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13종의 고래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혹등고래, 대왕고래를 만날 수 있다. 특히 9월에는 예외 없이 고래를 볼 수 있다. 가을 풍경

속에 녹아든 고래와 세인트로렌스 강을 만나보자.

1. 본 데지르 관측센터Cap de Bon-Désir Interpretation and Observation Centre에서 고래를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다.
2. 세인트로렌스 강의 푸앵트 데 몽트Pointe-des-Monts 등대에서 등대지기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3. 세틸 제도Sept-Îles archipelago에서 철새들을 관찰할 수 있다. 캐나다 동북부 해안에 찾아온 가을 풍경을 담아오자.

루트 132

퀘벡의 아름다운 지역을 연결하는 470km의 코스다. 퀘벡 지역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골고루 눈에 담을 수 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 외에도 유적지와 다양한 종류의 박물관이 있다. 그중에서도 바다와 관련된 장소가 많은데, 이 드라이브 코스의 별명은 항해사의 길이다. 가족과 함께 캐나다 가을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면 루트 132 코스에서 가족 모두 가을로 뛰어들어보자.

1. 퀘벡 해양 박물관에 전시된 다양한 배를 관람할 수 있다. 아이들을 위해 인터랙티브 전시가 준비되어 있는데, 쇄빙선을 몰면서 얼음이 깨지는 소리, 엔진실

소음 등을 들을 수 있다.

2. 퀘벡의 생물 다양성 센터에 방문해보자. 여우 털을 만지고, 젖은 풀 냄새를 맡는 등 퀘벡의 자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로 가득하다.
3. 생장포르줄리Saint-Jean-Port-Joli에서 가족들과 든든한 식사를 할 수도 있다. 또한 이 마을에서는 9월에 바이올린 연주 축제가 열린다.

피오르 루트

사계제 피오르Saguenay Fjord에서 협곡을 채운 가을을 만끽하자. 235km의 도로를 달리며 가을이 내려앉은 피오르를 감상할 수 있다. 몬트리올에서는 5시간, 퀘벡 시티에서는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다. 차에 앉아서 풍경만 감상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계곡안으로 들어가 직접 그 가을의 풍경이 될 수도 있다. 라 마졸렌La Marjolaine 크루즈를 타고서 피오르를 살펴볼 수 있다. 크루즈 예약은 navettesdufjord.com에서 하면 된다.

1. 피오르 박물관Fjord Museum에서 사계제 피오르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을 만나보자.
2. 랑스생장L'Anse-Saint-Jean의 풍경을 바라보는 파노라마 투어에 참가해 목조 주택이 만드는데 독특한 풍경을 감상하자. tourisme.lanse-saint-jean.ca
3. 카프 자죄Cap Jaseux에서 밧줄다리, 공중 밧줄타기 코스, 카약, 보트, 암벽등반 등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즐겨보자.



© Tourism Nova Scotia / Photographer: Tom Cochrane



© Tourism PEI / Sander Meurs



아틀란틱 캐나다

아직 우리에게 덜 알려진 캐나다 대서양 연안의 무궁무진한 매력.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주, 해안 드라이브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주에는 아름다운 해안을 끼고 도는 드라이브 코스가 많기 때문에 무엇을 하나 고르기가 어렵다. 그중에서 꼭 골라야 한다면 세 가지 코스를 손에 꼽을 만하다. 첫째, 노스 코스트 해안 드라이브North Coast Coastal Drive에서는

믹웨이크 선주민 문화를 느낄 수 있다. 그리고감자 박물관이나 하이랜드 예술 대학도 둘러볼 수 있다. 두 번째, 센트럴 해안 드라이브Central Coastal Drive에서는 붉은색 모래로 유명한 레드 샌드 쇼어Red Sands Shore와 빨간 머리 앤Anne of Green Gables의 배경이 되는 그린 게이بل 쇼어Green Gable Shore를 둘러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포인트 이스트 해안 드라이브Points East Coastal Drive다. 이곳에서는 공원, 산책로, 등대를 살펴보자.

📍각350km, 253km, 475km 🗓6~9월

노바스코샤 주, 캐벗 트레일

캐나다 동부 해안에서 손꼽히는 시닉 드라이브 코스다. 노바스코샤 주 케이프 브레튼 해안을 따라 달리는 캐벗 트레일은 캐나다에서 가장 유명한 로드 트립 코스 중 하나다. 300km에 달하는 이 도로는 대부분이 해안선을 따라 이어져서 바다 풍경을 보면서 달릴 수 있다. 이 코스 중간에는 하이킹으로 유명한 케이프 브레튼 하이랜드 국립공원이 있다. 가장 인기 있는 하이킹 코스는 대서양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고지대로 오를 수 있는 스카이라인 트레일이다. 대서양 가까이 달리고, 하이킹 코스 정상에서 대서양을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코스다. 그래서 드라이브만 한다면 3~4시간 정도의 코스지만 숙박 일정까지 잡는 것이 좋다. 캐나다에서 가장 유명한 동부 해안 드라이브 코스다.

📍300km 🗓6~10월

① 9월까지는 대체로 청명한 날씨라서 여행을 하기 좋다. 그러나 가을의 상징인 단풍을 보기 좋은 시기는 10월이다.

뉴펀들랜드 앤 래브라도 주, 바이킹 트레일

캐나다에 바이킹과 연관이 있는 지역이 있다. 뉴펀들랜드 앤 래브라도 주의 바이킹 트레일은 바이킹의 흔적이 남아 있는 드라이브 코스다. 이곳은 천 년이 된 바이킹 정착지 유적이 남아 있다. 랑스 오메도우 국립역사지구L'Anse aux Meadows National Historic Site에서 11세기에 정착한 바이킹의 역사적 유적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바이킹 트레일 코스의 시작점인 그로스몬 국립공원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맨틀 위를 걸어볼 수 있는 장소가 있다. 그로스몬 국립공원에서는 내륙 피오르, 험준한 산, 우람한 절벽 등 거친 자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문명과 지구의 초창기를 살펴볼 수 있는 드라이브 코스다.

📍526km 🗓6~10월

① 그로스몬 국립공원에서 묵는다면 트라우트 강Trout River이 내려다보이는 속스 셰퍼드 B&B를 추천한다. 언덕 꼭대기에 사방이 트여 360도로 전망을 즐길 수 있다. sheppardsbandb.com



© Frenette, Jean-François

캐나다의 가을로 들어가는 문

7

월빙

캐나다의 대자연 속에서
건강한 심신을 되찾고
삶에 활력을 더한다.

AB NS **하늘에 비친 우주**
쏟아지는 별빛, 맑아지는 심신.

알버타주, 재스퍼 국립공원
캐나다에서 가장 큰 밤하늘 보호구역인 재스퍼 국립공원. 가을에는 재스퍼 다크 스카이 페스티벌 Jasper Dark Sky Festival이 열린다. 인기 있는 행사인 심포니 언더 더 스타즈 Symphony Under the Stars 티켓을 구입하면, 에드먼튼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감동적인 선율 속에서 별밤에 빠져들 수 있다. 무료 프로그램인 사이언스페스트 Sciencefest에서 국립공원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시연이 가득 찬 거대한 과학 실험실로 변신한다. 외계 생명체 또는 천체 사진 촬영 등 관심 분야가 무엇이든 천문학자와 우주 비행사 같은 인상적인 연사들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jasperdarksky.travel

노바스코샤주, 토르 베이
노바네이처 어드벤처스는 노바스코샤 주의 동부 해안에 자리한 작은 만 토르베이 Tor Bay의 밤하늘을 감상하는 투어를 제공한다. 오후 8시 30분에 시윈드 랜딩 컨트리 인 Seawind Landing Country Inn에서 별자리 지도를 보고 밖으로 나가 밤하늘을 탐험한다. 별자리에 대해 배우고, 망원경과 쌍안경으로 달이나 행성을 관찰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 아름다운 토르 베이를 바라보며 야행성 야생동물도 관찰할 수 있다. 투어를 이끄는 스티븐 Stephen은 그가 만난 우주 비행사와 외계 행성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이야기도 들려준다. novanatureadventures.ca

© Parks Canada / Ryan Bray

CA **인생 온천**
여독을 풀어줄 캐나다식 온천.



© Destination BC/Kari Madig



© Fairmont

유콘 준주, 이클립스 노르딕 핫스프링스
유콘에 서식하는 식물을 활용한 샤워로 시작해 온욕, 냉욕, 휴식의 과정을 반복하는 노르딕 테라피를 경험할 수 있다. 온수로 가열한 난방 타일을 활용한 릴렉스 룸은 대화 금지 구역으로 깊은 휴식을 취하기 좋다. 메디테이션 솔라리움 Meditation Solarium에서는 유콘의 음악가가 창작한 아름다운 음악과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일광욕을 즐겨보자. 무료 요가 및 명상 수업도 진행한다. eclipsenordichotsprings.ca

사스카추안주, 마니투 비치
캐나다 버전의 사해인 리틀 마니투 호수 Little Manitou Lake에서 독특한 온천욕을 할 수 있다. 호숫물의 염분 함량이 리터당 180g에 달하는데 이는 사해의 절반에 해당하는 염도로 사람의 몸을 등등 띄운다. 마그네슘과 칼륨 등 미네랄 함량도 높아 건강에도 좋다고. 과거 선주민은 이 호수로 아픈 사람을 데려와 물에 담그며 치유 의식을 행했다고 전해진다. 게다가 종종 오로라도 찾아온다. tourismsaskatchewan.com

알버타주, 밴프 어퍼 핫스프링스
1886년부터 운영한 밴프 어퍼 핫스프링스 Banff Upper Hot Springs는 북미에서 가장 높은 고도에 위치한 온천으로 설퍼 산 정상 부근인 해발 1585m에 자리한다. 야외 온천에서 캐나다인 로키를 이루는 런던 산과 캐스케이드 산의 들쭉날쭉한 봉우리를 바라보면 피로가 절로 풀린다. 무엇보다 캐나다 공원관리국 Parks Canada이 소유해 연중무휴

운영하는 것이 큰 장점. hotsprings.ca/banff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레디움 핫스프링스
쿠트니 국립공원 내에 있는 이곳에서 싱글레어 캐년 Sinclair Canyon의 붉은 절벽을 감상하며 몸을 이완해보자. 11월에 방문하면 이곳에 서식하는 큰뿔양을 주제로 한 헤드뱅어 페스티벌 Headbanger Festival에 참여해 가을을 만끽할 수 있다. radiumhotsprings.com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페어몬트 핫스프링스 리조트
캐나다 최대 천연 미네랄 온천이다. 여러 샘에서 분출하는 온수를 사용해 39°C의 소형 풀, 32°C의 대형 풀, 30°C의 다이빙 풀 등이 있다. 해독을 돕는 성분인 라듐, 염화칼륨, 황산칼슘, 중탄산칼슘, 황산마그네슘 등이 용해되어 있어 몸을 담그면 편안해진다. 방문객은 데이패스로 이용 가능하며, 투숙객만을 위한 전용 온천 등도 마련되어 있다. fairmonthotsprings.com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에인스워스 핫스프링스 리조트
크투나하 Ktunaxa 선주민 일원인 야카누키 Yaqan Nukiy가 소유한 이 천연 온천은 수천 년 동안 몸과 마음, 영혼에 좋은 약으로 여겨졌다. 따스한 온천을 즐기고 스피릿 워터 스파 Spirit Water Spa에서 마사지를 받으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보자. 동시에 이곳 선주민의 전통과 정체성을 느낄 수 있다. ainsworthhotsprings.com



© Tourism Saskatchewan/Carey Shaw Photography



© Cariboo Chilcotin Coast, Michael Bednar

CA **침팬에 머물다**
깊은 자연 속 로지에서
침팬를 찍는다.

퀘벡 주, 독창적인 숙소
퀘벡 주에는 독특한 숙박시설이 다수 존재한다. 나무 위의 집에서 숲의 소리에 귀 기울이거나 늑대나 순록 같은 야생동물의 숨결을 느끼거나 유적이던 등대처럼 역사의 한가운데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것. 이외에도 대형 트럭, 유리 돔, 이글루 등 독창적인 숙소가 기다린다. 캐나다 최초의 잠수함인 온노다가 Onondaga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다. bonjourquebec.com/en/plan-your-trip/where-to-stay/non-traditional-accommodation

온타리오 주, 한적한 치유
원시적 자연에 파묻힌 캐빈에 머무는 것은 동화 같다. 킹스턴 인근 야생에서 시작해 헬리버튼 Haliburton과 오타와 밸리까지 온타리오 남동부 전역에

캐빈스케이프Cabinscape가 운영하는 35개의 오투막이 흩어져 있다. 전략적으로 하이킹 코스, 숲 및 호수 전망을 최대한 활용해 설계되었다고. 오지에 있지만 냉장고와 히터 등 모든 현대적인 편의 시설을 갖추었으며, 태양열로 구동되어 자연 친화적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온타리오 주의 코티지 문화를 맘껏 누릴 수 있다. cabinscape.com

노스웨스트 준주, 오로라와 함께
로지에 머물며 하늘 위로 오로라가 춤추는 모습을 보는 것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다. 노스웨스트 준주의 가을은 8월 초부터 9월 말까지로, 낮에는 낚시 등을 즐기고 밤에는 오로라를 감상할 수 있다. 특히 호수가에 자리한 로지는 수면에 반영된 오로라까지 볼 수 있어 그 감동이 배가 된다. 도시의 불빛에서 멀리 떨어져 북극권에 접해 있는 피터슨스 포인트 레이크 로지 Peterson's Point Lake Lodge에서는 오로라 관측뿐 아니라 송어 낚시, 전문 가이드가 진행하는 사진 워크숍 등이 포함된 패키지 투어를 운영한다. 역시 비행기로만 닿을 수 있는 스파크스 레이크 로지 Sparks Lake Lodge는 일주일에 단 8명의 손님만 받는다.



© 2023 Baillie Lodges

이곳에서 강꼬치고기의 일종인 노던파이크 northern pike 낚시도 즐길 수 있다. 이외에도 소박하고 정통한 캐빈부터 고급스럽고 현대적인 로지까지 다양한 선택지를 살펴보자. spectacularnwt.com/what-to-do/aurora/aurora-lodges



© 2023 Baillie Lodges

BC **스테이케이션**
머무는 것만으로도 휴식이 된다.

샌드파이버 리조트
해리스 밀스 Harrison Mills의 해리스 강 유역에 웅장하고 유서 깊은 영국식 저택. 다양한 객실뿐 아니라 아늑한 가을을 누릴 수 있는 캐빈도 마련되어 있다. 10월 중순에는 워버 크릭 스포닝 채널 Weaver Creek Spawning Channel에서 연어의 산란 활동을 관찰할 수 있다. 프레이어 밸리의 가을을 기념하는 포트 랭글리 크랜베리 축제 Fort Langley Cranberry Festival 등에 참여해보자. 주변 지역 탐험을 마친 후에는 스파도 좋은 선택. 18홀의 골프 코스는 1년 내내 운영한다. sandpiperresort.ca

소노라 리조트
태평양 북서부 디스커버리 군도에 자리한 소노라 리조트는 1979년 소박한 낚시 산장으로 시작해 오늘날 야생의 럭셔리 휴양지로 유명해졌다. 소용돌이치는 급류 속에서 연어를 낚시하고 그리즐리 베어를 관찰하는 등 다양한 모험이 준비되어 있다. 흰머리수리와 잔점박이물범 등이 바다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 유쿨타 래피즈 Yuculta Rapids에 자리한 타이 다이닝 룸 Tyee Dining Room에서는 가을에 수확한 유기농 농산물과 갓 잡은 해산물 등으로 차려낸 창의적인 요리가 펼쳐진다. 400여 종의 와인 중 소믈리에의 세심한 페어링도 인상적. 밴쿠버에서 비행기로 50분 거리이며, 5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운영한다. sonoraresort.com

클레요쿼트 월더니스 로지
밴쿠버 섬의 클레요쿼트 해협 생물권보전지역 Clayoquot Sound Biosphere Reserve에 자리한다. 현지 장인이 만든 25개의 캔버스 텐트는 그 자체로 작품인 동시에 현대적인 인테리어를 갖춘 고급스러운 기지. 암벽등반, 양궁, 헬기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데 특히 맑은 베드웰 강 Bedwell River의 찬물에 몸을 담그며 마음 챙기는 법을 수련하는 프로그램을 추천한다. 오랜 숲에 자리한 힐링 그라운드스 스파 Healing Grounds Spa는 삼나무 온수 욕조를 갖추어 치유의 장이 된다. clayoquotwildernesslodge.com

트위즈뮤어 파크 로지
벨라콜라의 아트나르코 강 바로 옆에 위치한다. 가을이면 그리즐리 베어가 좋아하는 먹잇감인 연어가 산란을 위해 찾아오는 곳이다. 덕분 로지 부지 내 와일드라이프 뷰잉 플랫폼 Wildlife Viewing Platform에서도 공을 관찰할 수 있다. 숙련된 가이드와 함께 강을 따라 보트를 타면서 공이 연어를 잡아먹는 순간도 포착할 수 있다. 이외 단풍으로 물든 가을의 절경을 만끽할 수 있는 비아페라타(절벽에 설치된 케이블에 카라비너를 연결해 오르는 안전한 등반) 등을 즐겨도 좋다. 현지의 재료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요리한 음식도 일품. tweedsmuirparklodge.com

코워찬 리버 로지
밴쿠버 섬의 코워찬 지역을 탐험하기 좋은 이곳에서 다양한 낚시 패키지도 체험할 수 있다. 코워찬 강에는 갈색송어, 무지개송어, 연어 등이 가득하다(낚시한 후에는 모두 풀어주어야 한다). 슈메이너스 강 주립공원 Chemainus River Provincial Park과 코워찬 강 주립공원 Cowichan River Provincial Park을 산책하며 가을 단풍을 만끽해도 좋다. 코워찬 밸리의 비옥한 풍경에 흠뻑 젖어 있는 수많은 농장과 양조장, 와이너리 등을 둘러보며 며칠을 보낼 수도 있다. thecowichanriverlodge.com

콰아웃 로지 & 스파 앳 토크 록 골프 리조트
캠러스 북동쪽 리틀 슈스왓 Little Shuswap 호수 기슭에 자리한 콰아웃 로지 & 스파 앳 토크 록 골프 리조트 Quaaout Lodge & Spa At Talking Rock Golf Resort. 전용 발코니나 파티오에서 아름다운 산과 호수의 전망을 감상할 수 있다. 선주민 전통에 영감 받은 레7케 스파 Le7ke Spa에서 치유의 시간을 보낸 다음 잭 샘스 Jack Sam's에서 호수를 바라보며 현지 요리를 음미하자. 츠츠웨크 주립공원 Tsútsuwecw Provincial Park의 아담스 강 Adams River에서 북미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홍연어의 유영을 구경하는 것도 필수. 이는 슈스왓 지역의 주요 가을 활동이다. quaaoutlodge.com

리자드 크릭 로지
로키 산맥이 내려다보이는 이곳의 야외 수영장과 온수탕은 최고의 전망을 자랑한다. 로키의 만년설과 황금빛 라치가 아름다운 풍광을 그리기 때문. 엘크 밸리 트레일, 퍼니 산 주립공원 Mount Fernie Provincial Park, 페어리 크릭 폴스 Fairy Creek Falls 등 퍼니의 하이킹 코스 중 하나를 탐험해보자. 이후 퍼니 브루잉 컴퍼니 Fernie Brewing Co.에서 제철 에일을 들이켜면 그제 바로 가을의 맛! lizardcreek.com

라운드 레이크 리조트
벌클리 밸리 Bulkley Valley의 단풍이 우거진 숲 호수가에 자리한 캐빈에서 새소리를 들으며 평온함을 느낄 수 있다. 모터 없는 조용한 배를 타고 호수에서 송어 낚시를 해보자. 근처 드리프트우드 캐년 주립공원 Driftwood Canyon Provincial Park도 풍경이 매우 아름답다. roundlakeresort.com

베커스 로지
카리부 Cariboo 지역의 보린 호수 주립공원 Bowron Lake Provincial Park에 자리한 통나무집으로 1933년에 지어졌다. 이곳에서 낚시, 카누, 카약, 하이킹 등을 즐길 수 있는데 특히 보린 호수 카누 서킷에서 노를 젓기 위해 많은 이들이 방문한다. beckerslodge.ca



캐나다의 가을로 들어가는 문

8

미식 예찬

다양성을 존중하는 캐나다는 요리에도 그 가치가 반영되어 있다. 가을이면 한층 풍요롭게 변모하는 캐나다의 풍미를 탐험해보자.



BC ON 미쉐린 뉴스타

2022년 밴쿠버와 토론토에 수록한 미쉐린 가이드. 2023년 가을에는 두 도시의 몇몇 레스토랑이 새롭게 미쉐린 뉴스타를 획득했다. 밴쿠버 리스트에 새롭게 등장한 오케이 큐지로는 테이블 사이로 검은 커튼이 드리운 인테리어에 걸맞은 정제된 오마카세를 선보이는 곳이다. 토론토 역시 두 개의 레스토랑이 추가됐다. 먼저 카포 사토는 계절마다 다른 식재료를 사용해 와규부터 스시, 사시미, 튀김, 홈메이드 아이스크림까지 정통 일본 요리를 사케 페어링과 함께 섬세하게 낸다. 셰프 줄리 하이드 Julie Hyde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20 빅토리아는 고급 해산물과 조개류에 초점을 맞춘 코스 메뉴를 선보인다. 미쉐린 우수 서비스 어워드까지 획득한 이곳은 와인 리스트를 선별하는 안목도 탁월하다.

MICHELIN STAR LIST

- 밴쿠버
- ★ AnnaLena (컨템퍼러리)
 - ★ Barbara (컨템퍼러리)
 - ★ Burdock & Co (컨템퍼러리)
 - ★ iDen & QuanJuDe Beijing Duck House (중식)
 - ★ Kissa Tanto (일식)
 - ★ Masayoshi (일식)
 - ★ Okeya Kyujiro (일식)
 - ★ Published on Main (컨템퍼러리)
 - ★ St. Lawrence (프렌치)

- 토론토
- ★★ Sushi Masaki Saito (일식)
 - ★ Aburi Hana (일식)
 - ★ Alo (컨템퍼러리)
 - ★ Alobar Yorkville (프렌치)
 - ★ Don Alfonso 1890 (이탈리언)
 - ★ Edulis (지중해식)
 - ★ Enigma Yorkville (컨템퍼러리)
 - ★ Frilu (컨템퍼러리)
 - ★ Kaiseki Yu-zen Hashimoto (일식)
 - ★ Kappo Sato (일식)
 - ★ Osteria Giulia (이탈리언)
 - ★ Quetzal (멕시칸)
 - ★ Restaurant 20 Victoria (캐나디언)
 - ★ Shoushin (일식)
 - ★ Yukashi (일식)



CA 캐나다의 남다른 풍미

오직 캐나다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색다른 미식 경험 여덟 가지를 안내한다.

해산물 요리 배우기

노바스코샤 주에 있는 트라우트 포인트 로지의 시푸드 쿡킹 스쿨에서는 여러 세대에 걸쳐 바다의 풍요로운 해산물로 요리를 만들어온 현지인의 아카디아 전통을 전수한다. 가리비와 랍스터의 제철 시기부터 최고의 굴과 홍합을 선별하는 방법 그리고 이 식재료를 최상의 요리를 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troutpoint.com

와인 클래스 신청

온타리오 주의 나이아가라 온 더 레이크 지역은 아이스 와인이 유명한 곳으로 200개 이상의 와이너리가 있다. 와인 컨트리 쿡킹 스쿨에서는 인근에서 생산된 와인과 잘 어울리는 동시에 제철 식재료를 만든 요리를 알려준다. winecountrycooking.com

정원에서 꽃 맛보기

건축, 예술, 정원의 교차로인 퀘벡 주의 레 자르망 드 메티스 Les Jardins de Métis에서 향긋한 다이닝을 경험해보자. 유서 깊은 에스테반 로지 Estevan Lodge에서 갓 따 허브와 식용 꽃 메뉴로 구성된 식사를 즐길 수 있다. 라벤더 스프레드와 와인 식초에 담긴 청나래고사리 fiddlehead 같은 식재료를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jardinsdemetis.com

꿈의 낚시

사스카추완 주 북부에는 무게가 23kg에 달하는 송어가 서식하기에 낚시꾼이 꿈꾸는 여행지로 꼽힌다. 고급스러운 밀턴 레이크 로지에서는 기괴한 강꼬치고기, 거대한 송어, 거침없는 아틱 그레이링 arctic grayling(연어과에 속하는 민물고기)을 낚는 투어를 운영한다. 가이드가 현장에서 점심을 준비하거나 셰프가 맛있는 식사를 제공한다. miltonlakelodge.com



소고기를 맛껏

알버타 주의 켈거리는 캐나다 스테이크하우스의 중심지다. 켈거리에 '카우타운'이라는 별명이 부여된 이유도 여기 있다. 100개의 스테이크하우스가 모여 있으므로 트렌디한 버거 바나 스테이크하우스에서 다양한 소고기 요리를 맛보자. visitscalgary.com

툰드라의 맛

캐나다 북부 사람들은 '야생의 맛'을 사랑한다. 고유의 레시피로 요리한 사향소, 순록, 엘크, 훈제 북극곰들매기 artic char, 야생 크랜베리 같은 전통 요리를 맛보자. 유콘 준주의 보레알 익스플로러스 Boréale Explorers에서는 북부 음식과 함께 자전거 동력 블렌더로 제조한 마가리타 같은 이색 칵테일도 즐길 수 있다. be-yukon.com

이누이트식 만찬

투닉 타임 Toonik Tyme은 이누이트의 맛을 애호하는 이들을 위한 축제다. 누나부트 준주의 이칼루이트 Iqaluit에서 일주일간 열리는 이 소박한 축제 현장에서 툰드라 블루베리 잼을 곁들인 배너, 순록 스투, 무크툽 muktuk(고래 겹질과 지방)을 맛보는 것은 물론, 이누이트식 전통 노래와 이야기도 들어보자. tooniktyme.ca

폭풍우와 함께하는 다이닝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토피노에 위치한 럭셔리로 워카니니시 인 Wikaninnish Inn은 폭풍우 관측으로 유명하다. 6m 높이의 파도가 해안을 강타하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 더 포인트 레스토랑에서 다시 국물에 익힌 태평양 문어와 삶은 던저니스 크랩 같은 현지 별미를 음미하자. wickinn.com

© Janis Nicolay

© Rick O'Brien

© Destination Canada

© Destination Canada

© Jonathan Adediji

© Tony Lam

ON 와이너리 로드 트립

캐나다 최대의 와인 산지에서 누리는 3일간의 로드 트립은 나이아가라 온 더 레이크에서 출발해 엘로라에 도착하는 214km 여정이다.

DAY 1 나이아가라 온 더 레이크 Niagara-on-the-Lake는 나이아가라 와인 지역의 중심지다. 이 지역은 온타리오 호수와 나이아가라 절벽 Niagara Escarpment뿐 아니라 프랑스 보르도와 같은 위도에 위치한 기후대 덕분에 포도 재배에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 미네랄이 풍부한 대지와 풍요로운 녹지 그리고 잘 보존된 아름다운 건축을 배경으로 100개 이상의 와이너리가 산재한다. 그중 이니스킬린 와인 Inniskillin Wines는 '1989 비탈 아이스 와인'으로 1991년 프랑스 와인 엑스포에서 대상 격인 그랑프리 도뇌르 Grand Prix d'Honneur를 수상하며, 나이아가라 와인 지역을 주목받게 한 일등 공신이다. 온타리오는 캐나다 아이스 와인의 90%를 생산하는데,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테이스팅하고 싶다면 펠러 에스테이트 Peller Estates로 향하자. 우아한 다이닝 룸은 캐나다에서 유명한 셰프인 제이슨 파슨스 Jason Parsons가 책임지고 있다.



DAY 2 아름다운 나이아가라 절벽을 따라 펼쳐진 트윈티 밸리 Twenty Valley는 이 와인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은 곳이다. 일대의 고풍스러운 마을에는 대부분 가족이 경영하는 부티크 와이너리가 50개 이상 자리한다. 우선 1984년부터 프리미엄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 헨리 오브 펠햄 패밀리 에스테이트 와이너리 Henry of Pelham Family Estate Winery로 향하자. 케이브 스프링 셀러스 Cave Spring Cellars는 부티크 와이너리가 모여 있는 조던 Jordan 마을의 필수 코스다. 빔스빌 로즈우드 에스테이트 와이너리 & 미더리 Beamsville's Rosewood Estates Winery & Meadery는 나이아가라 절벽의 테루아를 반영하는 내추럴 와인과 독창적인 미드 mead(벌꿀로 만든 술)에 집중한다. 85년 이상의 양봉 경험 덕분에 이 지역에는 수많은 벌이 서식하고 있다.

DAY 3 이제 인근 워털루 지역으로 향할 차례. 서쪽으로 1시간만 달리면 캠브리지 Cambridge와 세인트 제이콥스 St. Jacobs, 인근 엘로라 Elora에서 온타리오가 자랑하는 특별한 미식과 문화를 두루 경험할 수 있다. 캠브리지가 자부하는 랭던 홀 Langdon Hall의 우아한 다이닝 룸은 캐나다의 유명 셰프인 제이슨 벵거터 Jason Bangerter가 총괄한다. 방문객은 잘 가꾼 채소밭을 돌아보며 레스토랑의 신선한 재료를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세인트 제이콥스 파머스 마켓에는 수십 가지의 독특한 꿀, 갓 구운 빵, 온갖 종류의 메이플 시럽, 예술품과 골동품 등 지역의 특산품이 모여 있다. 그랜드 강둑의 협곡 가장자리에 자리한 엘로라 밀 Elora Mill은 대대적인 복원과 확장을 거쳐 30개의 독특한 객실을 제공한다. 이곳의 레스토랑은 통유리 너머의 탁 트인 전망과 함께 소유 농장에서 수확한 식재료에 따라 매주 메뉴가 바뀐다.

AB 100년 만에 부활한 브루어리

알버타 주의 외딴 마을에는 한 세기 전 기억을 간직한 브루어리가 여행자를 기다린다.

알버타 동쪽 끝 마을 이름을 그대로 붙인 메디슨 햇 브루잉 컴퍼니의 기원은 100년을 훌쩍 뛰어넘는다. 1913년 마을 주민이 언제든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식 라거와 에일, 스타우트 맥주를 공급하던 이 인기 양조장은 금주운동의 유행과 맞물려 강제로 폐쇄되고 만다. 비운의 역사를 보낸 메디슨 햇 브루잉 컴퍼니는 100년 만에 다시 문을 열어 다시금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수준급 수제 맥주뿐 아니라 페어링 음식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쓴 흔적이 역력하다. 지역 문화를 경험하는 필수 요소 중 미식이 중요하다는 그들만의 철학을 고수하기 때문. 지역에서 생산된 제철 농산물부터 양조 때 사용하는 곡물을 먹인 육류까지 이곳만의 로컬 다이닝을 맥주와 함께 만끽해보자. medicinatehatbrewingcompany.ca



BC 술술 넘어간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오카나간 밸리와 휘슬러에서 열리는
술의 축제.

오카나간 가을 와인 페스티벌

겨울, 봄, 가을 계절에 따라 세 차례에 걸쳐 오카나간 와인 페스티벌 Okanagan Wine Festival을 개최하는데 하이라이트는 역시 포도 수확 철인 가을이다. 와인, 미식, 라이브 공연과 함께 이를 동안 저녁에 와인의 새 빈티지를 축하하는 아프레 크러시 Après Crush 테이스팅 시리즈를 선보이며 축제 방문객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제공한다. thewinefestivals.com

TIP

다채로운 와인 페어링을 경험하고 싶다면 테이스트 패스포트 TASTE Passport를 이용해보자. 축제에 참여하는 와이너리에서 제공하는 체험 중 여섯 가지를 선택해 심도 있는 테이스팅 세션을 즐길 수 있다.

SIDE TRIP

축제 기간이 아니라도 오카나간의 와이너리에서는 다채로운 이벤트가 준비하다. 그중 메도우 비스타 허니 와이너리 Meadow Vista Honey Wines는 지역 요리와 페어링한 특별 와인 메뉴를 준비하고 가을 칵테일, 꿀 시식, 피크닉 투어를 제공한다. 모닥불에서 굽는 스모어 로스팅도 인기 체험 중 하나다. meadowvista.ca

코누코피아

웅장한 설산으로 둘러싸인 휘슬러에서 미각을 자극하는 음식과 음료를 즐기는 축제, 코누코피아 Cornucopia를 즐겨보자. 맥주, 와인, 증류주 등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 생산된 최고의 술을 만나는 테이스팅 세션과 미식을 주제로 펼치는 세미나, 라이브 쿠킹 쇼 등 다채로운 미식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다. whistlercornucopia.com

TIP

코누코피아의 시그너처 이벤트는 단연 크러시 그랜드 테이스팅 CRUSH Grand Tasting. 태평양 북서부뿐 아니라 세계 곳곳의 와이너리를 집중 조명하는 시음 행사로 숙소와 결합한 패키지 티켓을 구입하면 보다 합리적 가격으로 테이스팅을 즐길 수 있다.





호박의 변신

온타리오 주 곳곳의 호박 농장은 축제장으로 무르익는다.

다우니 농장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4대에 걸쳐 가족이 운영해 온 칼레돈Caledon의 다우니 농장Downey's Farm에서 수천 개의 호박을 만나보자. 아이들은 마차나 자전거를 타고 농장의 동물과 교감한다. 3만m²에 달하는 옥수수 미로에서 뛰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downeysfarm.com

워너 랜치 앤 호박 농장

나이아가라 지역의 워너 랜치 앤 호박 농장에서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호박을 구경해보자. 수천 개의 조롱박, 옥수수 줄기, 건초 더미, 사과, 짚 사이에서 완벽한 헬러윈 장식을 찾을 수 있다. 옥수수 미로, 건초 더미 위에서 타는 벨기에식 마차 등도 놓칠 수 없는 즐길 거리. warnerranchandpumpkinfarm.com

다이먼트 글렌 드러먼드 농장

다이먼트 글렌 드러먼드 농장Dyment's Glen Drummond Farm에서는 10월 호박 패치 축제가 열린다. 어린이 친화적인 유령의 집, 세발자전거 트랙, 농장 놀이 공간, 9홀 미니 골프 등 다양한 액티비티에 참여할 수 있다. 재충전이 필요할 때는 푸드 트럭과 애플 누크Apple Nook에서 맛있는 음식과 음료를 즐겨보자. dyments.com

손더스 농장

오타와 남서쪽 교외에 자리한 손더스 농장에서는 헬러윈 퍼레이드와 인형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다양한 미로와 놀이터를 탐험하는 흥미진진한 활동부터 호박밭을 가로지르는 목가적인 마차 타기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다. 사이더 하우스에서 사과주 한 잔을 곁들여 하루를 마무리해도 좋다. saundersfarm.com

핍킨페르노

7000여 개의 호박 조각품이 화려한 빛으로 반짝이는 축제, 핍킨페르노Pumpkinferno. 9월 말부터 10월까지, 역사 유적지인 어퍼 캐나다 빌리지Upper Canada Village와 교도소를 개조한 박물관인 킹스턴 페니텐서리Kingston Penitentiary의 야외에서 열린다. 전시 작품은 온타리오 동부 지역의 재능 있는 젊은 예술가들이 조각한다고. 밤하늘 아래 다양한 주제로 펼쳐진 매혹적인 호박의 세계로 빠져들자!



축제의 계절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캐나다의 진가는 축제의 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다.



축제 달력

캐나다 전역의 흥미로운 가을 축제.

9월

토론토국제영화제

해마다 9월이면 토론토 다운타운은 거대한 영화관으로 변신한다. 세계 4대 영화제이자 북미 최대 영화제인 토론토국제영화제Toronto International Film Festival가 열리기 때문. 11일간 60여 개국의 300편 이상 영화를 매일 밤 레드카펫 길라와 함께 상영한다. TIFF 벨 라이트박스TIFF Bell Lightbox는 5개의 영화관과 갤러리를 갖춘 영화제의 주요 무대로 학습실과 기념품 가게 등도 자리한다. 부대행사로 열리는 페스티벌 스트리트는 모든 이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거리 축제로 야외 상영과 라이브 공연 등 영화에 관한 모든 것으로 채워진다. tiff.net

중추절

중추절Mid-Autumn Moon Festival은 가을 추수와 달을 숭배하는 의식에 뿌리를 둔 동아시아의 뿌리 깊은 축제다. 음력 8월 15일에 해당하는 올해의 중추절은 9월 17일. 밴쿠버에서 아름다운 명소 중 하나로 꼽히는 쉰원 전통 중국 정원Dr. Sun Yat-Sen Classical Chinese Garden에서 축제가 열린다. 등불로 정원 곳곳을 장식한 가운데 방문객을 위해 중국 전통 월병과 계화꽃으로 만든 술을 특별 메뉴로 내놓는다. vancouverchinesegarden.com

10월

다운타운 살럿타운 허수아비 페스티벌

아틀란틱 캐나다에서 가장 큰 허수아비 축제가 궁금하다면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주의 살럿타운으로 향하자. 10월 내내 열리는 다운타운

살럿타운 허수아비 페스티벌Downtown

Charlottetown Scarecrow Festival은 도시의 역사 유산을 배경으로 수백 개의 허수아비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여행자를 맞이할 것이다. 허수아비 투어를 비롯해 유령 투어, 심령 박람회, 으스스한 집회, 팝업 이벤트 등 이색 볼거리를 기대해도 좋다. discovercharlottetown.com/scarecrow

재스퍼 다크 스카이 페스티벌

10월 중순부터 11월 초, 밤하늘 보호구역인 재스퍼 국립공원의 중심부에서 태양의 경이로움과 별의 즐거움을 경험해보자. 재스퍼 다크 스카이 페스티벌 기간에는 스타워치는 선셋 헬리콥터 타기부터 이색적인 별 관측 이벤트까지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특히 페어몬트 재스퍼 파크 로지에서 열리는 성대한 파티도 놓치지 말 것. 현지 전문 배우들이 무대에 올라 펼치는 즉흥 공연은 물론, 대형 스크린을 통해 고전 SF 코미디 영화(스페이스 볼)를 감상할 수 있다. jasperdarksky.travel

11월

밴쿠버의 루미에르

11월의 밴쿠버는 빛과 예술의 축제, 루미에르Lumière와 함께 미래 도시로 탈바꿈한다. 세계 각국의 예술가들의 빛을 활용한 인터랙티브 작품이 다운타운, 예일타운, 개스타운 등 밴쿠버 각지에 설치되는 것. 특히 예일타운에서는 엔터테인먼트에 가까운 야외 전시가 열리는데, 최첨단 미디어 아트와 조명 기술을 응용한 예술가의 동화적인 작품을 만날 수 있다. lumiereyvr.com





© Tourism PEI / He Ke

PE 맛의 축제

음식과 문화가 어우러진 축제와 함께 풍요로운 가을의 맛을 즐긴다.

폴 플레이버 페스티벌

9월에 열리는 미식 축제인 폴 플레이버 페스티벌 Fall Flavours Festival. 캐나다 최고의 미식 섬이라 불리는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에서 바닷가재를 잡고 해변에서 조개를 캐는 방법을 배우보자. 요리 캠프에 참여하거나 브루마스터 디너에서 현지에서 생산되는 PEI 맥주를 맛보는 것도 가능하다. 해변 레스토랑에서 삶은 홍합과 랍스터를 양껏 맛보거나 스타 셰프와 함께 특별한 저녁 식사도 즐길 수 있다. fallflavours.ca

국제 갑각류 축제

굴 까기 대회뿐 아니라 각종 요리와 공연 등이 어우러진 국제 갑각류 축제를 놓칠 수 없다. 9월에 나흘 동안 열리는 축제에서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현지인과 어울려 대합조개와 다랑조개의 차이를 알아보자. 신선한 해산물 요리로 배를 채운 뒤에는 라이브 음악에 맞춰 흥겨운 밤을 보낼 수 있다. peishellfish.com



© Tourism PEI / Stephen Harris



© Tourism PEI / Stephen Harris

ON 가을 박람회

계절이 가을로 바뀌면 온타리오 주의 각지는 한 해의 수확을 축하하는 특별한 박람회로 분주해진다.

블루 마운틴 애플 하비스트 페스티벌

온타리오 최대 사과 재배 지역에서 수확을 축하해보자. 블루 마운틴 애플 하비스트 페스티벌 Blue Mountain Apple Harvest Festival에서는 단풍 트레일 하이킹, 사이더 시음 등을 즐길 수 있다. 공기, 우유, 땅, 불의 다섯 가지 원소를 모티브로 한 인터랙티브 조명 설치미술인 '아고라: 빛의 길 AGORA: Path of Light' 역시 눈길을 사로잡는다. bluemountain.ca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맥주 축제

9월에 열리는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맥주 축제 Prince Edward Island Beer Festival에서는 30개 이상의 브루어리가 지역 최고의 맥주를 선보인다. 에일, 라거, 스타우트, 몰트에 이르기까지 현지 맥주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셈. 다양한 맥주를 시음하고 살려타운 곳곳에서 열리는 공연을 만끽해보자. beerfestpei.com

농업 박람회 & 아카디아 페스티벌

농업 박람회 & 아카디아 페스티벌 L'Exposition agricole et le Festival acadien에서는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의 농업 유산 및 아카디아 문화를 기념하는 박람회와 축제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현지 요리, 공예 및 예술, 공연 등이 가득하다고. 유명한 아카디아 예술가들을 만나고 퍼레이드에 참여하거나 스텝 댄스 쇼를 관람한 뒤, 가정식 랍스터 만찬을 즐기자. 이 섬의 라이프스타일을 밀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expositionfestival.ca

브램튼 페어

칼레돈 마을에서 열리는 브램튼 페어는 대도시를 벗어나 전원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지역 음식과 공예품부터 가축 경연 대회, 과일 및 채소 경연 대회, 자동차 쇼, 놀이기구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bramptonfair.com

우드브리지 폴 페어

추수감사절 주말에 열리는 우드브리지 폴 페어는 놀이기구, 동물 체험, 호박 조각 및 장식 경연 대회 등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아이를 동반한다면 트랙터 페달 밟기, 사과 따기, 잿소 짓짜기 등 어린 농부들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어린이 농부 챌린지'에 참여하자. 5세 이하 어린이는 무료입장. woodbridgefair.ca

키치너-워털루 옥토버페스트

1810년 바이에른 황태자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시작된 키치너-워털루 옥토버페스트 Kitchener-Waterloo Oktoberfest는 온타리오 남부에서 윈헨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이색 축제다. 수많은 페스탈렌 Festhallen(독일식 맥주 홀)은 물론, 캐나다 최대 규모의 추수감사절 퍼레이드, 자동차 쇼, 풍요로운 추수를 감사하는 행사 등이 열린다. oktoberfest.ca

마크 폴 페어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마크 폴 페어 Markham Fall Fair. 6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이 성대한 박람회에서는 약 3000개의 업체가 참가해 1만 개 이상의 품목을 출품한다. 공중서커스 쇼와 불꽃놀이도 열린다고. markhamfair.ca



© Destination Ontario

더 많은 박람회

200개가 넘는 온타리오 주의 다양한 가을 박람회를 찾아볼 수 있다. ontariofairs.com



© Destination Ontario

캐나다의 가을로 들어가는 문

10

선주민 문화에 경의를 표하다

캐나다 전역의 700개가 넘는 선주민 공동체는 저마다 고유한 역사와 문화, 언어를 보존하고 있다.



© Logan Swayze



© Audet Photo - QAT/ITAC



삶을 이해하다

선주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기.

문화 체험

선주민의 풍부한 문화유산이 한데 모여 있는 장소에 방문해보자. 오랜 세월을 걸친 유서 깊은 문화를 총망라한 박물관 등이 캐나다 전역에 자리한다.

투어 동참

선주민이 운영하는 다양한 투어에 참가해보자. 그들의 문화를 몸소 배우며 더욱 깊이 탐구할 수 있다. 야생 고래나 곰 등 선주민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대자연 역시

아름답게 다가온다. 산과 바다뿐 아니라 대초원과 툰드라까지, 깊게 뿌리 내린 그들의 삶을 엿볼 수 있다.

무형의 공동체

세대와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전설 또는 전통 노래나 춤 등을 감상하거나 예술가 워크숍에 참여해보자. 공연 선율에 맞춰 리듬을 타고 다채로운 수공예 등을 배우다 보면 어느새 선주민 문화에 스며든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문화를 기억하다

각 선주민의 역사와 문화가 집약된 장소.



© Destination Vancouver/Dannielle Hayes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스퀴미시 릴와트 문화센터

휘슬러 지역에 사는 두 선주민 공동체인 스퀴미시와 릴와트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박물관. 스퀴미시 릴와트 문화센터 Squamish Li'wat Cultural Centre에서는 직접 제작한 카누와 토템폴 등을 전시하고 전통 공연이 열리며 드림캐처 워크숍 등을 운영한다. 선더버드 카페 Thunderbird Café에서 현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인 배덕 타코를 먹어보자. 전통 배덕 위에 사슴 고기, 체더치즈, 사워크림 등을 섞어 만든 소스를 얹어 먹는 선주민식 퓨전 요리다. slcc.ca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크산 민속마을과 박물관

헤이즐턴 Hazelton에 자리한 크산 민속마을과 박물관 Ksan Historical Village and Museum은 기트산 Gitksan 선주민의 옛 터전을 재현한 장소다. 수천 년 동안 강가를 지켜온 선주민의 삶을 반영해 조성하였다. 총 7개의 선주민 전통 가옥이 있으며 특히 토템폴(삼나무로 만든 조각), 전통 혼연소, 음식 저장고 등이 흥미롭다. hazeltontourism.ca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인카립 사막 문화센터

캐나다 유일의 사막 지역인 오소유스. 이곳에 위치한 인카립 사막 문화센터 NK'Mip Desert Cultural Centre는 오키나와 선주민이 소유하고 운영하며 그들의 문화와 유산 그리고 자연사를 전시한다. 부지는 그레이트 아메리칸 사막을 가로지르며, 1.5km 길이의 트레일 끝에 전통 마을이 자리한다. 9월에는 노란 꽃이 피어나며, 사막 생태계의 여러 뱀을 관찰할 수 있다. 선주민의 코요테 전설 등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두 개의 다중감각 극장도 인상적이다. nkmpidesert.com

알버타주, 블랙풋 크로스링역사공원

캘거리에서 남쪽으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블랙풋 크로스링역사공원 Blackfoot Crossing Historical Park. 식서키 Siksika 선주민의 역사와 문화,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전시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스피크 블랙풋 Speak Blackfoot' 앱을 다운로드하면 사진과 노래 등으로 그들의 언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티피에서 숙박하며 캠핑을 즐기고, 레스토랑에서 식서키 선주민의 전통 음식도 맛보자. blackfootcrossing.ca

사스카추완주, 와누스케윈 문화유산공원

와누스케윈 문화유산공원 Wanuskewin Heritage Park은 6000년 넘는 세월 동안 북미 대륙의 평원을 누비는 선주민의 만남의 장이었다. 오늘날에는 선주민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배움의 장으로 탈바꿈했다. 이곳의 트레일에는 야생동물의 뼈나 돌무덤 등 고고학적 유적지가 무궁무진하게 펼쳐진다. 이 지역에서 멸종된 바이슨을 복원해 선주민과의 깊은 영적 관계를 상기하기도 한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통해 선주민 예술가를 지원하며 관련 전시도 열린다. 다채로운 가이드 투어가 있으며, 가을에만 운영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wanuskewin.com

온타리오주, 오지브웨 문화재단

휴런호 Lake Huron에 위치한 매니톨린 섬 Manitoulin Island과 그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아니시나베 Anishinaabe 선주민의 언어, 문화, 예술, 영성 그리고 전통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고자 설립된 오지브웨 문화재단 Ojibwe Cultural Foundation. 선주민 장로와 함께 식사하고 아니시나베 언어를 배우는 등 다양한 워크숍을 진행한다. 전시 중인 장인의 다채로운 수공예품의 구입도 가능하다. ojibwe-cultural-foundation.myshopify.com

퀘벡주, 휴런 전통 유적지

퀘벡 시에서 불과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휴런 전통 유적지 Site Traditionnel Huron은 휴런 웬다트 Huron-Wendat 선주민의 마을을 재현한 곳이다. 야외에서 약 1시간 동안 진행되는 가이드 투어는 예약이 필수. 전통 가옥을 둘러보고 카누 제작 방법을 알아가는 등 이들의 삶의 방식을 살펴본다. 이곳의 부티크는 캐나다 동부의 다양한 선주민 공예품과 예술품을 망라하므로 가족 제품이나 토템 등을 기념품으로 소장해도 좋다. huron-wendat.qc.ca

퀘벡주, 아벤아키 박물관

퀘벡 주 최초의 선주민 박물관으로 오다낙 Odanak에 자리한다. 아벤아키는 퀘벡 주에서 살고 있으며 알곤퀸어를 사용하는 11개의 선주민 부족 중 하나다. 아벤아키 선주민은 전통적으로 생존을 위해 수렵과 채집, 어업에 종사하는 반유목민이었다. 아벤아키 박물관 Abenaki Museum은 2만 6000개 이상의 유물을 보유 중이며 풍부하게 남아 있는 이 문화를 미래 세대에게도 온전히 전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museeabenakis.ca



© Indigenous Tourism Canada

한눈에 보는 선주민 문화

캐나다 선주민관광청은 캐나다 선주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패키지 투어를 안내한다. 다채로운 블로그 콘텐츠를 통해 선주민 문화를 간접경험할 수도 있다. destinationindigenou.ca



© Indigenous Tourism Canada

CA 대자연과 공존하다

높은 산과 깊은 숲속 등지에서 선주민을 만나는 방법.

브리타시컬럼비아주, 스피릿 베어 로지

흑곰의 아종인 커모드곰 중 일부는 선천적으로 흰 털을 지닌다. 그래서 영혼의 곰이라고 불린다. 수천 년 동안 그레이트 베어 레인포레스트를 터전으로 삼아온 선주민 키타수 하이하이시 Kitasoo Xai'xais의 영토 내 야생동물 관찰구역에서 이 영혼의 곰을 만날 수 있다. 선주민 가이드가 들려주는 커모드곰에 대한 신화도 흥미로울 것이다. spiritbear.com

유콘 준주, 톰스톤 준주립 공원

톰스톤 준주립 공원에 묘비라는 뜻이 담겨 있어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곳은 경이로운 자연과 풍부한 선주민 문화를 품고 있다. 북극권에서 불과 28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공원은 역사가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촌온덕 웨친 Tr'ondëk Hwëch'in 선주민의 본거지이기도 하다. 석기부터 모지까지 여러 고고학 유적지도 분포한다. yukon.ca/en/tombstone-territorial-park

알버타주, 헤드스메시드인 버팔로 점프 자료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헤드스메시드인 버팔로 점프 자료관은 약 6000년간 수많은 블랙풋 선주민이 바이슨을 사냥하던 곳이다. 자료관을 돌아보다 보면 선주민이 절벽 지형을 활용해 어떻게 바이슨을 사냥했는지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진다. 여러 트레일이 있으며, 전망대에서 절벽과 주변의 멋진 풍경도 감상할 수 있다. headsmashedin.ca

알버타주, 재스퍼 투어 컴퍼니

로키 산맥은 알버타 주의 선주민에게 '빛나는 산' 혹은 '세계의 중추'로 알려져 있다. 메티스 Métis(선주민과 유럽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자 재스퍼 투어

컴퍼니를 운영하는 가이드 조 유리 Joe Urie에게도 마찬가지다. 1860년 그의 조상이 이 지역에 정착한 이래 그에게 로키 산맥은 집이었고 애서베스카 강은 혈관을 흐르는 피와 다름없었다. 이 지역 선주민 이야기부터 장엄한 자연과 근방을 배회하는 야생동물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과 지식이 더해진 투어는 여행자에게 새로운 시각을 환기한다. jaspertourcompany.com

노바스코샤주, 에스카소니 선주민 문화 여행

믹엔아크 선주민 공동체 중 규모가 가장 큰 에스카소니. 케이프 브레튼 섬에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브라스 도르 호수가 자리한다. 가이드 투어를 통해 이 고요한 호수에 자리한 고트 섬 Goat Island 주변 약 2.4km 트레일을 따라 믹엔아크 선주민의 문화를 경험해보자. 스머지 의식에 참여하고 모닥불에서 전통 케이크 만드는 법을 배우며 선주민과 함께 전통 춤을 즐길 수 있다. 투어는 믹엔아크 선주민의 전통 빵인 루스키니간 huskinigan과 차로 마무리된다. eskasoniculturaljourneys.ca

노바스코샤주, 케짐쿠직 국립공원

하이킹과 캠핑을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믹엔아크 선주민의 암각화를 발견할 수 있는 케짐쿠직 국립공원 Kejimikujik National Park. 선주민 가이드와 함께 사냥이나 낚시 등 다양한 삶이 묘사된 암각화를 탐험할 수 있다. 또는 카누를 빌려 이곳 선주민이 여러 세대에 걸쳐 사용한 수로에서 노를 저어 보자. 공원의 이름은 믹엔아크어로 '피곤한 근육'을 의미하는 케짐쿠직 호수에서 따왔는데, 이곳에서 카누를 타는 것이 얼마나 고되었는지를 암시한다. parks.canada.ca/pn-np/ns/kejimikujik

AB 3170km 로드 트립

알버타 주에서 선주민 문화를 경험하는 13일의 여정.

DAY 1 에드먼튼으로 향하는 길

대초원에 터전을 잡은 선주민에게 영적 상징이었던 바이슨이 보존된 엘크 아일랜드 국립공원에서 여정을 시작한다. 선주민이 운영하는 토크 록 투어스 Talking Rock Tours에서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이곳의 독특한 지질학적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 에드먼튼의 선주민 예술 공원 Edmonton's Indigenous Art Park에서는 대지에서 영감을 받은 6개의 설치미술을 감상할 수 있다.

DAY 2 대초원에서 산으로

로키 산맥과 애서베스카강, 빙하로 인해 형성된 호수 등을 감상하려면 캐나다에서 가장 길고 높은 재스퍼 스카이 트램 Jasper SkyTram을 타야 한다. 이후에는 다운타운 푸디 투어 Downtown Foodie Tour에 참가해 약 3시간 동안 재스퍼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요리를 맛보자.

DAY 3 장엄한 호수부터 별이 총총한 하늘까지

재스퍼 국립공원의 멀리 호수에서 스피릿 아일랜드 Spirit Island로 향하는 90분 크루즈 투어에 탑승하자. 호숫가에서 점심 식사를 하거나 카누도 대여 가능하다. 워리어 워민 Warrior Women은 크리 선주민이 대지의 심장박동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들의 언어로 공연 등을 펼친다. 9월에 재스퍼 밤하늘 보호구역을 방문한다면 오로라를 조우할지도 모른다.



© Indigenous Tourism Alberta

DAY 4 아이스필드 파크웨이

선암타 밸리 Sunwapta Valley의 글레이셔 스카이워크 Glacier SkyWalk에 올라 장엄한 로키 산맥과 반짝이는 빙하의 전경을 감상하자. 280m 높이의 투명한 유리 바닥 코스로 5월부터 10월까지 개장한다. 컬럼비아 아이스필드 디스커버리 센터에서 시작해 1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로키스 헬리 캐나다 Rockies Heli Canada의 헬리콥터 투어에서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빙하, 산봉우리, 산정호수 등의 놀라운 전망이 펼쳐진다.

DAY 5 밴프 국립공원 오르내리기

케이브 앤 베이스 국립사적지 Cave and Basin National Historic Site의 온천은 1만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선주민에게 신성한 장소였다. 이곳이 1883년 재발견되면서 캐나다 최초의 국립공원인 밴프 국립공원이 탄생했다고 한다. 밴프 곤돌라를 타고 설파 산 Sulfur Mountain으로 올라가 로키 산맥의 탁 트인 풍광을 즐길 수 있다. 해가 지기 몇 시간 전은 로키 산맥의 야생동물을 발견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 디스커버 밴프 투어스의 야생동물 관찰 투어를 통해 밴프 국립공원이 대자연과 야생동물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알아갈 수 있다. 저녁에는 밴프 어퍼 핫 스프링스에서 온천욕으로 하루를 편안하게 마무리하자. 파크 캐나다 온천 Pass Parks Canada Thermal Waters Pass를 구입하면, 케이브 앤 베이스 국립사적지와 밴프 어퍼 핫 스프링스의 온천을 모두 이용 가능하다.

DAY 6 선주민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

카터 라이언 갤러리 Carter-Ryan Gallery는 선주민 예술가 제이슨 카터의 작품을 전시 중이다. 캔모어의



© Tourism Calgary



© Travel Alberta / North Grove Creative

메인 스트리트와 밴프 타운의 베어 스트리트에서도 그의 생동감 넘치는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마히칸 트레일스 Mahikan Trails를 운영하는 선주민 가이드 브렌다 홀더 Brenda Holder는 그녀의 조상이 수천 년 동안 땅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워크숍을 제공한다. 약초 워크숍에서는 야생의 다양한 식물을 식별하는 방법과 간단한 약을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다.

DAY 7 켈거리의 품미

글렌보우 박물관 Glenbow Museum은 캐나다 전역의 선주민 유물 100만 점과 예술품 3만 점을 소장하고 있다. 문스톤 크리에이션 Moonstone Creation에서는 구슬 장식 액세서리부터 청동 조각품에 이르기까지, 선주민이 손수 만든 다양한 예술품을 살 수 있다. 리틀 치프 Little Chief 레스토랑은 선주민의 전통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요리를 선보인다.

DAY 8 도시 그리고 자연

켈거리 중앙 도서관에서는 선주민의 언어로 쓰인 동화책을 감상할 수 있으며 장로를 직접 만나보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선주민이 운영하는 드리프트 아웃 웨스트 플라이 피싱 Drift Out West Fly Fishing은 켈거리 근처 보우 강에서 짜릿한 가이드 낚시 투어를 제공한다.

DAY 9 광대한 유산

국립사적지인 블랙풋 크로스링 역사 공원에서 선주민의 문화와 언어 등을 알아보고 레스토랑에서 선주민 요리를 맛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공룡 국립공원 Dinosaur Provincial Park에서는 가이드 하이킹 투어에 참가하거나 셸프 가이드 트레일을 탐험할 수 있다. 1988 켈거리 동계 올림픽을 위해 지어진 사미스 티피 Saamis Teepee는 선주민 문화와 역사적 장면을 묘사하는 동시에 찬사를 보낸다.

DAY 10 선조의 발길을 따라서

모피 무역의 요충지를 재현한 포트 후프 업 Fort Whoop-Up에서는 가이드가 1860년대 중반부터 1890년대 초반까지 알버타 남부의 옹고도설칸 역사 이야기를 들려준다. 선주민과 메티스 등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는 흥미진진한 여정에 동참해보자. 라이팅 온 스톤 주립공원 Writing-on-Stone Provincial Park에서 발견된 블랙풋 선주민의 암각화와 암벽화도 흥미로운 풍경이다.

DAY 11 대초원과 로키 산맥이 만나는 지점

선주민과 바이슨의 관계를 조영하는 헤드스메시드인 버팔로 점프 자료관에 들려보자. 워터튼 호수 국립공원에 있는 파토마크시킴 문화 센터 Paah'tómahksikimi Cultural Center도 놓칠 수 없다. 신성한 호수를 의미하는 파토마크시킴 선주민의 역사와 문화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DAY 12 전설적인 목장

오랜 역사를 지닌 목장, 바유 랜치 국립사적지 Bar U Ranch National Historic Site는 영국 왕실 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했던 곳이다. 로키 산맥이 배경으로 펼쳐진 이곳에서 하루를 온전히 카우보이처럼 보내보자. 티피안의 선주민이 자신들의 전통과 문화를 이야기해준다.

DAY 13 켈거리 인근 탐험

쥐라기와 백악기의 공룡 화석을 전시하는 로얄 티렐 박물관 Royal Tyrrell Museum에 들려보자. 미들랜드 주립공원 Midlands Provincial Park를 통과하는 박물관의 트레일도 탐험할 수 있다. 페인트드 워리어스 랜치 Painted Warriors Ranch에서는 승마나 양궁 등 크리 및 솔트 Saulteaux 선주민의 전통은 물론 현대적인 생활 방식을 경험해보자. 메티스 사냥꾼 스타일의 텐트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아침에 로키 산맥의 전망을 우러른다.



© Jeff Bartlett @photobarlett

캐나다 가을 여행 추천 일정

가을을 만끽할 수 있도록 엄선한 캐나다 여행 코스를 안내한다.



로키 산맥 하이라이트 4일 캐나다인 로키를 탐험하는 561km의 여정.

DAY 1 밴프

케이브 앤 베이스 국립사적지에서 여정을 시작한다. 곤돌라를 타고 설피 산 정상까지 올라 캐나다인 로키의 풍광을 감상한 후 디스커버 밴프 투어에서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투어에 나서보자. 밴프 국립공원에서 가장 큰 호수인 미네완카에서 비어 보이지(Beer Voyage)에 탑승하면 항해하는 동안 수제 맥주를 마실 수 있다. 애주가라면 파크 디스틸러리(Park Distillery)도 둘러야 한다. 밴프 어퍼 핫 스프링스에서 온천을 즐기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DAY 2 레이크 루이스

빙하가 녹아 형성된 모레인 호수는 마치 보석처럼 아름답다. 호수가 트레일을 산책해보자. 경치 좋은 3.5km 길이의 트레일을 따라 원래 1901년에 등산객을 위한 쉼터로 지어진 유서 깊은 레이크 아그네스 티 하우스(Lake Agnes Tea House)로 향한다. 애프터눈 티나 점심을 즐기며 고산의 경치를 감상한다. 페어몬트 사토 레이크 루이스(Fairmont Château Lake Louise)에 머물며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시대를 초월한 우아함을 느낄 수 있다.

DAY 3 아이스필드 파크웨이

1만 년 이상의 애서베스카 빙하 표면을 달리는 특수 차량 아이스 익스플로러(Ice Explorer)를 타고 모험을 떠나자. 이후 선왕타 벨리의 280m 높이에 자리한 유리 바닥 전망대인 컬럼비아 아이스필드 스카이워크에 올라 로키 산맥의 아름다운 전망을 만끽 즐긴다.

DAY 4 켈거리

켈거리 타워에서 도시의 전망을 360도로 감상하자. 서쪽으로는 캐나다인 로키도 펼쳐진다. 헤리티지 파크 히스토리컬 빌리지(Heritage Park Historical Village)에는 1850년부터 1950년까지 캐나다 서부의 역사가 집약되어 있다.

7일간의 클래식 로드 트립

알버타 주의 모든 명소를 둘러보는 1071km 여정.

DAY 1 에드먼튼

1980년부터 운행하는 빈티지 전자 하이 레벨 브리지 스트리트카(High Level Bridge Streetcar)를 타고 시간 여행을 떠난다. 캐나다에서 아직도 운행 중인 몇 안 되는 역사적인 전자로 도시의 역사를 세련되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다. 리버 밸리 어드벤처 컴퍼니(River Valley Adventure Co.)에서 풍부한 지식을 가진 가이드와 함께 세그웨이를 타며 캐나다에서 가장 큰 공원인 리버 밸리를 구경하자. 포트 에드먼튼 파크에는 과거 시대 의상을 차려입은 가이드가 생생한 역사를 알려줄 것이다.

DAY 2 에드먼튼

100개 이상의 레스토랑, 실내 놀이공원 등을 갖춘 웨스트 에드먼튼 물에서 쇼핑 이상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로키 산맥 중심부에 자리한 미에트 핫 스프링스(Miette Hot Springs)의 땅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른 온천을 즐기며 휴식을 취하자.

DAY 3 재스퍼

케이블카인 재스퍼 스카이트램을 타고 휘슬러 산을 오르며 로키 산맥의 풍광이 펼쳐진다. 멀리 캐넌은 멀리 강의 급류가 수천 년에 걸쳐 조각한 자연의 걸작이다. 이곳을 하이킹하며 깊고 좁은 협곡과 폭포 등을 감상할 수 있다. 선도그 투어(Sundog Tours)의 멀리 호수 크루즈 투어에 참여한다. 가이드가 이곳의 역사, 지질학, 야생동물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DAY 4 컬럼비아 아이스필드 파크웨이

컬럼비아 아이스필드 스카이워크의 유리 바닥 위에서 선왕타 벨리와 애서베스카 빙하의 전망을 감상할 수 있다. 페어몬트 사토 레이크 루이스에 머물며 아름다운 호수에도 꼭 빠져보자.

DAY 5 레이크 루이스

모레인 호수를 따라 산책한 후 레이크 루이스 곤돌라를 타고 산에 올라 장엄한 빙하와 호수의 찬란한 풍경을 바라보자. 레이크 아그네스 티 하우스로 향하는 길도 무척이나 아름답다. 레이크 아그네스 티 하우스는 신용카드를 받지 않으니 현금을 꼭 챙겨야 한다.

DAY 6 밴프

케이브 앤 베이스 국립사적지에서 캐나다 국립공원의 기원을 알아보자. 밴프 곤돌라를 타고 해발 2281m 설피 산 정상까지 올라 장엄한 로키 산맥을 감상할 수 있다. 미네완카 호수에서 크루즈에 탑승해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감각을 일깨운다. 밴프 어퍼 핫 스프링스에서의 온천욕은 여독을 풀어줄 것이다.

DAY 7 켈거리

동물원인 와일더 인스티튜트에서 멸종 위기 종의 보호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자. 헤리티지 파크 히스토리컬 빌리지에서는 과거로 떠나 개척자와 초기 정착민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



© Tyson Wheatley @twheat



© Pursuit Collection / Mike Seehagel



마법 같은 시간

오로라가 춤추는 유콘 준주의 4일 여정.

DAY 1 화이트호스

화이트호스의 중심가를 거닐며 도시의 여유로운 분위기를 만끽하자.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으로 가득 찬 갤러리를 둘러보고 맥브라이드 박물관(MacBride Museum)에서 이곳의 역사를 알아간다. 오후에는 유콘 야생동물 보호구역(Yukon Wildlife Preserve)에서 무스부터 사향소까지 북부 지방에서 서식하는 포유류를 관찰하자. 인근의 타키니 핫 스프링스(Takhini Hot Springs)에서 천연 온천을 즐기고, 빈 노스 카페(Been North Café)에서 직접 로스팅한 커피를 음미할 수 있다. 유콘의 품이 가득한 저녁 식사를 마친 뒤에는 신성한 투어의 가이드가 오로라를 관측하기 좋은 장소로 안내해 줄 것이다.

DAY 2 화이트 패스 앤 유콘 루트

가을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드라이브 코스를 따라 당일치기 로드트립을 떠나보자. 유콘 준주의 카크로스 와 알래스카 주 스캐그웨이로 오가는 화이트 패스 앤 유콘 루트 철도(White Pass & Yukon Route Railroad)를 따라 가자 여행에 나서도 좋다. 열차는 산을 지나 빙하, 폭포 등을 지나며 근사한 풍경을 선사한다.

DAY 3 클루아니 국립공원

클루아니 국립공원(Kluane National Park)의 가을 풍경 속에서 하이킹하며 캐슬린 호수(Kathleen Lake)로 향하자. 설산과 수정처럼 맑은 호수에 탄성이 나올 것이다. 거대한 산맥과 빙원 위에서 비행하는 항공 투어도 가능하다. 카크로스, 마시 레이크(Marsh Lake), 타기시(Tagish) 및 테슬린(Teslin) 마을에 방문해 선주민 문화도 경험해보자. 밤이 오면 오로라를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DAY 4 패들링 그리고 페달링

화이트호스에서는 카누, 트레킹, 산악자전거, 가이드 동반 투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 시내에서 카누를 타고 유콘 강을 따라 반나절 동안 노를 저어보자. 산악자전거를 타고 황금빛 사시나무 숲이나 유콘 강을 따라서 달려봐도 좋다. 또는 등산화를 신고 700km가 넘는 트레일을 탐험해보자. 그레이 마운틴(Mt. Gray), 마일스 캐년(Miles Canyon) 하이킹 코스를 추천한다. 이후 마이크로 브루어리의 수제 맥주를 즐기자. 식사를 마치고 마지막 밤을 보내며 오로라가 펼쳐는 마술쇼를 감상한다.



© Hans-Gerhard Pfaff



© Government of Yukon



엘로나이프 오로라 여행법

오로라를 감상하는 다양한 여정.

오로라 빌리지 방문

오로라를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 곳을 찾는다면, 오로라 빌리지로 향하자. 시내에서 차량으로 25분 정도 소요되며, 오로라레이크 옆 언덕 위에 있다.

오로라 헌팅

활동적으로 모험을 즐기는 성향이라면 차량을 이용해 다양한 장소로 오로라를 찾아 떠나보자. 경험 많은 가이드와 함께하는 것이 좋다.

오로라 로지 머물기

좀 더 비밀스럽고 개인적인 공간에서 오로라를 감상하고 싶다면 호숫가 로지에서의 숙박을 추천한다. 외부와 단절된 채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낚시나 카약 등도 맘껏 즐길 수 있다. 트라우트 록 로지 Trout Rock Lodge나 노스 나하니 로지 North Nahani Lodge, 블래치포드 레이크 로지 Blachford Lake Lodge가 대표적.

☉ SIDE TRIP

엘로나이프에서 서쪽으로 약 600km 떨어진 곳에 장엄한 풍경을 자랑하는 나하니 국립공원. 지구상에서 수억 년 전의 태곳적 자연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 중 하나다. 나하니 국립공원을 구경하는 멋진 방법 중 하나는 경비행기를 타는 것. 공원 규모가 워낙 크고 도로가 잘 조성되어 있지 않아 지상보다 항공 여행이 훨씬 편하다. 투어는 포트 심슨이나 포트 리아드에서 출발한다. 캐나다에서 가장 큰 폭포인 버지니아 폭포로 가는 6시간 코스와 빙하수로 형성된 글레이셔 호수로 향하는 8시간 코스 등이 있다.

3일간의 패키지 투어

엘로나이프 투어가 운영하는 가을 패키지.

DAY 1 노던 헤리티지 프린스 오브 웨일스 박물관 Northern Heritage Prince of Wales Museum을 관람하고 구시가지를 지나 엘로나이프 전망을 즐길 수 있는 조종사 기념비 Pilot's Monument에 가본다. 밤에는 360도 스카이드크 전망대가 있는 오로라 스테이션에서 오로라를 감상한다. 따뜻한 음료와 스넥뿐 아니라 가이드의 사진 촬영 서비스도 제공된다.

DAY 2 카메론 폭포 트레일에서 짧은 하이킹을 즐기며 가을 절경을 느껴본다. 데타 Dettah (데네 선주민 공동체)의 로지에서 전통 공연과 오로라를 감상할 수 있다.

DAY 3 그레이트 슬레이브 호수 Great Slave Lake에서 배를 타고 낚시를 즐기며 생선튀김을 맛본다. 오로라를 관찰하기 좋은 장소를 찾기 위해 고급스러운 버스를 타고 다양한 호수로 이동하며 휴식을 취한다. 호수에 비친 오로라도 감상할 수 있다.

📌 가을 다이아몬드 호텔 패키지는 8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운영하며, 가격은 1인당 1460캐나다달러. 더욱 자세한 정보는 yellowknifetours.com에서 찾아볼 수 있다.

© James MacKenzie



멋진 산과 와인이 함께하는 로드 트립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최고의 가을을 경험하는 1226km 여정.

DAY 1 > 켈로나 - 버넌

오카나간 벨리에서 가장 큰 도시인 켈로나 Kelowna에서 여정을 시작한다. 97번 도로 Route 97를 따라 북쪽으로 버넌까지 갈 수 있다. 이곳에서 수많은 호수와 산책로를 따라 단풍을 즐겨보자. 칼라말카 호수 Kalamalka Lake와 엘리슨 주립공원 Ellison Provincial Parks에서 호숫가를 따라 산책하면 된다. 켈로나와 버넌을 연결하는 오카나간 레일 트레일을 따라 자전거를 타도 좋다. 9월이면 데이비스 과수원 Davison Orchards에서 열리는 사과 수확 축제에 참가한다. 10월 한 달 동안 열리는 버넌 가을 축제 Vernon Fall Festival도 주목할 만하다. 슈스왈에서는 가을 단풍이 매력적인 암스트롱 Armstrong과 엔더비 Enderby 마을을 지난다.

DAY 2 > 버넌 - 레벨스톡

레벨스톡에서 글레이셔 국립공원 Glacier National Park을 지나 동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로저스 패스 Rogers Pass가 펼쳐진다. 표준시가 달라졌으므로 시계를 한 시간 앞으로 조정해야 한다.

DAY 3 > 레벨스톡 - 레디움 핫 스프링스

산악 마을인 골든 Golden은 북미 최대 습지인 컬럼비아 강 옆에 자리한다. 탐조하기 좋은 곳으로 가을에는 최대 250종의 약 1만 5000마리의 물새가 이곳을 지난다. 키팅 호스 마운틴 리조트 Kicking Horse Mountain Resort에서 그리즐리 배어 보호구역 둘러보고, 해발 2347m로 캐나다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레스토랑인 이글스 아이 레스토랑 Eagle's Eye Restaurant에서 점심을 즐긴다.

DAY 4 > 레디움 핫 스프링스 - 킴벌리

쿠트니 국립공원 Kootenay National Park에 자리한 레디움 핫 스프링스는 싱클레어 캐년 Sinclair Canyon의 우뚝 솟은 암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레디움에서는 이곳의 인기 스타 큰뿔양을 발견할 수도 있다. 95번 고속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37km 떨어진 페어몬트 핫 스프링스에서 느긋하게 몸을 담그며 상쾌한 가을날을 음미해보자.

DAY 5 > 킴벌리 - 크레스튼

킴벌리는 단풍이 타오르는 가을에 탐험하기 좋다. 퍼셀 산맥 Purcell Mountains 기슭의 킴벌리 자연 공원에서

황금빛 라치의 향연을 즐길 수 있다. 킴벌리 시내에는 독특한 상점과 레스토랑이 즐비해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코민코 정원 Cominco Gardens을 거닐며 가을의 꽃도 감상하자.

DAY 6 > 크레스튼 - 넬슨

크레스튼에 도착하면 길가에 과수원과 와이너리뿐 아니라 농장 가판대 등이 즐비하다. 현재 4개의 와이너리가 있는 크레스튼 벨리는 캐나다의 차세대 와인 지역. 위클리 파머스 마켓에 참여하거나 탐조와 생물다양성으로 유명한 주요 습지 보호 지역인 쿠트니-컬럼비아 디스커버리 센터에 방문해도 좋다. 3A 고속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향해 쿠트니 호수의 장엄한 전망을 즐겨본다. 고속도로가 끝나는 쿠트니 베이에서 페리를 타고 35분 동안 호수를 건너 발푸어 Balfour에 닿는다. 9월이면 코카니 크릭 주립공원 Kokanee Creek Provincial Park에 산란을 위해 홍연어의 사촌종 되는 코카니 연어가 찾아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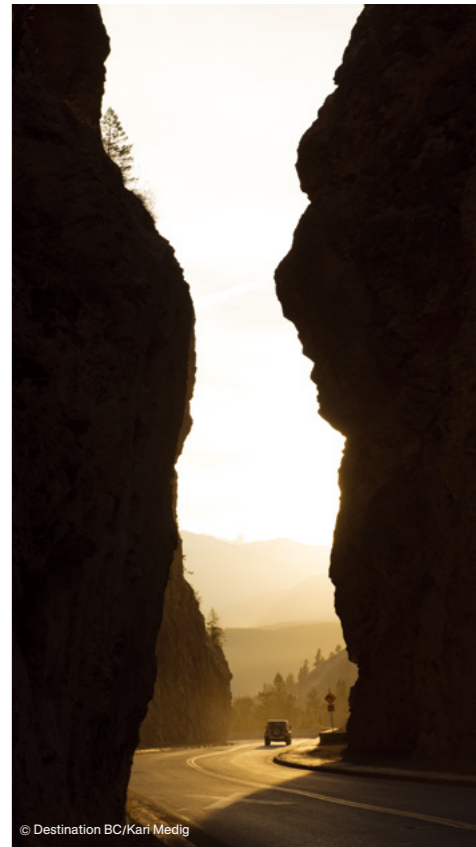
DAY 7 > 넬슨 - 오소유스

쿠트니 호수 기슭을 따라 단풍으로 물든 산이 350개의 문화유산과 만나는 넬슨. 지역 명소이자 훌륭한 식당 중 하나인 오소 네그로 Oso Negro에서 갓 로스팅한 커피 한 잔을 즐긴다. 홈 호텔 Hume Hotel을 포함한 역사적인 건축물을 둘러봐도 좋다. 넬슨의 드넓은 전망을 보려면 풀핏 록 Pulpit Rock까지 가파른 하이킹을 하면 된다. 22번 고속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짧은 여행을 떠나보자. 컬럼비아 가든스 빈야드 & 와이너리 Columbia Gardens Vineyard & Winery는 가이드 투어와 테이스팅을 제공한다. 로스랜드 Roseland에서는 유서 깊은 시내를 구경하며 단풍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DAY 8 > 오소유스 - 켈로나

오소유스 Osoyoos에서 가을 사막 체험에 나선다. 인카립 사막 문화센터에서 선주민 문화, 오소유스 사막 센터 Osoyoos Desert Centre에서 사막 생태계를 알아갈 수 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최초의 선주민 와이너리인 인카립 셀러스 Nk'Mip Cellars와 같은 지역의 수많은 와이너리와 레스토랑을 여유롭게 둘러보자. 오소유스 호수를 걸으며 너림의 미학을 실천할 수 있다. 97번 고속도로를 따라 더 북쪽으로 이동해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최대 와인 산지이자 가을의 주요 수확지인 오카나간 벨리 중심부로 향한다. 가능한 한 많은 길가의 가판대에 들러 신선한 오카나간 제철 과일과 채소를 맛보자. 켈로나에서 10월에 열리는 가을 오카나간 와인 페스티벌을 방문하여 테이스팅과 소믈리에 경연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녹스 산 Knox Mountain까지 하이킹해 도시와 오카나간 호수의 가을 풍경을 감상해도 좋다.

📌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는 법적으로 10월 1일부터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겨울용 타이어를 갖추어야 한다.



© Destination BC/Kari Medig



© Andrew Hiltz



캐나다 프레리

사스카추완 주 남부를 돌아보는 4~6일간의 로드 트립.

리자이나의 호텔 사스카추완, 오토그래프 컬렉션 The Hotel Saskatchewan, Autograph Collection → 야생 바이스과 검은꼬리프레리도그가 서식하는 그래스랜드 국립공원 서부 구역 → 수녀원을 개조한 아늑하고 정갈한 숙소, 칸벳트 인 The Convent Inn → 그래스랜드 국립공원 70마일 뷰트 70 Mile Butte 트레일 → 세계에서 가장 큰 티라노사우루스 화석이 전시 중인 티렉스 디스커버리 센터 T.rex Discovery Centre → 인구 1700여 명이 거주하는 작은 마을 소나본에서 지역의 제철 재료를 창의적으로 요리한 수준급 음식을 즐기실 수 있는 허비스트 이터러리 Harvest Eatery → 사스카추완 주에서 가장 높은 지대인 해발 1392m 사이프러스 힐스 공동주립공원 Cypress Hills Interprovincial Park → 캐나다 서부의 유서 깊은 카우보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허스토리 리저 랜치 Historic Reesor Ranch → 사스카추완 주에 있는 유일한 양조장으로 손수 재배한 신선한 곡물과 과일 그리고 꽃을 활용해 위스키와 진 등을 증류하고 숙성하는 블랙 폭스 팜 앤스 디스틸러리 Black Fox Farm and Distillery



온타리오 서클 투어

한국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온타리오 주를 밀도 있게 여행하는 약 1400km 여정.

DAY 1&2

캐나다 제1의 도시, 토론토

CN 타워의 113층에 있는 엣지워크Edgewalk에 도전하며 짜릿하게 도시를 조망한다. 캐나다 최대 규모의 박물관인 로얄 온타리오 박물관Royal Ontario Museum과 건축가 프랑크 게리의 설계가 인상적인 온타리오 미술관Art Gallery of Ontario 등에서 전시를 감상해보는 것은 어떨까. 중세 유럽의 성을 떠올리게 하는 대저택 카사 로마Casa Loma에서 오디오 가이드를 들으며 내부를 거닐어보자. 성 안팎의 역사적인 요소뿐 아니라 토론토 도심의 아름다운 전망이 펼쳐진다. 토론토 도심에서 남쪽으로 조금 떨어진 토론토 섬은 온타리오 호수에 위치한 15개의 크고 작은 섬이다. 도시의 분주함에서 벗어날 뽕게 타오르는 단풍과 이 풍경이 반영된 호수를 바라보며 여유를 즐기자. 맥마이클 캐나다 미술 컬렉션McMichael Canadian Art Collection 등 다양한 박물관에도 방문한다. 로이 톰슨 홀Roy Thomson Hall, 프린세스 오브 웨일스 극장Princess of Wales Theatre, 포 시즌즈 공연 예술 센터Four Seasons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등에서 무용이나 연극, 오페라 등의 공연도 감상해보자.

DAY 3

1 카와사 가을 스튜디오 투어

온타리오에서 인기 있는 휴양지 중 하나인 카와사 지역은 일 년 내내 아름답지만 가을에는 유독 빛을 발한다. 피터버러 미술관Art Gallery of Peterborough이 주최하는 투어로 직접 운전해 다양한 예술가를 찾아가는 방식이다. agp.on.ca/kast 9월 마지막 주말

역사적인 킹스턴

온타리오 동부에 자리한 킹스턴Kingston은 과거 캐나다 연합의 첫 번째 수도였다.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감옥인 킹스턴 교도소뿐 아니라 온타리오 주 유일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헨리 요새도 자리해 옛 정취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세인트 로렌스 강이 시작되는 지점에 위치한 킹스턴에는 1864개의 섬도 자리한다. 이를 천 섬이라고 부르는데, 19세기 초부터 여러 부호와 백만장자가 섬을 사들여 별장을 짓기 시작하며 유명해졌다. 크루즈 투어로 섬을 돌아봐도 좋지만, 헬기를 타고 하늘에서 섬을 내려다보며 반짝이는 세인트로렌스 강과 형형색색의 단풍을 즐겨보자.

1 천 섬 헬리콥터 투어

천 섬 지역의 킹스턴 유적지, 성, 난파선 등 모든 것을 보려면 한 시간가량의 더 워크스 투어The Works Tour를 예약하면 된다.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다. fly1000islands.ca

1 리프트록 크루즈의 수로 탐험

리프트록 크루즈Liftlock Cruises를 통해 역사적인 트렌트 세븐 수로Trent Severn Waterway를 탐험해본다. 3시간짜리 투어는 리틀 호수Little Lake에서 시작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유압식 리프트록을 통과하여 북쪽으로 이동한다. 수로와 수문의 역사에 대한 선장의 해설이 유익하며, 선상에 스낵바도 있다. liftlockcruises.com/triple-crown-fall-colours-cruises

DAY 4&5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

오타와 강이 내려다보이는 고딕 양식의 국회의사당과 근위병 교대식을 구경한다. 역사적인 리도 운하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달려보자. 캐나다의 수도로 도시 전체가 캐나다 박물관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국립박물관이 위치한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리도 운하Rideau Canal는 가을이면 가로수의 단풍이 곱게 물든다. 운하에서 유람선 또는 자전거를

타거나 카누 혹은 카약을 타보자. 바이워드마켓ByWard Market에서 캐나다의 국민 간식인 비버테일도 맛봐야 한다. 튀긴 밀가루 반죽에 가을에 어울리는 계피와 설탕 외에도 누텔라, 바나나, 휘핑크림 등을 잔뜩 얹어 먹을 수 있다. 오타와에서 차로 20분이면 닿는 노르딕 스파-네이처는 주홍빛으로 단풍이 든 숲속에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북유럽 스타일의 야외 온천이다.

1 선댄스 벌룬스의 열기구 탑승

열기구를 타고 온타리오 주의 오타와, 세인트 제이콥스, 키치너-워털루 등지에서 일출 및 일몰을 감상하자. 5월부터 10월까지 1시간 동안 비행한다. sundanceballoons.com

DAY 6&7

가을의 진수, 무스코카와 알곤퀸 주립공원

온타리오 중부의 무스코카는 본연의 호수, 한대림, 화강암 등이 펼쳐져 있어 재즈의 거장 루이 암스트롱 등 유명 인사들이 별장을 짓고 휴가를 보냈던 곳이다. 울긋불긋한 단풍 숲 사이로 무스와 비버 등을 마주칠지도 모른다. 북미에서 가장 오래된 증기선을 타는 클래식 무스코카 크루즈 투어에 나서면, 아름다운 무스코카 호수와 여러 별장을 유람할 수 있다. 무스코카 남쪽의 알곤퀸 주립공원에 가을이 오면 찬란한 단풍 사이를 누비며

캠핑, 백패킹, 보트나 카누 타기, 낚시, 하이킹 심지어 '늑대 울음소리 배우기'까지도 경험해볼 수 있다. 무스코카의 지역 상점을 둘러보고 장인의 공방 투어에 참여한다. 북미에서 가장 오래된 증기선인 알엠에스 세권RMS Segwun을 타고 아름다운 무스코카 호수를 유람한다. 협소한 캐나다인 실드로 둘러싸인 코스에서 골프를 즐기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다. 알곤퀸 주립공원에는 2400개가 넘는 호수와 셀 수 없이 많은 트레일이 있다.

1 무스코카 크랜베리 루트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온타리오 일대는 크랜베리 수확으로 분주하다. 무스코카 크랜베리 루트를 따라가며 크랜베리를 탐험해보자. 그중 무스코카 레이크스 팜 엔드 와이너리Muskoka Lakes Farm & Winery의 농장 투어를 추천한다. 존스톤 크랜베리 습지Johnston's Cranberry Marsh를 예쁘고 다니는 크랜베리 플랜지와 크랜베리 와인 시음도 포함된 보그 투 보틀 디스커버리 투어Bog to Bottle Discovery Tour 같은 흥미로운 활동이 기다린다. 헌츠빌 브루하우스Huntsville Brewhouse에서는 크랜베리 주스를 곁들여 크랜베리 칠면조 버거를 맛보자. 비버테일즈 헌츠빌Beavertails Huntsville의 크랜베리 푸틴 역시 놓칠 수 없다.



© Destination Ontario



© Le Cordon Bleu



© George Fischer



© Destination Canada

DAY 8

블루마운틴

아름다운 휴양지 블루 마운틴 리조트에 머무르며 동굴 탐험과 하이킹뿐 아니라 골프도 즐길 수 있다. 곤돌라를 타고 조지안 만이 내려다보이는 탁 트인 고도에 이르면 경이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스릴을 느끼고 싶다면 777m 거리의 zip라인을 타보자.

1 블루마운틴의 오픈 에어 곤돌라

나이아가라 절벽과 인접한 블루 마운틴 리조트의 곤돌라는 단풍의 경이로운 익스플로러 울데이 패스로 하루 동안 무제한 이용할 수 있으며, 하이킹 등 여러 트레일 등의 접근도 가능하다. 곤돌라는 10월 중순까지 운행. bluemountain.ca

1 조지안 베이 에어웨이스의 비행

조지안 베이 에어웨이즈Georgian Bay Airways의 풀 컬러스 투어Fall Colors Tour를 통해 풍부한 가을 빛깔로 물든 무스코카의 아름다운 호수, 섬, 마을 위를 지나다. 이 투어는 10월 중순까지 제공되며, 45분 소요된다. georgianbayairways.com

DAY 9&10

웅장한 나이아가라 폭포

가을에 나이아가라 폭포 주변은 나무가 알록달록 물들고 이러한 색채가 거대한 물줄기와 대비되며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가을이 10월 말부터 11월까지 더 오래 머무는 편이라고. 도로 위에서 보는 것 외에 보트 투어를 통해 폭포 아래까지 가보는 것을 추천한다. 53m 높이에서 낙하하며 심장을 혼드는 물줄기 소리와 얼굴에 닿는 물안개 등 폭포의 엄청난 에너지가 경이롭다. 폭포 뒤에 숨은 터널인 저니 비하인드 더 폴스Journey Behind the Falls에 가보자. 헬리콥터에서 폭포를 바라보거나 나이아가라 시티 크루즈를 타고 폭포가 부서지는 현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 월풀 제트 보트 투어Whirlpool Jet Boat Tour를 통해 나이아가라 강의 급류를 타보는 것도 재미있다. 저녁엔 석양과 함께 무지갯빛으로 반짝이는 폭포를 만날 수 있다. 폭포 인근에 자리한 와인 성지인 나이아가라 온 테레이크에서 와이너리 투어를 통해 다양한 와인도 음미해보자. 100개 이상의 다양한 와이너리가 즐비한 와인 루트를 따라 고급 빈티지를 선택해 현지 요리와 페어링한다. 수상 경력이 빛나는 아이스 와인도 놓칠 수 없다.



© Norris, Garry



퀘벡 주에서 최고의 10일

DAY 1&2 몬트리올

17세기에 조성된 올드 몬트리올 지역을 산책하고 몽로얄 공원의 벨베데레에서 도시의 전경을 감상한다. 높이 165m, 각도 45도인 몬트리올 타워에서도 도시의 풍경이 아름답게 펼쳐진다. 여러 생태계를 재현한 몬트리올 바이오돔과 몬트리올 식물원도 둘러볼 수 있다.

DAY 3&4 라모리시 국립공원 02:30

라모리시 국립공원La Mauricie National Park을 여행하는 최고의 방법은 바버 폭포Waber Falls까지 카누로 8km, 하이킹으로 8km를 이동하는 것. 이외 낚시 등을 즐겨도 좋다.

DAY 5&6 사그네 피오르 국립공원 04:15

15번 도로를 따라 이동하면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다. 사그네 피오르 국립공원Parc national du Fjord-du-Saguenay를 하이킹하거나 인근의 아기자간 마을을 둘러본다. 보트 크루즈를 통해 피오르를 탐험해도 좋다.

DAY 7 샤를부아 01:45

예술 애호가라면 베생폴Baie St-Paul 마을로 향하자. 건기를 좋아한다면 오토-고르주-드-라 리비에르-말베 국립공원Parc national des Hautes-Gorges-de-la-Rivière-Malbaie을 탐험할 수 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원한다면 생-조세프-드-라-강Saint-Joseph-de-la-River에서 무료 페리를 타고 20분 정도 걸리는 작은 섬, 쿠드르 섬이 마음에 들 것이다.

DAY 8&9 퀘벡 시티 01:00

뒤프랭 테라스Dufferin Terrace를 따라 산책하며, 꼭 감상해야 하는 건축물인 페어몬트 샤토 프롱트낙 호텔을 마주한다. 이곳에서 숙박은 물론 가이드 투어도 가능하다. 노트르담 대성당을 지나 케이블카를 타고 프티-샬렝Petit-Champlain으로 향해 로얄 광장 등을 구경한다. 10월까지 운영되는 세인트로렌스 강의 디너 크루즈도 놓칠 수 없다. 이외에도 아브라함 평원과 국회의사당, 노란 단풍이 인상적인 교외의 몽모랑시 폭포 등을 방문한다.

DAY 10 몬트리올 03:00

다시 몬트리올로 돌아와 옛워터 시장Marché Atwater에서 메이플 시럽 등 현지 특산품을 구입하고, 인근의 라신 운하를 산책한다.

가을 만끽 퀘벡 시티 5일 여행

DAY 1 역사와 문화 그리고 황금빛 석양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올드 퀘벡의 400년 넘는 역사를 가이드 투어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후 아브라함 평원에서 곱게 물든 단풍을 즐겨보자. 시타델Citadelle 인근은 샤토 프롱트낙과 함께 가을빛으로 물든 퀘벡 시티의 엽서 같은 풍경이 펼쳐진다. AML 디너 크루즈에 탑승해 세인트로렌스 강을 따라 항해하며 석양을 감상하고 와인과 함께 저녁 식사를 즐긴다.

DAY 2 도시의 시작과 선주민

퀘벡 시티가 처음 건설된 로얄 광장에 있는 라 메종 스미스La Maison Smith에서 카페오레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한다. 부티크가 즐비한 프티-샬렝 거리에서 기념품을 골라봐도 좋다. 자전거를 빌려 사무엘-드 샬렝 프롬나드를 달리며 세인트로렌스 강을 따라 가을을 만끽한다. 이후 웬다케Wendake 지역으로 향해 휴란-웬다트 선주민Huron-Wendat Nation의 역사와 문화를 조망하는 1.2km의 인터랙티브 트레일 온화 루미나Onhwa Lumina를 체험해본다.



© Norris, Garry

DAY 3 폭포와 섬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높은 몽모랑시 폭포를 다양한 각도에서 구경하고 인근의 오프레앙 섬을 방문해 퀘벡의 음식 문화를 경험한다. 138번 고속도로를 따라가다 생땅 협곡에 이르러 60m 높이의 현수교를 건너본다. 카프 투르망트 국립야생동물보호구역에서는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흰기러기를 볼 수 있다.

DAY 4 하이킹과 노르딕 스파

자크 카르티에 국립공원에서 하이킹을 하거나 카누를 타며 단풍을 즐긴다. 이후 노르딕Nordique, 스트림 스파Ström Spa, 시베리아Sibéria 같은 노르딕 스파에서 피로를 풀어 오후를 보낸다.

DAY 5 고래 관찰

가을은 퀘벡에서 고래를 관찰하기 가장 좋은 시기다. 아침에 출발하는 AML 크루즈의 고래 관찰 투어 보트에 탑승해 세인트로렌스 강을 따라 사그네 피오르까지 이동한다. 저녁에는 몽캄Montcalm이나 생-장-바티스트Saint-Jean-Baptiste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다채로운 미식을 경험할 수 있다.



아틀란틱 캐나다 로드 트립

노바스코샤주에서 출발해 뉴브런스위크와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주를 여행하는 서클 투어를 소개한다.

노바스코샤주

⑦ 할리팩스

4km에 달하는 할리팩스 워터프론트에서 조식을 먹고 박물관과 상점을 둘러본다. 주말이면 파머스 마켓을 구경해도 좋다. 항구가 내다보이는 파티오에서 브런치를 즐긴 뒤, 할리팩스 하버 보트 투어를 떠나자. 할리팩스에서의 하루는 라이브 음악과 함께 현지 수제 맥주를 시음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된다. 이튿날, 할리팩스 중심부의 녹색 오아시스인 할리팩스 공공 정원Halifax Public Gardens을 산책한 다음 아이 허트 바이크 Heart Bikes 자전거 투어를 신청해 시내를 돌아보는 방법도 이색적이다. 로컬 테이스팅 투어Local Tasting Tours 혹은 테이스트 할리팩스 푸드 & 비어 투어Taste Halifax Food & Beer Tours를 통해 현지 음식도 탐험해보자.

⑦ 루넨버그

루넨버그 워킹 투어Lunenburg Walking Tours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본다. 활기찬 가이드가 역사적인 항구도시에 관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투어를 마친 뒤에는 오색찬란한 거리를 거닐며 오프스러운 상점을 둘러본다. 항구를 내다보며 현지 해산물 요리로 점심을 해결하고, 아이언웍스 증류소Ironworks Distillery에서 럼 시음을 즐긴다. 다음은 블루노스 2호Bluenose II를 타고 항구 투어에 나설 차례다. 대서양 수산 박물관Fisheries Museum of the Atlantic에서는 블루노스 2호의 역사에 대해 좀 더 알아볼 수 있다. 화이트 포인트 비치 리조트White Point Beach Resort 혹은 퀴터덱 비치사이드 빌라Quarterdeck Beachside Villas에서 바다를 감상하며 저녁 식사를 즐기고, 석양빛으로 물든 해변을 산책하자.

⑦ 아나폴리스 벨리

노바스코샤에 있는 3곳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중 하나인 그랑 프레 국립 사적지Grand-Pré National Historic Site에서 아나폴리스 벨리 모험을 시작한다. 노바스코샤의 와인 컨트리도 빼놓을 수 없다. 울프빌 매직 와이너리 버스Wolfville Magic Winery Bus는 각 와이너리 사이를 이동하며 투어를 즐기는 완벽한 방법.

⑦ 디비

디비는 세계적 가리비 산지다. 마을의 펍과 레스토랑을 방문하면 신선한 가리비를 주제로로 내놓는 창의적인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이 오프스러운 마을은 숙소 선택의 폭이 넓다. 활기찬 분위기의 여관과 민박부터 친절한 호스텔, 캠핑장 그리고 아름다운 디비 파인스 골프 리조트 & 스파Digby Pines Golf Resort & Spa까지 일대에 자리한다. 하이킹 코스, 상점, 레스토랑, 해안가 모두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것도 장점. 노바스코샤와 뉴브런스위크 사이의 펀디만을 가로질러 연중 운항하는 페리를 타고 마을로 들어갈 수 있다.

뉴브런스위크주

⑦ 세인트존

펀디만의 유일한 도시인 세인트 존에서 19세기 건축물이 잘 보존된 좀더한 거리를 거닐고 카페나 마이크로 브루어리에서 느긋하게 여유를 만끽해보자. 엽타운 세인트 존Uptown Saint John은 즐고 가파른 거리와 아름다운 역사 건축이 어우러진 활기찬 다운타운이다. 선체를 뒤집은 지붕으로 유명한 세인트 존 시티 마켓Saint John City Market을 둘러보고, 이탈리아풍과 제2제정 시대의 건축이 늘어선 프린스 윌리엄 스트리트 Prince William Street를 거닐어보자.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세인트 존은 자연 애호가와 안식처이기도 하다. 엽타운이 내다보이는 킹스 스퀘어 King's Square에서 이를 잘 확인할 수 있다. 어빙 자연 공원Irving Nature Park에는 11km 길이의 트레일이 조성되어 있으며, 록우드 공원Rockwood Park은 북미에서 가장 큰 도심 공원으로 꼽힌다. 펀디만의 조수가 강 하구의 물을 역류시키는 광경으로 유명한 리버싱 폴스 래피즈Reversing Falls Rapids도 놓칠 수 없는 볼거리다.

⑦ 호프웰 록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조수 간만의 차가 발생하는 펀디 만에는 하루에 두 번 1600억 톤의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간다. 해양의 거적으로 꼽히는 이곳에선 다채로운 모험을 즐길 수 있다. 펀디 만 조수의 힘을 제대로 실감하고 싶다면 호프웰 록스 국립공원 Hopewell Rocks Provincial Park으로 향하자. 썰물 때 모습을 드러내는 해저 일대를 탐험하는 동안 나무로 뒤덮인 독특한 사암 지형에 감탄사가 절로 나올 것이다. 만조 때는 카약을 타고 경이로운 지형 곳곳을 탐험할 수 있다. 만조에서 썰물까지 6시간 남짓 걸리기에 이 극적인 장면을 하루 안에 모두 조우하게 된다.

⑦ 몽튼

펀디 만과 아카디아 해안 사이에 위치한 몽튼은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펀디 만의 여행을 마치고 쉬어가기 좋다. 몽튼, 디에프Dieppe, 리버뷰Riverview를 아우르는 그레이트 몽튼 지역은 영국과 프랑스 아카디아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아웃도어와 도시 여행이 적절하게 어우러진 지역이기도 하다. 펀디 만 조수의 힘으로 프티코디아 강Petitcodiac River의 흐름이 바뀌는 이 일대에서 활기찬 아웃도어 여행을 즐겨보자. 가벼운 산책부터 하이킹, 골프, 사이클링까지 폭넓은 아웃도어 여행이 기다린다.

⑦ 셰디아к

뉴브런스위크의 아름다운 동부 해안을 따라 자리잡은 셰디아에서 살이 딱 찬 랍스터를 맛보자. 랍스터 낚시를 비롯해 랍스터 축제까지 세계 랍스터 수도로 일컫는 이유를 알게 된다. 장장



© Chantal Garcia



© Tourism Nova Scotia / Photographer: Acorn Art & Photography

12.9km에 달하는 컨페더레이션 브리지Confederation Bridge를 차로 통과하는 데 10분 남짓 소요된다. 이 다리는 뉴브런스위크주와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주를 연결한다.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주

⑦ 샬럿타운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의 주도인 샬럿타운은 규모는 작지만 큰 에너지와 섬의 환대로 가득한 해변 도시다. 이곳은 문화와 축제, 이벤트를 비롯해 수공예 상점, 세계적 수준의 레스토랑 등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다채롭다.

⑦ 캐번디시

루시 모드 몽고메리Lucy Maud Montgomery는 1874년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의 북쪽 해안에서 태어나 조부모의 손에 이끌려 캐번디시에서 자랐다. 그녀는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를 배경으로 한 소설 《빨간 머리 앤》을 발표하면서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⑦ 노스케이프

짙조름하고 달콤한 말페크Malpeque 굴의 고향으로 떠날 차례다. 노스 케이프North Cape 해안 지역의 따뜻하고 알은 만과 하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말페크 굴이 서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캐나다 최고의 굴 생산지인 이곳에서 굴을 맛보는 여행은 필수.

노바스코샤주

⑦ 캐벗트레일

샬럿타운 남쪽, 우드 아일랜드Wood Islands에서 페리를 타면 맞은편 노바스코샤 주의 카리부Caribou에 도착한다. 케이프브레튼 섬은 육로로 연결되어 있어 드라이브 여행을 이어가기에 좋다. 그리고 이곳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벗트레일이 존재한다. 드라마틱한 해안 경관, 고지대 풍경, 브라더 호수, 다양한 하이킹 코스, 세계적인 수준의 골프, 켈트 문화와 활기찬 음악의 현장으로 떠나보자.

Canada's Alberta 알버타 주에 주목하라

캐나다인 로키로 유명한 알버타 주가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다. 추성훈과 친구, 배정남이 캐나다의 국립공원을 탐험하는 MBN 예능 프로그램 <더 와일드>에서 알버타 주의 야생을 모험하는 짜릿함을 선사한 것. 가을빛으로 물든 알버타 주의 대자연 속에서 로드 트립과 캠핑 등을 즐기는 장면은 그곳으로 떠나고 싶은 마음을 자극한다. 게다가 알버타 주로 향하는 가장 빠른 길이 열린다. 캐나다 2대 항공사인 웨스트젯 WestJet이 2024년 5월 17일부터 인천-캘거리 직항 노선을 주 3회 운항한다. 이는 아시아에서 캘거리로 가는 두 번째 직항 노선이다. 이제 더욱 빠르게, 편안하게 알버타 주로 떠나자!
travelalberta.com

알버타 주 기본 정보

주도는 에드먼턴이고, 가장 큰 도시는 캘거리다. 우리나라의 약 7배 면적을 지닌 알버타 주에는 로키 산맥 외에도 광활한 평야와 암석 지형 등 이색적인 풍경이 가득하다. 북부 지역에서는 오토로드 볼 수 있다. 알버타 주에서만 시간을 보내도 풍성한 여행이 펼쳐질 것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방문하기

유네스코는 인류를 위해 보호해야 할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자연 및 문화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 있다. 알버타 주는 캐나다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주이다. 알버타 주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방문해 그 역사와 문화를 탐험하자. 캐나다인 로키 산맥 공원 Canadian Rocky Mountain Parks, 공룡 국립공원 Dinosaur Provincial Park, 헤드 스머시드 인 버팔로 점프 Head-Smashed-In Buffalo Jump, 우드 버팔로 국립공원 Wood Buffalo National Park, 워터튼-글레이셔 국제평화공원 Waterton-Glacier International Peace Park, 라이팅-온-스톤 Writing-on-Stone. 이렇게 총 여섯 곳이다.

캘거리

캐나다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꼽히기도 한 캘거리는 현대적인 대도시지만 서부 개척 시대의 문화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카운타운이라고도 불린다. 캐나다의 에너지 중심지인 캘거리는 박물관, 파인 다이닝, 쇼핑, 엔터테인먼트뿐 아니라 부티크, 양조장 등이 혼재된 독특한 정체성을 띤다. 도시의 편리함과 자연의 즐거움을 모두 지닌 활달한 도시, 캘거리의 매력에 빠져보자.

즐길 거리 6

캘거리에서 꼭 방문해야 하는 여섯 곳.

헤리티지 파크 히스토리컬 빌리지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자. 헤리티지 파크 히스토리컬 빌리지 Heritage Park Historical Village에 가면 전통 의상을 입은 안내원에게 캐나다 서부의 1860년대~1950년대의 역사를 배울 수 있다. 5만5000개 이상의 유물과 180개 이상의 작품이 생생한 역사를 보여준다.

포트 캘거리

보우 강 Bow River과 엘보우 강 Elbow River이 합류하는 지점에 포트 캘거리 Fort Calgary가 자리한다. 수천 년 동안 이 땅을 고향으로 여기던 선주민에게 중요한 지점이다. 이곳에서 캘거리 시가 세워진 역사 등을 알아갈 수 있다. 셀프 가이드 오디오 투어를 통해 요새 주변의 공원을 둘러보자.

스튜디오 벨

캐나다의 국립 음악 센터가 있는 스튜디오 벨 Studio Bell에서 직접 악기를 연주해보고 다양한 음악 관련 컬렉션과 대중음악사 등을 살펴보자. 엘튼 존의 작곡 피아노와 유명인들의 무대의상도 있다. 캐나다 음악 명예의 전당 Canadian Music Hall of Fame에서 전시를 감상해도 좋다.

컨템포러리 캘거리

컨템포러리 캘거리 Contemporary Calgary에서 캐나다의 동시대 예술가들의 전시를 감상하자. 현대미술에 초점을 맞춘 이곳은 건물 자체가 예술 작품이다. 이외 시내 곳곳에서도 다채로운 벽화를 만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벽화도 캘거리에 존재한다.

에스커 재단

비영리 예술 공간인 에스커 재단 Esker Foundation에서 신진 작가와 유명 작가의 현대미술 작품을 접할 수 있다. 4층에 있는 전시실을 둘러보고 거리에 있는 프로젝트 공간도 돌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현대미술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커뮤니티도 운영 중이다. 입장료도 무료.

글렌보우 박물관

글렌보우 박물관 Glenbow Museum의 시내 본관은 지난해 새단장을 마치고 새롭게 거듭났다. 50년 넘게 캘거리 예술 현장을 지켜온 박물관에서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나보자.

식도락 3

캘거리에서 꼭 먹어야 하는 음식.

알버타 스테이크

알버타 주의 소고기는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맛과 품질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카운타운이라 불리는 도시에서 먹는 스테이크는 그야말로 완벽하다. 기본에 충실한 맛을 원한다면 시저 스테이크 하우스 Caesar's Steak House를, 트렌디한 분위기를 즐기고 싶다면 모던 스테이크 Modern Steak에 방문하자.

진저비프

캘거리에서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중국식 요리. 소고기에 반죽을 묻혀 생강 소스와 함께 볶은 음식으로 바삭한 식감이 특징이다. 1970년대 홍콩에서 캘거리로 이주한 조지 왕 George Wong이 창업한 더 실버 인 레스토랑 The Silver Inn Restaurant에서 선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운맛을 좋아하는 한국인에게는 실버 드래곤 Silver Dragon을 추천한다.

시저 칵테일

클래식, 매콤함, 탁함. 이 세 가지 맛이 시저 Caesar 칵테일의 변하지 않는 기본적인 맛이다. 보드카와 클라마토 주스, 핫 소스와 후추 등이 들어간 칵테일은 1969년 캘거리 인 Calgary Inn(현재는 더 웨스턴 캘거리)의 매니저였던 월터 켈 Walter Chell이 만들어 캐나다 전역으로 퍼졌다. 심플한 클래식 스타일의 시저를 맛볼 수 있다.





© Robin Laursen @motherpixels

에드먼튼

알버타 주의 주도인 에드먼튼은 한국에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캐나다에서는 가장 큰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지구로 알려져 있다. 웨스트 에드먼튼 물뿔 아니라 엘크 아일랜드 국립공원과 포트 에드먼튼 공원, 알버타 미술관 등지에서 에드먼튼의 의외의 매력을 발견해보자.

즐길 거리 7

에드먼튼에서 꼭 즐겨야 하는 일곱 가지.

포트 에드먼튼 공원

살아 있는 박물관인 포트 에드먼튼 공원Fort Edmonton Park에서 이 도시의 시작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지역의 역사를 더 깊이 살펴보고 싶다면 선주민 체험iyiniwak okiskiyitamowiniwaw을 신청하자.

네온사인 박물관

오래된 영화관부터 빵집까지 완벽하게 복원된 20개의 네온 사인이 야외에 전시된 박물관으로 향하자. 이 네온사인 박물관Neon Sign Museum은 캐나다에서 유일한 박물관으로 연중무휴로 운영 중이다.

노스 사스카추완 리버 밸리

사스카추완강은 선주민이 수천 년 동안 모여서 살았던 곳이자 유럽인들이 도착해 요새를 건설한 곳이다. 이 강을 따라 조성된 노스 사스카추완 리버 밸리North Saskatchewan River Valley는 캐나다 최대의 도시 공원이다. 강을 건널 때에는 1913년에 지은 하이 레벨 브리지High Level Bridge를 이용하자.

에드먼튼 오일러스

스탠리 컵Stanley Cup을 다섯 번이나 들어 올린 에드먼튼의

식도락 3

에드먼튼에서 꼭 먹어야 하는 음식.

파케이크

처음 보면 의아한 음식인 파케이크Green Onion Cake는 겉은 바삭, 속은 쫄깃하며 파가 듬뿍 들어 있다. 에드먼튼의 많은 축제와 시장의 필수 메뉴이면서 레스토랑에서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팬에 튀긴 팬케이크 같은 질감, 도넛처럼 폭신평신했던 튀김 두 가지 버전이 있다. 그대로 먹기도 하고 핫 소스와 함께 먹기도 하다. 최고의 선택은 펄리버Pearl River 레스토랑이다.

돈에어

돈에어Donair는 그리스 자이로Gyro 및 튀르키예 슈와마Schawarma와 비슷한 캐나다 요리다. 잘 구운 소고기를 수직 로티세리에서 잘라낸 다음 피타로 감싸고 달콤한 맛의 허안 소스를 뿌린 후 토마토와 양파를 얹는다. 특히 야식으로 먹는 게 가장 맛있다. 마르코스 페이머스Marco's Famous에 간다면 실패할 걱정이 없다.

페로기

감자와 치즈로 속을 채워 만든 페로기Pierogi는 에드먼튼의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공동체가 빚어낸 만두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속재료로 베이컨, 양파, 절인 양배추, 버섯을 넣기도 하고 다양한 과일을 넣어 디저트로 먹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삶거나 튀겨서 버터와 사워크림과 함께 먹는다. 에드먼튼은 페로기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유서 깊은 엉클 에드 우크라이나 레스토랑Uncle Ed's Ukrainian Restaurant을 추천한다.



© Travel Alberta / Mike Seehagel



© Travel Alberta / Roth & Ramberg

선주민 문화와 만나는 곳

알버타 주에는 48개의 선주민 부족이 있다. 그리고 8개의 메티스 부족의 정착지가 자리한다. 알버타 주는 정부 차원에서 선주민 문화를 기억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많은 여행자와 선주민이 만나 교류하며 알버타 주의 다양한 문화를 널리 알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선주민 문화와 만나고 전통적인 생활을 체험해보자.

메티스 크로싱Métis Crossing

18세기 프랑스와 스코틀랜드에서 캐나다로 온 사람들과 선주민이 결혼해 자리를 잡으면서 메티스 부족이 시작되었다. 그들의 후손은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발전시키며 선주민 문화를 일거웠다. 그때 스모키 호수 근처에 건설된 메티스 크로싱은 알버타 주 최초로 메티스 부족이 정착했던 지역이었다. 그들은 모피 무역을 하고, 사냥을 하고 지역 가이드가 되었다. 1982년에 메티스 부족은 캐나다의 선주민 세 그룹 중 하나로 인정받았다. 메티스 크로싱에서는 다양한 선주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전통 예술 체험 무스 털 장식을 만들어볼 수 있다. 모카신과 옷을 장식하는 액세서리로 오랫동안 사용해왔는데, 무스, 사슴, 엘크의 털을 사용하여 액세서리를 만들 수 있다.

선주민 요리 메티스 크로싱 안의 레스토랑에서 선주민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요리를 먹을 수 있다. 들소Bison고기를 사용한 버거와 스튜, 채식 수프 등이 나온다. 보릿가루 또는 오토밀로 만든 납작한 빵인 배눅Bannock을 먹을 수 있다.

야생동물 공원 1860년대 멸종된 흰 들소를 볼 수 있다. 야생 동물 공원에서는 작은 무리의 들소를 만날 수 있고, 선주민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신성한 생명체라고 믿는다.

가을의 수확 체험 가을에 메티스 크로싱에 찾아오면 베리를 수확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든 풍경을 볼 수 있다.



© Travel Alberta

HIDDEN TREASURE

선주민 문화 경험하기

메티스 부족의 숨결이 남아 있는 숙소부터
마히칸, 페인티드 워리어, 워리어 워민 등
알버타 주의 다양한 선주민 문화를 만나보자.

경이로운 숙소, 스카이 돔

메티스 크로싱에서 메티스 부족은 밤이면 하늘에 떠 있는 별자리를 보며 생활했다. 특히 이곳에 있는 숙소 중 스카이 돔에서는 오히려도 관찰할 수 있지만, 주로 별을 관측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여행자들이 많다. 돔 스타일의 호화로운 숙소에서는 투명한 천장이 압권이다. 또한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 킹 사이즈 침대가 있어 피로를 풀기에 적합하고, 부엌에서는 직접 요리를 할 수도 있다. 바닥은 온돌로 되어 있고, 냉방 시설도 잘 구비되어 있어 가을의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안락하게 쉴 수 있다.
metiscrossing.com

마히칸 선주민 투어

순드레 메디신 워크 Sunde Medicine Walk 선주민의 지혜가 담긴 약초 투어를 떠나보자. 가이드인 브랜다 홀더는 초원과 숲속을 산책하며 생존에 필요한 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또한 독감이나 감기에 걸렸을 때 효과가 있는 사과주를 만드는 법을 알려주기도 한다. mahikan.ca
소요 시간 1시간 30분~2시간 투어 일정 매일

살브스 버터 앤 로션 Salves Butters and Lotions 여유가 있다면 이틀간 이어지는 선주민의 스킨케어 방법을 익혀보자. 오일을 다루는 기법과 고급 기술은 물론 왁스의 특성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직접 버터와 로션을 만들 수 있다. 재료를 수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워크숍을 통해 땅과 삶이 연결된 지점을 느껴보자. mahikan.ca
소요 시간 이틀간 10~12시간 워크숍 일정 사전 확인 필요

페인티드 워리어 투어

비모지게 활쏘기 체험 Bimjige Archery Experiences 선주민 사냥꾼이 활을 쓰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 또한 선주민에게 화살로 하는 사냥이 어떤 의미인지도 체득하는 시간이 된다. 용도별로 다른 화살촉에 대해 배우고, 전통적인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활쏘기 기술과 그들의 문화를 함께 배워보자. paintedwarriors.ca
소요 시간 4시간 체험 기간 5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비무미고 Bimomigo 비무미고는 말을 타고 간다는 뜻이다. 페인티드 워리어 부족들은 일 년 내내 말을 타고 로키 산맥과 황야를 탐험한다. 처음 말을 타는 초급자부터 능숙한 사람까지 모두 선주민의 관점에서 말을 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선주민과 함께 말을 타고 승마의 기분을 배우고 실습할 수 있는 호스 테일 앤 트레일 Horse Tails and Trails을 추천한다. paintedwarriors.ca
소요 시간 4시간 가격 한 사람당 225CAD

워리어 워민 투어

파이어사이드 챗 Fireside Chat 대화와 묵상에 빠져보자. 저녁 시간에 모닥불 옆에 모여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고 드럼 연주와 노래를 듣고 있으면 선주민 문화에 빠져들게 된다. 선주민 운영 여행사인 워리어 워민은 그들의 노래와 크리의 말을 친절하게 알려줄 준비가 되어 있다. warriorwomen.ca
소요 시간 2시간 가격 45CAD

비즈 공예 클래스 Beading Class 역사가 담긴 비즈 공예를 배워보자. 워리어 워민은 “구슬은 악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 선주민의 전통이 담긴 자신만의 기념품을 만들어보는 것은 특별한 추억이 된다. warriorwomen.ca
가격 60CAD



© Indigenous Tourism Alberta



© Indigenous Tourism Alberta / ROAM Creative



© Travel Alberta / Colin Way



© Travel Alberta / North Grove Creative



© Travel Alberta / Scott Bakken

세계 공룡의 수도

공룡 마니아라면 알버타 주로 꼭 떠나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큰 공룡 화석 중 일부가 발견된 장소인데, 특히 공룡 주립공원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다. 이곳에서 발견된 화석이 전 세계 화석의 5%에 달한다. 실제로 가이드와 함께 화석 발굴을 해볼 수도 있고, 기네스에 등재된 세계 기록을 지닌 화석을 관람할 수도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공룡의 입 안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오직 알버타 주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여행이다.



© Travel Alberta / George Simhoni

공룡의 땅으로

공룡의 흔적을 따라가는 로드 트립 코스 3.

코스1 > 다이너소어 트레일 루프 Dinosaur Trail Loop - 배드랜드스 Badlands - 다이너소어 계곡 Dinosaur Valley - 드럼헬러 Drumheller - 호스슈어 캐년 Horseshoe Canyon - 세계에서 가장 큰 공룡 World's Largest Dinosaur - 로얄 티렐 박물관 Royal Tyrrell Museum

코스2 > 그랜드 프레리 Grand Prairie - 필립 J. 커리 공룡 박물관 Philip J. Currie Museum - 파이프스톤 크릭 캠핑장 Pipestone Creek Campground

코스3 > 공룡 주립공원 Dinosaur Provincial Park에서만 시간을 보내자. 방문자 센터에서 하이킹 코스, 캠핑, 여러 날 이어지는 발굽 투어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다.

선사시대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곳 5

드럼헬러 Drumheller
초자연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7000만 년 된 화석층, 유령이 나오는 호텔 등 이야기로 가득하다. 또한 드럼헬러는 공룡 주립공원을 탐험하기 위한 중요한 거점이 되어준다. 드럼헬러에서 공룡부터 뛰어난 대자연까지 모두 느껴보자.

로얄 티렐 박물관 Royal Tyrrell Museum
캐나다에 있는 유일한 고생물학 전문 박물관이다. 선사시대를 생생하게 재현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공룡 전시관이 있어서 모험심을 자극한다.

배드랜드스 Badlands
황우지로 떠나는 여행이라고 하면 당혹스러울 수 있지만, 이곳에서는 지구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풍경이 펼쳐진다. 요정의 굴뚝이라고 알려진 바위 암석부터 화석이 남은 지층, 암석 협곡까지 우주 행성에 온 것 같은 기이하면서도 아름다운 풍경을 즐겨보자.

후두스 트레일 Hoodoos Trail
후두스는 이판암 위에 사암이나 석회층이 쌓여서 만들어진 바위 기둥이다. 5~7m 정도 높이까지 쌓이기에 수백만 년이 걸린다. 마치 침탑이나 버섯같이 생긴 후두스를 쉽게 볼 수 있다.

필립 J. 커리 공룡 박물관 Philip J. Currie Museum
고생물학을 위해 연구, 수집, 보존,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국제 기관이다. 미리 신청하면 7~14세 어린이는 박물관에서 하룻밤을 잘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다. 가을에는 월요일부터 수요일 사용간 휴관, 목요일부터 일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 Travel Alberta / Mike Seehage!



© Andrew Penner

로키의 남쪽

아직 사람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아 아름다운 자연을 간직하고 있는 로키 산맥의 남쪽으로 향해보자. 웅장한 자연이 우리를 맞이한다. 캘거리 공항에서 차로 약 2시간 30분 소요된다.

그림 같은 풍경 상상하는 것과 다른 자연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다. 여행객이 적어 여유롭게 피크닉을 즐기거나 그저 아름다운 풍경을 넋을 놓고 바라보기만 해도 충분하다.

불가사의한 길 구불구불한 크로우네스트 고속도로Crowsnest Highway가 로키 산맥 남쪽을 지난다. 로드 트립을 하면서 폭포, 유적지, 캐나다 최대 규모의 암석 붕괴 잔해를 볼 수 있다.

자전거 여행 전기자전거부터 산악자전거까지 약 50km의 트레일 코스를 따라 여행할 수 있다.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 스틸 넘치는 자전거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야생동물 들소, 곰과 같은 야생동물이 평원과 능선을 가로지르며 돌아다닌다. 하이킹을 하거나 울드만 강을 따라 가면서 다양한 야생동물을 관찰할 수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가자

워터튼 레이크 국립공원Waterton Lakes National Park 붉은 협곡이 있는 국립공원이다. 이곳에는 다양한 야생동물이 살고 있으며 너른 평원과 웅장한 로키 산맥이 끝없이 펼쳐진다. 하루 종일 하이킹을 해도 질리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이어지는 곳. 1927년에 문을 연 이 지역 랜드마크이자, 유서 깊은 장소인 프린스 오브 웨일즈 호텔Prince of Wales Hotel에 묵는 것도 추천한다. parks.canada.ca/pn-np/ab/waterton

풍경이 근사한 도로를 달리자

크로우네스트 패스를 따라서 드라이브를 하는 것은 알버타 주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는 시닉 드라이브 여행이 된다. 반드시 들려야 할 명소를 추천했다.

프랭크 슬라이드Frank Slide

이 지역에서 가장 악명 높은 명소 중 하나이자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큰 산사태가 발생했던 곳이다. 1903년 터를 산Mt. Turtle의 한 부분이 무너지며 90초 만에 프랭크 광산 마을 일부가 매몰되었다. 1억1000만 톤의 석회암이 쏟아져 흘러내린 산사태의 흔적을 지금도 직접 볼 수 있다.

버미스 나무Burmis Tree

크로우네스트 패스의 상징적인 랜드마크인 나무다. 수백 년 된 이 나무는 알버타 주에서 가장 많이 사진에 찍힌 나무일 것이다. 혹독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로 약 700년간 살아왔고,

현재는 죽어서 아름다운 수형만 간직하고 있다. 특히 일출 때 촬영한 사진이 무척 아름답다.

치누크 주립 휴양지

Chinook Provincial Recreation Area 크로우네스트 산을 배경으로 자리 잡은 숲에서 가을을 만끽하자. 호수 위에서 패들보드를 타는 아웃도어 액티비티부터 캠핑장에서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할 수도 있다.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하며 아름다운 자연 속 일부가 되어보자.

윈도우마운틴레이크하이킹

Window Mountain Lake Hike 산정 호수로 하이킹을 떠날 수도 있다. 약 7.6km의 코스로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푸른 호수로 향하는 길이다. 잠시 머물면서 물에 몸을 담글 수도 있고, 인근 캠핑장에서 쉴 수도 있다. 산정 호수로 떠날 용기만 가지고 오면 된다.

벨뷰 지하광산Bellevue Underground Mine

크로우네스트 패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투어 중 하나는 벨뷰 지하 광산 투어다. 광산 안은 좁기 때문에 방향을 위한 옷을 잘 챙겨야 한다. 약 1시간 동안 이어지는 투어를 통해 광산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지하 45.7m 아래로 내려가 경도를 볼 수 있다.



캐나다 여행 웨스트젯에서 시작됩니다

따뜻한 미소로 맞이하는 웨스트젯에 오른 순간, 캐나다 여행이 시작됩니다. 웨스트젯은 럭셔리한 787 드림라이너에서 최대한 편안한 비행을 즐길 수 있도록 작은 디테일까지 세심하게 신경 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비즈니스,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이 마련돼 원하는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울릉부터, 주 3회 서울과 캘거리를 잇는 직항편을 이용해 캐나다를 대표하는 여행지, 놀랍도록 아름다운 로키를 더 쉽고 편하게 여행하세요.

www.westjet.com

CANADA'S ✦ ALBERTA | WESTJET ✦